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董越의 「朝鮮賦」 연구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李 萌

董越의 「朝鮮賦」 연구

지도교수 이 종 묵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 전공
이 맹

이맹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위 원 장 조 해 숙 (인)

부위원장 김 대 중 (인)

위 원 이 종 묵 (인)

국문초록

본고는 董越의 대표작 「朝鮮賦」에 대한 연구이다. 동월의 조선 사행과 「조선부」의 내용은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지만 동월의 교유 관계, 「조선부」 형식의 특징, 賦라는 장르를 선택한 이유, 「조선부」가 간행된 후 韓·中 양국의 문헌에서 인용된 상황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월의 생애와 조선사행을 가급적 상세히 규명하고 그의 대표작 「조선부」 전반을 고찰하되, 「조선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조선부」라는 작품이 후대에 끼친 영향과 그 문화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제Ⅱ장에서는 '동월 이전의 조선 사행'과 '동월의 조선 사행'의 두 절로 나누어 15세기 중국 문인의 조선 사행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동월 이전 조선 사행의 양상을 확인한 다음, 『皇華集』에 실린 동월의 작품을 분석해 동월의 사행 여정을 밝혔다. 15세기 중국 문인의 조선 사행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면모들을 개관함으로써 「조선부」 작품 분석의 토대로 삼은 것이다. 아울러 이런 배경으로 창작된 「조선부」가 어떠한 판본으로 전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본격적인 작품 분석에 들어갔다. 우선 표현 기법과 문체 등 형식적인 특징에 유의하여 논의를 전개했으며, 본문에 自註를 부기한 형식의 특징, 그리고 그 형식의 유래를 규명하였다. 또 「조선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동월의 조선인식과 저술태도를 정밀하게 밝혀내고자 하였다. 「조선부」의 내용 구성을 분석하고, 「조선부」를 인용한 문헌들을 찾아내 관련 기록들을 비교함으로써 「조선부」를 통해 고증한 상황을 밝혔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제Ⅳ장에서는 「조선부」의 문학사적 위상과 가치를 가늠해보았다. 또한 「조선부」가 후대의 중국 문헌들은 물론, 조선 중기·후기의 문헌들에 인용된 양상들을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후대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조선부」에는 조선에 관한 서술이 정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며 오류가 적고, 분량에 비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주요어 :「朝鮮賦」, 董越, 사행, 조선, 自注, 明 使臣
학 번 : 2017-25565

목 차

Ⅰ. 서론 ····· 1

Ⅱ. 예비적 고찰 ····· 4
1. 董越 이전의 조선 사행과 사행록 ····· 4
2. 董越의 생애와 조선 사행 활동 ····· 14
1) 생애와 교유관계 ····· 14
2) 조선 사행과 조선부 ····· 20

Ⅲ. 「朝鮮賦」의 형식과 내용 ····· 30
1. 注를 병기한 賦 ····· 30
2. 저술 태도와 조선 인식 ····· 39
1) 사실의 기술 ····· 39
2) 조선 인식 ····· 41
3. 賦로 쓴 조선 풍물지 ····· 50
1) 지리와 풍물의 소개 ····· 50
2) 舊記錄에 대한 修正 ····· 72

Ⅳ. 「朝鮮賦」의 의의 ····· 78

Ⅴ. 결론 ····· 88

참고문헌 ····· 91
부록 ····· 97
中文摘要 ····· 104

표 목 차

[표 1] 董越 朝鮮使行 行程表 ····· 23

그 림 목 차

[그림 1] 사행 노정도 ····· 25
[그림 2] 樂廷瓌夫人行香圖 ····· 59
[그림 3] 奉使圖 제7폭 ····· 67
[그림 4] 奉使圖 제11폭 ····· 69

Ⅰ. 서론

본고는 明의 문인 圭峰 董越이 지은 「朝鮮賦」를 중심에 두고 그 창작 배경과 형식적 특성, 내용의 가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작품의 의의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韓中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정치적 교류나 사신들의 왕래 역시 빈번했다. 조선은 事大의 예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 국왕의 즉위 등 국가대사에 중국의 동의를 구하였고 중국은 頒詔・冊封 등 중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1368년에 건국한 明은 1391년에 元을 멸망시키고 中原을 장악하였다. 비슷한 시기, 한반도에서는 1392년 太祖 李成桂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세웠다. 이에 따라 중국과 조선은 새로운 외교 국면을 맞았으며, 양국 간의 외교 역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5세기까지 중국에서 조선으로 파견된 사신은 주로 조선 출신의 宦官이었다. 그러나 宦官들은 문학적 소양이 부족하여 한중 외교에서 문학적인 교류를 담당하기는 어려웠다.

그 후 1450년 翰林院侍講 倪謙이 조선에 출사한 것을 발단으로 韓中 문인의 문학적 교류가 시작되었다.[1] 예겸의 출사는 훗날 조・명 양국 외교에서 하나의 기점이 되어, 사절단의 대다수가 높은 문학적 소양을 지닌 문인으로 구성되고 양국 사신단 사이의 詩賦酬唱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2] 사행은 본래 정치적인 외교 행사이기 때문에 表文, 狀啓와 같은 형식의 글을 남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명나라 때 한중 외교의 자리에서는 중국 사신과 조선의 문인들이 문명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詩賦外交를 펼쳤다. 1450년 조선에 出使한 倪謙이 詩賦外交의 서막을 올렸고 이후 중국 사신과 조선 문인 사이의 詩賦外交의 전통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같은 문학적 외교활동은 한중 양국의 문학교류의 실상을 보여주는 『皇華集』이라는 시집으로 간행되어 전한다.

董越(1430~1502)은 명나라와 조선의 詩賦外交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활약한 명나라 문인이다. 그는 1488년에 弘治帝의 등극을 알리기 위해 頒詔正使로 조선을 방문했고, 머무는 동안 조선 문인과 시문을 수창하였다. 「조선부」는 동월이 조선 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후에 謝靈運의 「山居賦」를 참조하여 自注를 다는 賦의 형식으로 창작한 기행문이다.[3] 조선의 산천, 지리, 민정과 풍속을 기

---

1) Leejongmook, Establishing Friendships between Competing Civilizations: Exchange of Chinese Poetry in East Asia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RETHINKING THE SINOSPHERE*, CAMBRIA PRESS, 2020.

2) YANG SIMIN, 「15세기 朝明 詩文外交와 倪謙의 문학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6쪽.

록한 「조선부」는 풍부한 내용과 뛰어난 문학성으로 韓・中・日 동아시아 삼국에 널리 전해지고 읽혔다.

동월의 「조선부」는 변인석에 의해 처음 조명되었는데, 그는 四庫全書에 수록된 텍스트를 底本으로 삼아 「조선부」를 影印하고 동월의 생애와 「조선부」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다.[4] 이후 조영록은 「조선부」의 "國音", "檀君에 관한 기사" 및 중국에서 잘못 인식되었던 조선의 풍속・제도를 바로잡고 소개하는 등의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하였다.[5] 이후 「조선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해지지 못하다가, 1994년 윤호진이 「조선부」를 국역하여 간행하면서 다시금 연구에 활기를 띠게 된다.[6] 그리고 2013년 김영국의 『국역조선부』가 발간되어 윤호진의 번역본과 함께 「조선부」를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7] 그 후에 「조선부」의 판본과 간행[8], 禮儀外交[9], 朝鮮認識, 사회풍속[10] 등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었지만, 「조선부」의 일부 내용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다. 또 명나라 사신의 조선 인식을 살펴보는 일환으로 「조선부」가 연구된 바 있기도 하였다.[11]

이상의 연구사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월의 「조선부」는 굉장히 다채로운 성격을 지닌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는 민속・판본 등의 주제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으며, 「조선부」의 창작 과정 및 형식적 특징은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면이 있다. 동월의 조선 사행과 「조선부」의 내용은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다루어졌

---

3) 董越 지음, 김영국 옮김, 『국역조선부』, 심미안, 2013, 6쪽.

4) 卞麟錫, 『四庫全書 朝鮮史料의 硏究』, 민족문화, 1977.

5) 조영록, 「董越의 「朝鮮賦」에 대하여」, 『全海宗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전해종 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편집위원회, 일조각, 1979.

6) 董越 지음, 尹浩鎭 옮김, 「조선부」, 까치, 1994.

7) 董越 지음, 김영국 옮김, 위 책.

8)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소희, 「「조선부」의 한중일 간행과 유통」, 『장서각』 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김영국, 「북경대학본을 통해 본 「朝鮮賦」의 변개 양상」, 『韓國言語文學』 89, 한국언어문학회, 2014; 胡佩佩, 「董越 「朝鮮賦」 整理與硏究」, 연변대학 中國古典文獻學 碩士學位論文, 2017.

9) 曺虹, 「論董越 「朝鮮賦」－兼談古代外交輿辭賦的關係」, 『域外漢籍硏究彙刊』 제1집, 中華書局, 2005; 傅德華・李春博, 「明弘治年間中朝禮儀外交: 以董越出使朝鮮爲中心的考察」, 『韓國硏究論叢』, 復旦大學, 2009; 김한규, 「董越의 「朝鮮賦」와 迎詔禮 論爭」, 『使朝鮮錄 연구』,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10) 李慶宏・黃淵, 「弘治時期朝鮮的社會風俗－以董越「朝鮮賦」爲例」, 『宜春學院學報』, 宜春學院, 2014. 이 논문에서 간략하게 「朝鮮賦」에 나타난 조선의 음식, 복식, 건축에 대해 검토하였다.

11) 윤재환, 「董越과 龔用卿의 比較를 통해 본 中國 使臣의 朝鮮認識」, 『한민족어문학』 68, 한민족어문학회, 2014; 申太永, 「明使 董越의 「朝鮮賦」에 나타난 朝鮮認識」, 『한문학보』 10, 우리한문학회, 2004; 윤재환, 「董越의 「朝鮮賦」를 통해 본 中國 使臣의 朝鮮認識」, 『동방한문학』 53, 동방한문학회, 2012; 劉惠・楊秀英, 「明代中期使臣筆下的朝鮮－以董越「朝鮮賦」 爲例」, 『安陽師範學院學報』, 安陽師範學院, 2018.

지만 동월의 교유 관계, 「조선부」 형식의 특징, 賦라는 장르를 선택한 이유, 「조선부」가 간행된 후 韓·中 양국의 문헌에서 인용된 상황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월의 생애와 조선사행을 가급적 상세히 규명하고 그의 대표작 「조선부」 전반을 고찰하되, 「조선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조선부」라는 작품이 후대에 끼친 영향과 그 문화사적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동월 이전의 조선 사행'과 '동월의 조선 사행' 두 절로 나누어 15세기 중국 문인의 조선 사행을 검토해보려 한다. 먼저 동월 이전 조선 사행의 양상을 확인한 다음, 『황화집』에 실린 동월의 작품을 분석해 동월의 사행 여정을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15세기 중국 문인의 조선 사행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면모들을 개관함으로써 작품 분석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이런 배경으로 창작된 「조선부」가 어떠한 판본으로 전하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제3장은 본격적인 작품 분석에 해당한다. 우선 표현 기법과 문체 등 형식적인 특징에 유의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문에 自註를 부기한 형식의 특징과 유래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 「조선부」의 내용을 조사하여 동월의 조선인식과 저술태도를 정밀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조선부」의 내용 구성을 분석하고, 「조선부」를 인용한 문헌들을 찾아내 관련 기록들을 비교함으로써 「조선부」를 통해 고증한 상황을 밝히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제4장에서는 「조선부」의 문학사적 위상과 가치를 가늠해볼 것이다. 또한 「조선부」가 후대의 중국 문헌들은 물론, 조선 중기·후기의 문헌들에 인용된 양상들을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후대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Ⅱ. 예비적 고찰

1. 董越 이전의 조선 사행과 사행록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중국과 조선은 늘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해왔다. 1368년에 건국한 明은 1391년에 元을 멸망시키고 中原을 장악하였다. 1392년 한반도에서는 李成桂가 고려왕조를 멸망시키고 조선왕조를 창립하였다. 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짐으로써 중국과 조선은 새로운 외교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5세기에 이루어진 명나라 문인의 조선사행은 차후 근 2백여 년간 지속될 한중 문화교류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15세기 동안 명나라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한 횟수는 100번이 넘는다. 사신은 文臣, 武官, 宦官으로 나뉜다. 고려 시대와 겹치는 洪武 연간(1369~1398)에는 대부분 고려 출신의 환관들이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문신을 사신으로 보낸 일은 매우 적었다.[12] 金麗淵, 崔淵, 黃永奇, 李仁敬, 申用明, 辛興奇, 金禾, 鄭澄, 金希裕, 李原義, 陳漢龍 등이 모두 고려 출신 환관으로 明 使臣이 되어 조선에 다녀왔다.[13] 이 시기 遼東 정벌 등의 문제로 명-고려 사이의 외교적 분쟁이 잦았기에 더욱 사신 왕래가 빈번하였다. 고려 출신 환관은 고려의 정세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조선어에도 능통하였기에 사신으로 선호되었다.

명에 대한 事大를 표명했던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는, 火者・처녀・婢女・海東青 등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 출신 환관들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조선에서 많은 원성을 샀다. 사행의 목적 자체가 조선에 대한 인적・물적 수탈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환관들 자체가 조선에 머무르는 동안 재물을 밝히며 많은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들은 명나라 사신이라는 지위를 믿고 조선에서 교만하고 방자한 짓을 많이 하였다.[14] 따라서 조선 측에서는 환관 사신을 매우 성가시게 여겼다. 세종이 "중국에서 朝臣을 보내지 않고 宦寺들을 專任하

---

12) 임상훈,「洪武帝, 明代 宦官 外交의 創始者- 洪武帝의 宦官 抑制와 그 實體」,『東洋史學硏究』, 2014, 160쪽 참조.

13) "閹人黃永奇, 李仁敬, 申用明, 辛興奇, 金禾, 鄭澄, 金希裕, 李原義, 崔淵等二十餘人, 至自京師, 本國人也. 上命校書少監鄭渾訊其故. 興奇, 禾, 澄, 原義, 希裕等, 嘗覲親而還, 於赴京入闕時, 或持蘇合香元, 或持閹人在闕中者本家書信, 或持僧自超所贈隨求梵書漆環. 門者搜索奏聞, 帝見之驚怪, 命皆黜之. 上遣奉常寺事金乙祥, 具奏以聞, 請罪永奇等."(『태조실록』 1395년 5월 11일.); "癸酉/欽差內史崔淵, 陳漢龍, 金希裕, 金禾等, 持左軍都督府咨來. 上率百官迎于宣義門外. 至闕, 淵等傳宣諭, 馬一萬匹, 閹人及金完貴家小與將來. 上跪聽訖, 叩頭問聖躬萬福, 叩頭受左軍都督府咨, 其咨曰: (...)上與使臣行禮訖, 設宴. 淵等, 皆本國閹人. "(『태조실록』 1394년 4월 4일.)

14) 喩顯龍,「論明朝的朝鮮火者進貢與宦官使臣」,『當代韓國』, 2018, 118~121쪽 참조.

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내가 이 일을 명나라에 말하고자 하니, 咨文을 보내는 것이 어떠한가."[15]라는 질문까지 할 정도였다. 이는 바로 宦官 사신 海壽가 義州에 있었을 때 저지른 횡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논의였다.

그나마 建文 연간(1401~1402)에는 사신의 횡포가 덜했던 듯하다. 이는 정사와 부사를 모두 문관이나 監生에게 맡기고, 무관이나 환관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 시기 조선에 파견된 사신 陸顒과 章瑾은 詩畫와 文史에 능했다는 사실이 徐沁의 『明畵錄』에 기록되어 있다.[16] 말을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조선을 자주 찾았던 祝孟獻은 '薦擧' 출신으로 시를 잘 지었다고 한다. 端木智는 書香世家 출신으로 아버지와 형이 모두 儒士였는데, 端木智와 그의 형 端木禮는 모두 翰林侍書의 관직을 역임했으며, 두 형제가 모두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된 바 있다. 端木智는 특히 초서에 능했다고 한다.

다만 이 시기 조선에 갔던 사신들은 이전의 환관 사신들보다 청렴하긴 했지만, 다른 면에서 민망한 행위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祝孟獻과 함께 조선에 사신으로 갔던 監生 陳敬은 기생에 깊이 빠져, 귀국할 때 임금에게 기생을 데리고 金郊까지 가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17] 端木智도 매일 기생과 술을 마시고 사신의 책무에는 전념하지 않았다. 그리고 端木智는 조선에 사행을 갔을 때 자신의 서예 실력이 "天下第一筆"이라고 과시하고 "王羲之와 다르지 않다"고 자칭하는 교만한 말까지 하였다.[18] 아울러 당시에는 사신을 접대하며 시를 수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 문신들이 사신으로 오긴 했어도 文才로 조선을 탄복시킨 경우는 드물었다.[19]

建文 연간에 문신·감생 등에게 사행 임무를 맡겼던 것과 달리, 永樂(1402~1424)·宣德(1425~1435) 연간에는 환관들의 조선 사행이 본격화되었다. 尹鳳이 출사한 횟수는 12번이나 되고, 黃儼은 11번이나 되었다. 이 시기 환관들이 주로 사신으로 임명되었던 것은 명나라 내부의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았다.[20] 환

---

15) "上召政府, 六曹議曰: '吾以至誠待彼, 凡所求索, 無不曲從, 贈與之物, 動計千百. 今以不義, 辱我邊將, 其貪婪無恥, 至於如此. 中國不遣朝臣, 專任宦寺何哉? 予欲以此事聞于上國, 移咨何如?'" (『世宗實錄』 1423년 9월 27일)

16) "陸顒, 興化人, 工詩, 精書法, 官禮部員外郎, 善畵人物, 精采奕奕, 時稱三絶."; "章瑾, 字公瑾, 號采芝, 華亭人, 宋莊敏公之后. 能詩善草書, 尤長於畵山水. 宗夏圭、馬遠, 揮毫渲染, 或頃刻立就, 或數日不著一筆. 兼善人物, 傳有「春江送別」及「寒山拾得像」, 無漸古人, 張觀以後一人而以." (徐沁, 『明畵錄』)

17) "敬又當餞宴, 復于上曰: '使妓隨我, 雖至金郊而還, 粉骨何忘!' 上笑而從之." (『太宗實錄』 1401년 10월 16일.)

18) "智携妓日醉, 自誇其書曰: '天下第一筆.' 以印本一冊, 贈判閣俔眉壽曰: '書法與王羲之無異也.'" (『太宗實錄』 1402년 2월 2일)

19) 李新峰, 「明前期赴朝鮮使臣叢考」, 『明淸論叢』第4輯, 紫禁城出版社, 93~94쪽, 2003.

20) 조선에 간 명나라 사신 목록은 苗壯, 「明代出使朝鮮使臣的域外記志詩」, 『域外漢籍硏究

관의 도움으로 제위를 탈취했던 영락제는 군공을 세운 환관들에게 국가의 중대사를 맡기기도 하였다.[21] "대개 明朝에 환관들의 出使, 專征, 監軍, 分鎭, 刺臣, 民隱 등의 大權은 永樂年間부터 시작하였다."[22]라는 말은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선덕제 역시 환관을 총애하여 환관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기관인 '內書堂'을 설치할 정도였는데, 많은 내서당 출신 환관들은 후대에 政事를 간섭하고 정치를 교란시키는 주범이 되었다.

成化 연간, 조선의 외교적 위상과 비중이 중시됨에 따라 명나라에서는 환관 대신 문신을 사신으로 파견하게 되었고, 이에 응하여 조선 역시 외교의례에서 관반들의 문학적 능력을 강조하게 되었다.[23] 그리하여 조선과 명나라의 사행외교는 점점 詩賦外交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자연히 문신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의 문신들은 대부분 翰林院・六科・行人司에 소속된 中央官員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翰林院은 詔書의 초안을 만들고 議政의 형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곳이었으며, 六科(吏科・戶科・禮科・兵科・刑科・工科)는 國政과 朝廷方針의 制定에 참여해 국가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는 곳이었다. 또한 行人司는 국가 외교 事務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곳이었다. 翰林院과 六科는 국가 행정 시스템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므로, 翰林院과 六科의 문신 관원들은 곧 국가 최고 행정기구에서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조선으로의 사행 임무를 맡게 된 문신 사신들은 出使하기 전에 이미 국가 최고의 행정 사무에 참여하고 있었던 국가 정책의 최고 결정자들이었던 셈이다. 예를 들어, 1460년 조선에 正使로 파견되었던 張寧은 禮科給事中職을 맡았는데, 재임하는 동안 대부분의 六科 상소문을 썼으며, 조정에서도 정사를 의논하는 과정에 반드시 그의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24] 또 1567년 翰林院檢討로서 조선에 정사로 파견되었던 許國은 30년 동안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에 몸담았다.[25] 그들의 문학 수준을 따지자면, 과거에 급제하여 국가의 요직에 선발되었을 정도로 거의 모두가 당대 최고 수준의 文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다.[26]

集刊(第八輯)』의 104~113쪽 참조.

21) "文皇以爲忠於己, 而狗兒輩復以軍功得幸, 卽位後遂多所委任."(『明史・宦官列傳』 권304)

22) "蓋明世宦官, 出使, 專征, 監軍, 分鎭, 刺臣民隱事諸大權, 皆永樂年間始."(『明史』, 卷304, 列傳第一百九十二, 宦官一)

23) 안주혁, 「조선 전기 명사의 사행과 영조・칙 의례의 명례 수용」,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2쪽.

24) "六科章奏多出其手, 每有大議必問張給事云何..... 其才略爲一時所稱." (『四庫提要・方洲集』)

25) "在密勿樞機之地者三十年" (「許文穆公集序」,『許文穆公集』, 四庫禁燬書叢刊本, 第40集, 北京, 北京出版社, 2000년, 32쪽.)

26) 苗壯, 「明代出使朝鮮使臣的域外記志詩」, 『域外漢籍硏究集刊(第八輯)』, 中華書局, 2012.

1450년 倪謙과 司馬恂의 조선 사행은 兩國 외교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예겸은 翰林院 문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신으로 발탁되어 조선에 파견된 경우에 속했다. 예겸의 출사는 훗날 조·명 양국 외교에서 하나의 기점이 되어, 사절단의 대다수가 높은 문학적 소양을 지닌 문신으로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27] 이후에는 명나라에서 파견된 사신들이 조선 문인들과 詩賦를 酬唱하는 것이 하나의 외교적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사행 기간 이루어진 본격적인 韓·中 문학교류는, 환관이 아닌 문재가 뛰어난 翰林院 출신 문신이 조선에 사신으로 오는 15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명나라 사신들이 귀국하며 조선 문인과 수창한 시를 모아 간행한『皇華集』을 가지고 돌아가는 전통이 생겨났다.

한편 사신이 출사하여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을 使行錄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 또한 유구하다. 고대로부터 중국에서 한반도로 출사한 사신은 대부분 문인 출신이었고, 귀국 후에 자기의 사행 과정과 見聞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먼저 동월 이전의 사행록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고구려·신라에 관한 唐代의 사행록은 陳大德의『奉使高麗記』, 顧愔의『新羅國記』, 馬宇의『新羅紀行』이 있다. 셋 중에서 陳大德의『奉使高麗記』만이 전하며, 그 밖의 것들은 일부 佚文만 남아 있다. 최초의 新羅 使行錄은『新羅國記』이다. 金富軾(1075~1151)은『三國史記』에서 3번이나『新羅國記』를 인용하였는데, 저자를 令狐澂으로 오인하였다.『三國史記』 권4「花郎道創始與眞興王三十七年」에서『新羅國記』를 인용한 부분을 살펴보면, "당나라 영호징의『신라국기』(唐令狐澂『新羅國記』)"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新羅國記』를 편찬한 사람은 영호징이 아니라 顧愔이다. 顧愔은 唐 代宗 大歷 연간(766~780) 從事官으로 冊封正使 歸崇敬을 따라 신라에 다녀왔다. 중국에 돌아온 후에 신라에서 견문한 것을 바탕으로『新羅國記』를 작성했다. 令狐澂이 이 책을 읽고, 본인이 집필한『大中遺事』에 일부 내용을 인용했는데, 아마 이 때문에 김부식이『新羅國記』의 작자를 令狐澂으로 착각했던 듯하다.[28]

唐 太宗은 고구려의 군사·지리 정보를 얻기 위해 고구려 太子의 入唐에 대한 답례를 핑계로 陳大德을 고구려에 파견했다. 陳大德은 640년 12월 고구려로 출발하여 641년 8월에 중국으로 돌아왔다. 陳大德은 귀국한 후 고구려에서 얻은 정보를 모아『奉使高麗記』를 써서 唐 太宗에게 바쳤다.『奉使高麗記』는『舊唐書·經籍志』와『新唐書·藝文志』에 記載되어 있지만, 편찬자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29] 韓致奫은『海東繹史』에서『浙江書目』·『四庫全書總目』을 인용하여『奉使高麗記』의 편

27) YANG SIMIN, 앞의 논문, 6쪽.

28) 周斌,「唐人顧愔及其『新羅國記』考論」,『西華師範大學學報』, 2016; 李巖,『朝鮮中古文學史研究』, 人民文學出版社, 2015, 65쪽.

29)『舊唐書』권46『經籍志』乙部史錄地理類에서 "奉使高麗記一卷"이라는 記述이 있다.(『舊唐書』, 中華書局, 1975, 2016쪽.);『新唐書』권58『藝文志二』乙部史錄地理類에서 "奉使高麗記一卷"이라는 記述이 있다.(『新唐書』, 中華書局, 1975, 1506쪽.)

찬자가 徐兢이라는 설을 반박하고, 『高麗圖經』 외에 별도로 이 책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陶宗儀의 『說郛』에 『使高麗錄』 1권이 실려 있는데, 이는 『高麗圖經』 중 海道에서의 일기 부분만을 초록한 것임에도, 후인들이 이를 『奉使高麗記』로 오인하는 바람에 혼선이 생겼다는 것이다. 『天一閣書目』에 4권으로 된 『奉使高麗記』가 存目되어 있지만 누가 지은 책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靑莊館全書』, 『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도 서명만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20세기 초 日本에서 발견된 唐 張楚金의 『翰苑』 결본에 『高麗記』의 佚文 13條가 인용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奉使高麗記』의 편찬자가 640년 고구려에 다녀갔던 陳大德임이 입증되었다.[30]

805년 2월 신라에 출사했던 馬宇는[31] 중국에 돌아온 후에 『新羅紀行』을 집필했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아 책의 내용을 고증하기 어렵다. 다른 자료에도 인용된 경우가 없으며 李翱가 쓴 馬宇의 墓誌에 그의 저술 중 『新羅紀行』이 있다는 언급이 발견될 뿐이다.[32]

고려로 사행 온 중국 문인의 사행록도 꾸준히 편찬되었다. 南唐의 章僚는 948년에 고려에 다녀온 후에 『海外使程廣記』를 편찬했다. 『海外使程廣記』가 집필된 시기는 948년에서 959년 사이로 추정되며, 고려의 자연·기후·지리·풍속 외에도 女眞이 고려에게 말을 進貢한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태조 23년(940년) "二京六府九節度百二十郡"으로 된 고려의 지방행정 구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문헌상에 보이는 고려의 지방행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33] 『通志』에는 『高麗國海外程大昌』이라는 제목으로, 『續演蘩露』에는 『海外行程記』라는 제목으로 인용되어 있지만, 지금은 일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海東繹史』에서는 『通志』·『文獻通考』 등에 소개된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특히 『演蘩露續集』에 실린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인용하였다. 『靑莊館全書』·『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34]

北宋 端拱 연간(988~989)에 고려에 출사했던 呂祐之는 귀국 후에 사행 경험을 바탕으로 『海外覃皇澤詩』 19수를 지어 宋 太宗에게 바쳤다. 宋 劉延世의 『孫公談圃』에는 '呂相端'이 귀국길에 바다를 지날 때 파도가 갑자기 일었는데 금으로 쓴 『維

30) 姜維東、劉矩, 『東北地方民族史證』, 吉林大學出版社, 2005, 167쪽참조; "『高麗記』는 唐 貞觀 년간에 작성되고 편찬자는 職方郎中 陳大德이다." (姜維公、姜維東, 「『高麗記』成書時間及作者考」, 『古籍整理硏究學刊』, 1998, 44쪽.)

31) "永貞元年二月, 命兵部郎中兼中丞元季方告哀於新羅, 且冊立嗣王. 主客員外郎兼殿中監馬與('宇'의 오자)爲副." (『順宗實錄』 卷二)

32) "撰『歷代紀錄』, 『類史』, 『鳳池錄』, 『纂寶』, 『折桂錄』, 『新羅紀行』, 『將相別傳』, 及所爲文, 總 四百八十八卷....." (『文苑英華』 권946 「秘書少監史館修撰馬君墓志」, 中華書局, 1966, 4975쪽.)

33) 王元林, 「南唐章僚『海外使程廣記』考」, 『求索』, 2015.

34) 이종묵 외, 『조선에 전해진 중국 문헌 해제』 (서울대출판부, 2020, 간행예정). 이하 고려의 사행록은 이 책을 참조하였다.

摩經』을 물에 빠뜨리자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고사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에서 崔公度가 禮部에 있을 적에 "고려에 사신으로 간 사람들의 故實을 찾았다(求奉使高麗故實)"는 기록이 있다. 한치윤은 『海東繹史』에 『孫公談圃』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奉使高麗故實』을 書名으로, 呂相端을 '呂端'이라는 人名으로 본 듯하다. 한치윤의 견해대로 呂相端을 呂端으로 본다면, 이는 呂端(935~1005)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宋 太宗 端拱 연간(988~989) 고려에 사신으로 갔다는 기록이 보인다. 한치윤의 견해가 옳다면, 呂端 또한 『奉使高麗故實』이라는 사행록을 집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楊景略도 1084년 8月 고려에 출사했다. 돌아온 후에 『奉使句麗叢抄』 12권을 작성해 宋 神宗에게 바쳐 中書舍人으로 승진되었다. 그리고 "고려의 풍토, 인물, 예의를 일일이 빠짐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能道其土風人物, 禮儀繁略, 纖悉不遺)"라는 평가를 받았다.[35]

1083년 고려 順宗이 승하하자, 宋 神宗은 고려에 조문사절단을 파견했다. 이 때 右諫議大夫 錢勰과 西上閤門副使 宋球가 사신으로 왔는데, 宋球는 사행 길에 몰래 고려의 산천과 풍속을 조사하고 이를 그림으로 기록하여 『高麗圖紀』(『高麗事紀』라고도 함)를 작성해 神宗에게 바쳤다. 宋球가 사신으로 온 일은 『高麗史』에도 기록되어 있다. 한치윤은 『海東繹史』에서 『高麗圖紀』를 서명으로 보고, 그 저술 경위를 『孫公談圃』의 내용을 인용하여 소개해 놓았다. 그러나 『해동역사』에서 인용한 것은 『孫公談圃』가 아닌 『宋史』에서 인용한 것이다. 『高麗圖紀』는 일실되어 현재 전하지 않는다.

고려 사행록 중 가장 널리 알려진 『鷄林類事』는 宋 孫穆이 고려에 관해 기술한 見聞錄이자 語彙集이다. 孫穆은 書狀官으로 고려에 왔지만, 이력은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 이 책은 원래 3권으로, 고려의 풍습・제도・언어・表文 등을 소개한 것으로, 1103년 무렵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하는 것은 方言과 土風, 朝制의 일부만 『古今圖書集成』과 『說郛』 등에 실려 전한다.[36] 고려의 제도와 풍습 등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 方言이라는 표제 하에 당시의 高麗語를 356항목에 걸쳐 중국 字音으로 표기하였다. 漢字音은 宋代의 開封音으로 추정된다. 『鷄林類事』의 「方言」 1권은 전체 내용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시기 한국어와 宋代 漢語音을 연구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진귀한 자료이다. 權文海(1534~1591)는 『大東韻府群玉』에서 『鷄林類事』의 방언 기록을 인용하였으며, 한치윤의 『海東繹史』에도 『鷄林類事』의 高麗 方言이 전부 인용되어 있다. 『星湖僿說』, 『熱河日記』, 『林下筆記』, 『靑莊館全書』, 『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도 여러 차례 『鷄林類事』를 인용했는데,

35) 李梅花, 『10-13世紀宋麗日文化交流硏究』, 花齡出版社, 2005, 66쪽.

36) 「方言」 一卷만 결본없이 보존되어 있고, 나머지 二卷은 10條만 남았다. (楊渭生, 『宋麗關係史硏究』, 杭州大學出版社, 1997, 356쪽.)

대부분이 다 방언에 관한 내용이다.

宋 王雲도 1103년 고려에 사절단의 일원으로 다녀온 뒤, 귀국하여 『雞林志』를 지었다. 『宋史』에 의하면, 王雲은 字가 子飛이고 澤州 출신으로, 사신을 따라 고려에 갔다가 이 책을 지어 바쳐 中書舍人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전하지는 않는다. 宋 晁公武의 『郡齋讀書錄』에서는, 宋 徽宗 연간(1082~1135) 王雲이 戶部侍郎 劉逵, 給事中 吳栻 등의 書記官으로 고려를 방문하여 보고들은 내용을 8類로 분류해 『雞林志』를 지었다고 소개하며, 전체가 30권이라 하였다. 宋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에도 이 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宋 神宗 연간(1048~1085) 이래 宋과 고려가 交通한 사실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王應麟의 『玉海』에서는 20권으로 소개하며, 崇寧 연간(1102-1106) 吳栻이 고려에 사신으로 갔다가 지은 것이며 당시의 詔誥도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說郛』에 일부가 실려 있는데 편찬자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다. 『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이 책을 직접 보았다는 기록이 보인다.[37] 金馹孫의 「管處士墓誌銘」에도 이 책을 직접 본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芝峯類說』에서도 이 책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였다. 『靑莊館全書』, 『林下筆記』, 『海東繹史』, 『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서는 이 책을 소개만 하였다. 吳栻이 지었다는 20권의 『雞林志』를 王雲의 『雞林志』와 구분하여 『崇寧雞林志』라고도 한다.

傅墨卿은 1123년 副使로 고려에 출사하였다. 귀국한 후 『高麗錄』을 편찬했지만 현재 전하지 않는다. 傅墨卿은 字가 國華고, 浙江 紹興 사람이다. 1123년 고려를 방문했을 때 路允迪이 정사였고, 傅墨卿은 부사였으며, 國信使提轄官 徐兢이 從屬으로 따라 갔다. 宋 趙彦衛의 『雲麓漫抄』에서는 潮汐의 변화를 담론하며 傅墨卿의 『高麗錄』을 인용하였다.[38] 인용한 내용은 『高麗圖經・海道』의 序論과 같다. 이 때문에 傅墨卿이 『高麗圖經・海道』의 집필자라는 견해도 있다.[39]

徐兢(1091~1153)은 자가 明叔, 호는 自信居士이며, 安徽 和縣 출신이다. 1123년 고려에 사신으로 가서 한 달간 머물면서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해 『宣和奉使高麗圖經』(『高麗圖經』으로 약칭함)을 편찬하였다. 徐兢은 귀국한지 1년 뒤에 『高麗圖經』을 완성해 宋 徽宗에게 바쳤다. 徽宗이 이를 읽은 후에 매우 기뻐하며 知大宗正丞事로 발탁하고, 掌書學을 겸임케 하였다. 『高麗圖經』은 전체 40권이며,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 徐兢은 왕운의 『鷄林志』에 문자만 있고 그림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

---

37) 徐兢이 『高麗圖經』의 서문에서 "신이 숭녕 연간에 왕운이 찬술한 『계림지』를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說만 기록하였으나 그 형상은 기록하지 않았다. 근자에 사신 행차 때 그것을 가져다 참고하였는데 도움이 이미 많았다.(臣嘗觀崇寧中王雲所撰雞林志, 始疏其說, 而未圖其形, 比者使行, 取以稽考, 爲補已多.)"라고 했다.

38) 『雲麓漫抄』에서 "徐明叔, 傅墨卿高麗錄雲"라고 되어 있는데, "傳"은 "傅"의 誤字일 것이다.

39) 王皓, 「關與『宣和奉使高麗圖經』創作的幾個問題」, 『四川師範大學學報』, 2012, 130~131쪽.

高麗圖經』에 글과 그림을 모두 수록하였다. 이처럼 한반도에 사신으로 왔던 문인들이 남긴 사행록 중에서 글과 그림을 모두 수록한 경우는 『高麗圖經』이 유일하다. 청나라 때 편찬된 阿克敏의 『奉使圖』에도 그림이 있긴 하지만, 阿克敏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수록한 것이다.[40]

수많은 사행록들 중에서 「조선부」는 『高麗圖經』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高麗圖經』의 내용 구성에 착안하여, 「조선부」에서도 지리・산천・풍속・물산・건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삼은 것이다. 사물을 기술하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숫자로 정확하게 사물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도 양자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高麗圖經』의 기록은 대부분 靜的인 사물에 대한 묘사인 반면, 「조선부」에서는 山臺雜戲의 演出, 宴饗에서의 獻杯와 割牲畢 등 계속 이어지고 변화하는 동태적 화면까지 기록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建炎假道高麗錄』은 宋 楊應誠이 고려에 사신으로 가서 지은 雜錄이다. 楊應誠은 南宋 高宗(1127-1162 재위) 연간의 문인이지만 이력이 자세하지 않다. 宋 陳振孫의 『直齋書錄解題』에 이 책이 1권이며, 遼東의 길을 취해 金에 사신으로 갔지만 도달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같은 내용이 『文獻通考』에도 보이는데 『海東繹史』에서는 이를 인용하였다. 이 책은 일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서명으로 보아 고려를 경유하여 金國으로 가는 내용이 실려 있었던 듯하다. 韓致奫은 『宋史』를 인용하여 建炎 2년(1128) 楊應誠이 고려에 사신으로 가서 徽宗과 欽宗 두 황제를 맞아오려 하였으나, 고려에서 詔書를 받지 않았다는 기록을 함께 적었다. 楊應誠이 사신으로 온 일은 李仁老의 『破閑集』에도 기록되어 있다.

『高麗志』는 元 王約이 편찬한 고려 사행록이다. 王約(1252-1333)은 字가 彦博이고 號는 豫齋로 汴京 출신이며 元朝에 入仕하여 集賢殿太學士에 올랐다. 經史에 능통하였고 『史論』, 『潛丘稿』 등의 저술을 남겼다. 그는 成宗 大德 7년(1303, 충렬왕29) 고려로 사신 갔을 때 보고들은 내용을 기록하여 4권의 책으로 엮었다. 그러나 현전하지 않는 관계로, 『高麗志』의 정확한 저작 연대나 구체적인 체재 및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海東繹史』, 『五洲衍文長箋散稿』, 『靑莊館全書』 등에 언급되어 있지만, 모두 『高麗史』의 기사를 재인용한 것이다. 『熱河日記』에 이 서명의 책이 일본에서 발굴되었다는 소문을 적고 있는데 같은 책인지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 문헌에서 '高麗志'라 한 것은 『高麗史』의 志를 가리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밖에 편찬자를 알 수 없는 고려 사행록으로는 『使高麗事纂』, 『高麗行程錄』, 『

40) 阿克敏은 1717년 두 번, 1722년 한 번, 1724년 한번, 총 4번이나 조선에 사신으로 왔다. 1725년 6월 『奉使圖』가 완성되었는데, 여기에는 그림과 함께 阿克敏이 사행 길에 창작한 紀行詩 28수가 수록되었다. 『奉使圖』는 圖冊과 文冊 총 2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圖冊에는 다른 사람이 조선의 風景을 그린 그림 20 폭을 싣고, 그 위에 阿克敏의 紀行詩 28수를 실었다. 文冊에서는 당시의 문인들이 阿克敏의 조선 사행을 칭송하며 제작한 시와 그림을 수록하였다. 요컨대, 『奉使圖』에서 阿克敏이 직접 쓴 것은 사행 길에 작성한 紀行詩 뿐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이 짓고 그린 것이다.

高麗日曆』,『海東三國通錄』,『高麗日本傳』 등이 있다.『高麗行程錄』은 南宋 藏書家 尤袤의『遂初堂書目』地理類에 실려 있는데 권수나 편찬자가 적혀 있지 않다.『海東三國通錄』은『遂初堂書目』僞史類 夷狄에 실려 있는데, 역시 편찬자가 적혀 있지 않다.[41]

明代는 사행록 창작의 전성기였다. 성화제 이래 조선에 파견된 사신들은 대부분 문한이 뛰어난 문신들이었고, 이 시기에 詩賦酬唱이 성행하여 좋은 글이 많이 창작된 것도 그 이유가 되었다. 15세기 중국 문인의 조선 사행에서 주목할 만한 사신으로는 倪謙, 張寧, 祁順, 董越 등을 들 수 있다. 張寧(1426-1496)은 字가 靖之이고 號가 方洲이며 海鹽 출신이다. 1460년 조선에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하여『奉使錄』을 남겼으며, 문집『方洲集』과 잡록『方洲雜錄』이 전한다.『奉使錄』은『方洲集』권12・13에『奉使錄』上・下로 나뉘어 실려 있고,『寶顔堂祕笈彙函』에는 2권으로 수록되어 있다.『海東繹史』에는 1책이라 되어 있다.『方洲集』권13의『奉使錄』下에는 朝鮮刻本이라 되어 있는데 조선에서 간행된『皇華集』을 옮겨 실은 것으로 보인다. 또 권14-26에 序, 書, 碑, 記, 說, 題, 跋, 論, 辨, 解, 祭文, 墓誌, 雜著 등 다양한 산문이 실려 있으며, 권27-32에는『讀史錄』이 실려 있는데,『독사록』은『海東繹史』,『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 인용되었다.『說郛續』에 실린 것은『方洲集』에 수록된「雜言」의 일부를 초록한 것으로 보인다. 西域에서 바친 기이한 말, 조선에 사신으로 가면서 본 신기한 샘물, 火浣布 등 7조가 실려 있다.『林下筆記』에서『方洲雜錄』을 인용하여 眼鏡에 대해 기술하였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기이한 형상의 돌과 火浣布를 소개하면서『方洲雜錄』을 인용하였다.『方洲雜錄』은『四庫全書總目』에는 書名이『方洲雜言』으로 되어 있다.『靑莊館全書』에는『方洲雜志』로 되어 있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方洲雜言』과『方洲雜志』가 함께 나온다.

倪謙은 1438년에 진사시에 급제하였으며 翰林院編修가 되었다. 1449년에 侍講을 맡고 1450년에는 正使로 선발되어 조선에 파견되었다. 이는 조선 건국 이래 명나라에서 처음으로 翰林院 출신 문신을 사신으로 보낸 것이었다. 예겸이 출사했을 때 館伴使는 조선 초기 대표적인 유학자인 鄭麟趾(1396~1478)였다. 명나라 사신과 詩賦를 酬唱하여『황화집』에 그 작품이 실린 조선의 문신들 중에는 成三問(1418~1456)・申叔舟(1417~1475) 등 당대 조선의 최고 엘리트 지식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문재가 뛰어난 문신을 보내 중국 사신과 문학 실력을 겨루도록 했던 것을 보면, 조선 측에서도 翰林院 출신 사신들에 대한 대접을 중요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倪謙의 사행록은『庚午皇華集』외에『奉使朝鮮倡和詩卷』이 주목된다. 이 책은 예겸이 집현전 학사 성삼문・신숙주・정인지와 주고받은 시문 37편을 엮은 문집이다. 예겸의 아들 예악이 정리하여 편집한『遼海編』도 주목되는데, 이는 예겸이 조선에

41) 南京圖書館編,『錢亞新文集』, 南京大學出版社, 2007, 329쪽 참조.

와서 문인들과 화답한 시를 모어 엮은 책이다. 정인지는 『遼海編』에 서문을 써 주었고 성삼문은 발문을 써 주었다. 『遼海編』 제2권에는 예겸이 황명을 받들고 이별을 고한 뒤부터, 조선의 수도 한양에 이르기까지 사행의 여로에서 보고 느낀 바를 읊은 기행시가 수록되어 있다. 제3권 「朝鮮紀事」는 기행일기로, 날짜에 따라 사절단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두 지역 사이의 구체적인 지점들과 거리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자세하다.[42] 「朝鮮紀事」는 『四庫全書』에도 수록되어 있다.

祁順(1434~1497)은 1476년 太子의 책립 조서 반포를 위해 조선으로 출사하여 당시의 遠接使였던 徐居正(1420~1488)과 문명의 대결을 벌였다.[43] 기순은 26세에 進士로 급제하여 29세에 兵部主事가 되고 員外郎 郎中에 임명된 문인이다. 조선 측에서는 문재가 빼어난 기순이 사신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文翰에 능하며 大提學의 직책을 맡고 있던 서거정을 원접사로 보내 기순을 접대하였다. 조선에 파견된 많은 문신 사신들 중 기순이 가장 주목되는 까닭은, 바로 그와 서거정 사이에서 벌어진 시문 대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祁順이 조선에 오기 전부터 서거정은 이미 중국 사신들과의 시문 대결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다. 서거정은 첫 한림원 출신 사신 예겸이 1450년에 조선에 왔을 당시 弘文館 副修撰으로서 시를 지어 명나라 사신들의 큰 칭찬을 받기도 했다.[44] 또 1457년에 조선에 사행 온 翰林院 修撰 陳鑑[45], 1460년에 온 禮科給事中 張寧[46], 1464년에 온 太僕寺丞 金湜[47] 등을 접대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였다.

기순은 조선에서 머무는 동안 조선 측 문인들과 빈번하게 시문수창을 하였다. 그

---

42) YANG SIMIN, 「15세기 朝明 詩文外交와 倪謙의 문학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25~26쪽.

43) 이종묵, 앞의 논문.

44) "景泰庚午, 翰林學士倪謙, 給事中司馬恂奉使東來. 徐居正時爲修撰, 兩使見其述作, 稱賞不已." (權鼈, 『海東雜錄 4』, 「徐居正」.)

45) "陳鑑等遊漢江, 登濟川亭. 命文官金守溫, 徐居正, 金壽寧等, 與都監設宴, 數酌而罷. 乘舟順流而下, 使漁人打魚, 鑑等樂甚, 將鯉魚二尾授司饔官進上. 命禮曹判書洪允成, 同副承旨金礩, 經到露梁灘上, 邀謁鑑等, 遂同舟緩掉而下, 至龍山灘下. 遇雨相與賦詩, 擧酒相屬. 至加乙頭, 捨舟而上, 禮賓設宴, 礩以宮醞魚肉餽鑑等, 允成以下各以次行酒." (『世祖實錄』 1457년 6월 7일)

46) "明使到婆娑府, 與都司李端, 伴送使朴元亨及義州牧使, 承旨共坐都司陣營. 都司宣慰使吏曹參議徐居正行宣醞禮, 兩使及張敬皆行酒, 極歡. 臨別, 兩使謂元亨曰: '海外之國非一, 誰如殿下至誠事大? 朝廷號貴國禮義之邦, 皇帝待之如一家, 宰相以此回啓殿下, 又說與諸宰相知道.'" (『世祖實錄』 1460년 3월 21일) 여기의 "兩使"는 바로 1460년 조선에 출사 한 張寧과 武忠를 가리킨다.

47) "明使詣成均館謁聖, 遂入明倫堂, 使臣北壁, 假館官河東府院君 鄭麟趾, 蓬原府院君 鄭昌孫東壁, 行僉知中樞院事李邊, 仁山君 洪允成, 館伴朴元亨, 尹子雲及中樞院副使徐居正, 藝文提學李承召, 都承旨盧思愼, 右承旨李坡西壁坐定, 大司成李堣以下及儒生等再拜而出. 金湜等曰: '若變儒生頭巾體制, 則與中國無異矣.' 仍問曰: '昨所言雅樂, 何故不陳?' 曰: '雅樂, 非大祭, 不陳.' 湜等曰: '是.'" (『世祖實錄』 1464년 5월 23일)

중에서 서거정과 수창한 시문이 가장 많고 그 수준도 높다. 『황화집』에 수록된 기순의 작품은 144수이고, 서거정의 작품은 191수이다. 그 외에 기순의 개인 문집 『巽川集』에도 해당 사행 때 쓴 시문 27수가 수록되어 있고, 서거정의 문집 『四佳集』에도 창화 시문 42수가 수록되어 있다.[48] 서거정은 기순과의 시문 대결에서 기순에 못지않은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명나라 사신들이 사전에 준비해온 어휘들을 활용하여 시문대결에 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거정이 먼저 시를 지은 뒤 자신의 시에 차운하라고 하여 중국 사신을 궁색하게 만들었던 일화가 전하기도 한다.[49]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일은, 서거정이 기순의 「太平館登樓賦」를 次韻하여 「次韻祁戶部太平館登樓賦」를 지은 것이다. 詩를 차운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詞賦는 장편이므로 押韻하는 곳이 많아 차운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그럼에도 서거정은 기순이 지은 辭賦 작품을 차운하여 중국 사신들을 탄복하게 만들었다.[50]

이상에서 확인했듯이, 15세기 전반에는 환관들이 사신으로 출사한 경우가 많았으나,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進士 翰林院 출신 예겸이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된 것을 계기로 조선과 명나라 양국 사이의 詩賦外交가 막을 올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양국의 시부외교에서 창작된 詩文을 모은 『황화집』이 조선에서 편찬·간행되었다. 예겸 이후 조선에 파견된 진감·기순·동월 등 문신 사신들이 계속 시부외교의 전통을 이어나갔고, 『황화집』에 빼어난 시문을 남기며 以文華國의 임무를 수행했다. 한편, 고대부터 한반도를 사신으로 방문했던 중국의 문인들은 고구려·신라·고려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 왔다. 이렇듯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사행록의 전통 위에서, 동월의 조선 사행록이라 할 수 있는 「조선부」가 창작되었던 것이다.

2. 董越의 생애와 조선 사행 활동

1) 생애와 교유관계

48) 李培培, 「明朝使臣祁順與朝鮮文人徐居正的唱和詩」, 『齊齊哈爾大學學報』10, 齊齊哈爾大學, 2016, 116쪽.

49) “達城曰, “天使雖善作詩. 皆是宿構. 不如我先作詩以希賡韵. 則彼必大窘矣.” 遊漢江之日. 登濟川亭. 達城出呈詩數首曰. “大人逸韵. 僕未能酬. 今綴蕪詞. 仰希高和.” 戶部微笑一覽. 卽援筆寫下. 文不加點. ‘如百濟地形臨水盡. 五臺泉脉自天來’之句. ‘倚罷高樓不盡情. 又携春色泛空明’, ‘人從竹葉盃中醉. 舟向楊花渡口橫’之句. 又作「江之水辭」, 乘舟順流而下. 至于蠶嶺不曾輟詠. 達城膽落, 岸帽長吟而已.”(成俔, 『慵齋叢話』 권1.)

50)“古者, 詩有和無次韻, 次韻起於後世, 至如詞賦, 前輩未嘗有次韻者. 盖詞賦, 押韻必多, 多則韻強, 韻強則才窘, 才窘則不能騁其步驟, 有牽強拘澁之病. 此古作者所以避而不居也. 今先生有謁箕子祠賦, 「江之水辭」, 「登大平館樓賦」, 居正不揆鄙拙, 輒次其韻. 此實前輩之罪人, 而先生之所不取也. 然居正海外書生, 孤陋寡聞, 先生不鄙夷之. 岂與昌詵, 受賜多矣. 獨於詞賦, 計其工拙, 不詵答以負盛意也哉. 此居正所以敢爲前輩所弗爲, 弗諱其短拙者也. 大雅君子, 必有言矣.”(徐居正, 「次韻祁戶部大平館樓賦」, 『四佳詩集』 권1.)

董越의 자는 常矩, 호는 圭峰이며, 1430년 江西省 寧都에서 董時謙과 溫氏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어 집안 형편이 어려웠으나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는 成化 5년(1469) 進士 第三名에 登第하여 翰林院 修撰에 제수되었다. 그는 성화 11년(1475), 성화 14년(1478) 두 번이나 과거시험의 試官이 되어, 王鏊・梁儲 등 나중에 一代名臣이 된 인재들을 선발했다.[51] 성화 18년(1482)에는 侍讀으로 승진하여 東宮諫官이 되었는데, 太子를 9년 동안 가르쳤으며, 경문에 뛰어난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52]

1487년 弘治帝가 즉위하자 右春坊右庶子로 승진하고 麒麟服을 하사받았고, 이듬해에 홍치제의 등극을 알리는 頒詔正使의 임무를 띠고 조선에 왔다. 弘治 4년(1491년) 동월은 『憲宗實錄』의 編纂에 참여하였고, 그 후에 太常少卿을 거쳐 南工部尙書를 역임하였다. 홍치 15년(1502)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文嬉라는 시호를 받았다. 妻는 溫氏이고 아들 4명, 딸 1명을 두었다.[53]

동월의 저술에 대해 『四庫全書提要』「朝鮮賦」에 "동월의 『文僖集』 42권이 있지만 지금껏 그 책을 보지 못했다. 또 『使東日錄』 한 권이 있지만 그 주고받은 시문이 「조선부」의 典核함에 미치지 못하니, 別本이 따로 전승되는 것은, 이 1권으로 이미 충분하다."[54]라는 언급이 보인다. 『使東日錄』[55]은 동월의 둘째 아들 董天錫이 동월의 작품을 정리해 간행한 것이다. 『使東日錄』에는 동월의 詩 158수, 辭 2편, 文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詩 중에서 「使朝鮮聞命有作」을 비롯한 60편은 동월이 중국 境內에 있었을 때 작성한 것이다. 이렇듯 조선에서 수창한 시문들만이 수록된 『황화집』과 달리, 중국 境內에서 지은 작품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使東日錄』의 장점이라 할 만하다.[56] 또한 이동양은 동월을 위해 쓴 墓誌銘에서 동월의 저술인 『圭峰稿』가 몇 권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57]

동월의 저술로는 문집인 『文僖集』(『圭峰文集』, 『圭峰集』이라고도 한다) 42권과, 그 외에 『圭峰稿』, 『使東日錄』, 「朝鮮賦」가 있는데, 『文僖集』과 『圭峰稿』는 현재 전

---

51) 王鴻鵬, 王凱賢, 張蔭堂, 『中國歷代探花』, 解放軍出版社, 2004년, 136쪽~137쪽 참조.

52) "成化十八年(1482)升侍讀, 値經筵, 爲太子講學九年. 以湛深經術穫好評." 龔篤淸, 『八股文匯編』 上, 岳麓書院, 2014년, 41쪽 참조.

53) 龔運生, 「江西出土明代董越妻溫氏墓誌銘」, 『南方文物』, 1992, 114쪽.

54) "越有『文僖集』四十二卷, 今未見其本. 又別有『使東日錄』一卷, 亦其往返所作詩文, 不及此賦之典核, 別本孤行, 此一卷固已足矣." (『四庫全書提要』「朝鮮賦」)

55) 『使東日錄』은 지금 대만 國立故宮博物館圖書文獻處에 소장되어 있다. 第27頁은 부재한다.

56) 高秋鳳, 「董越及其「朝鮮賦」硏探」, 『중국학연구』 67期, 중국학연구회, 2014.

57) "平生爲文章歌詩, 典雅優裕, 無煩雕琢, 至是尤不廢著述, 積所得爲『圭峰稿』若干卷." (李東陽, 「明故資政大夫南京工部尙書贈太子少保謚文僖公墓誌銘」)

하지 않고, 조선 사행의 경험을 기록한 『使東日錄』과 「朝鮮賦」가 전할 뿐이다.

이 밖에 동월의 저술로 거론되는 것으로 『朝鮮雜志』라는 책이 있다.[58] 『朝鮮雜志』는 『浙江書目』, 『四庫全書總目』 등에 소개되어 있는데 1권이다. 청나라 乾隆 연간 편찬된 浙江巡撫進呈舊鈔本이 중국 國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四庫全書總目』에서는 「조선부」의 自註와 같은 내용인데 好事家가 이를 분리하여 별도로 간행한 것이라 하였다. 『海東繹史』에서도 『사고전서총목』의 내용을 인용하여 『朝鮮雜志』가 「조선부」의 自註와 같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선부」를 초록해 『朝鮮雜志』의 이름으로 발간한 것이지, 동월이 별도로 그러한 저술을 남긴 것은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59]

그런데 明 錢溥가 지었다는 『朝鮮雜志』라는 책이 또 하나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錢溥(1408~1488)는 字가 原溥이고 華亭 출신이며 벼슬은 南京吏部尙書를 지냈다. 『使交錄』, 『秘閣書目』 등의 저술이 있는데 『使交錄』은 安南에 사신으로 갔을 때 唱和한 시를 모은 책이다. 董越의 『朝鮮雜志』가 1권으로 되어 있고 현전하는 반면, 錢溥의 것은 3권이라 하지만 현전하지 않는다. 『海東繹史』, 『靑莊館全書』, 『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 인용되어 있지만 실제 이 책을 본 것은 아니고 『明史』를 인용한 것일 뿐이다. 『海東繹史』와 『林下筆記』에서 淸 鍾音의 『浙江書目』을 인용하여, 華察이 조선에 왔을 때 蘇世讓이 『朝鮮志』를 편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책과 다른 것이다.[60]

이어서 동월의 교유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동월과 가까이 지낸 문인으로는 李東陽(1447~1516), 程敏政(1446~1499), 邱濬(1421~1495), 吳寬(1435~1504) 등을 확인할 수 있다.

李東陽은 자가 賓之이고, 호가 西涯다. 茶陵詩派의 핵심 인물로 文學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의 『大明會典』이 조선에서 널리 읽혔고 그의 복고주의 문학이 조선 문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동양이 동월의 『董文僖公集』을 위해 쓴 서문에서 "나와 공이 同官이 된 지 오래 되었다. 서로 뜻이 맞아 조석으로 창화하였고 서로 장난을 치기까지 하였는데 반드시 글을 가지고 하였다.[61]"라고 하였다. 또 동월의 시문을 두고 "淸峭하며 속세의 때를 벗었다. 荒誕한 글을 쓰지 않는다."[62]고 칭찬하였다. 그리고 동월을 위해 祭文 「공부상서 문희공 동월을 유제하며(諭祭工部尙書文

58) 신태영, 「明使 董越의 「조선부」에 나타난 朝鮮認識」, 『한문학보』10, 우리한문학회, 2004, 112쪽.

59) "以越所撰「조선부」校之, 皆賦中越所自註, 蓋好事者抄出別行, 僞立名目, 非越又有此書也." (『四庫全書提要』卷七十一)

60) 이종묵 외, 『조선에 전해진 중국 문헌 해제』(서울대출판부, 2020, 간행예정)

61) "予與公同官久, 雅相契厚, 朝夕倡和, 至相爲諧謔, 必以文." (李東陽, 「董文僖公集序」, 『李東陽集・續集』)

62) "公所爲詩文, 大抵淸峭, 脫去塵俗, 不爲荒誕之語." (위 책.)

僖董越文)」를 지어 동월의 一生을 높이 평가했다.

그 외에 이동양이 쓴 詩 중에도 동월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육순을 맞는 동규봉을 축수하며(壽董圭峯六十, 二首)」[63], 「남경에 돌아가는 예부상서 동상규를 전송하며(送董禮部尚矩還南京)」[64], 「동상규가 남기에서 돌아와 성서의 고씨 원림에서 묵으니, 방문했다 돌아와 염백의 시에 차운하다(尚矩還自南畿, 宿城西高氏園, 出訪而還, 次廉伯韻, 一首)」[65], 「재실에서 저녁에 편수 동월이 금귤과 창포전을 내어 객들을 먹이기에, 작년 지은 시의 운으로 시를 두 수 쓴다.(齋夕尚矩編修, 出金橘菖蒲煎餉客疊前歲韻二首」[66], 「밤에 재실에서 편수 동월이 금귤과 창포전을 내어놓아 대접을 받았기에 차운해 시 두 수를 지었다.(齋夜董尚矩編修, 出金橘菖蒲煎見餉和韵二首)」[67], 「동상구가 새 그림을 가지고 시를 청했는데 우리 집에 둔 지 거의 한 달 동안 되었다. 그 사이 내가 소지한 일본 부채를 빌려갔는데 이 둘을 서로 바꾸려는 마음인 듯하다. 얼마 후 부채를 돌려받았는데 가짜 부채였다. 내가 부채를 잃었지만 그림을 붙잡고 있을 수 없으니 그 계교가 매우 졸렬하다. 이 때문에 소동파와 왕진경이 仇池石을 韓幹[68]이 그린 「목마도」로 바꾼 일과 비슷하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 시 한 수에 차운해 그림에 써서 함께 돌려준다.(董尚矩以畫禽索詩, 留予家閱月, 間假予所持倭扇, 意若欲相易者, 既而返扇索畫則贋扇也. 予既失扇, 又不敢留畫, 其計甚拙. 因憶坡老與王晉卿以仇池石易韓幹馬事頗相類, 竊步其韻一篇題于軸而并歸之)」[69] 등이 그러하다. 동월과 이동양이 서로 편하게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각별한 사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程敏政(1445~1499)은 명나라 徽州府 休寧 사람이다. 자는 克勤이고, 程信의 아들이다. 10살에 이미 한림원에 초청되어 책을 읽을 정도로 神童이었다고 한다. 成化 2년(1466) 진사에 급제하여 編修에 임명되었다. 左諭德을 지냈고, 학문이 해박한 것으로 저명해 직접 황태자를 가르치기도 했다. 翰林 가운데 학문에 해박하기로는 敏政이라 일컬어졌으며, 문장이 고아하기로는 李東陽이라고 칭해져 각자 당시의 으뜸이 되었다. 弘治 연간에 禮部右侍郎 겸 侍讀學士에 올랐다. 회시를 주관하면서 唐寅의 鄕試卷을 보고 격찬했다. 1499년 회시를 주관했는데, 시제가 외부로 유출되어 탄핵을 받고 당인 등과 함께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출옥한 뒤 억지로 致仕하고, 오래지 않아 종기가 나서 죽었다. 시문으로 유명했는데, 문집으로 『篁墩集』 93권과

63) 李東陽, 『懷麓堂集』, 卷十七, 詩稿十七.

64) 위의 책, 卷五十五, 詩後稿五.

65) 위의 책, 卷十七, 詩稿十七.

66) 위의 책, 卷十一, 詩稿十一.

67) 위의 책, 卷十一, 詩稿十一.

68) 韓幹(706~783), 唐代 유명한 畫家, 작품은 『牧馬圖』, 『洗馬圖』, 『猿馬圖』 등이 있다.

69) 위의 책, 卷六, 詩稿六.

『宋遺民錄』 15권, 『咏詩集』이 있고, 그밖에 『明文衡』과 『新安文獻志』 등을 편찬했다.[70] 특히 『道一編』이 조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程敏政의 『篁墩集』에 「시독 동상구가 조선에 사행하는 것을 송별하며(送董尚矩侍讀使朝鮮)」[71]가 보인다. 1488년 동월이 조선에 갈 때 송별하며 쓴 시이다. 이 시에서 정민정은 동월에 대해 家學이 바르고 황제의 寵愛를 받았다고 칭송하며, 그가 순조롭게 사행을 마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또한 동월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편수 동상구의 부모 만사(輓董尚矩編修父母)」라는 제목으로 된 弔詩를 써 주었다. 그리고 「학사 동월이 남경예부시랑에 부임함을 송별하며(送董學士尚矩赴南京禮部侍郎)」, 「청하에 느낌이 있어서 시독 동월에게 함께 답하다(清河有感并答尚矩侍讀)」, 「부모님을 뵈러 영도에 가는 편수 동상구를 보내며(送董尚矩編修省親還寧都)」, 「시를 줄 때 시독 동상구와 같이 자면서(相贈時與董[72]尚矩侍讀同宿)」 등의 시를 통해 볼 때 동월이 程敏政과 친근한 사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으로 사행을 떠나는 동월을 송별하는 그 자리에는 邱濬도 있었다. 邱濬은 자가 仲深, 시호는 文莊, 호는 深庵, 玉峰, 瓊山, 海山老人이다. 구준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偏母 이씨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책읽기를 좋아했으나 집안이 가난해 책을 구하기 어려웠다. 1444년에 광동성의 향시에 합격해 1447년 국자감에 입학했다. 그리고 1454년 과거에 급제해 진사가 되었다. 곧바로 한림원의 庶吉士로 뽑혀 국가에서 편찬한 지리지인 『환우통지』의 편수에 참여했다. 그 뒤 한림원 시강이 되어 『영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했고, 한림원 학사, 국자감 祭酒, 예부우시랑 등을 지내며 나라에서 치르는 제사들을 주관하였다.[73] 그가 편찬한 『家禮儀節』과 『大學衍義補』는 여러 차례 조선에서 다시 간행되었고 『五倫全備記』가 될 정도로 영향을 끼쳤다. 邱濬의 문집 『瓊臺會稿』에 「조선에 반조사로 가는 서자 동상구를 송별하며(送董尚矩庶子頒詔朝鮮)」[74]가 실려 있는데 "천자가 나와 새 연호를 세우니, 다시 고황제의 등극한 해가 되었구나.(天王出震紀新元, 又值高皇建極年.)"라 하였다. 고황제(홍무제)가 명나라를 세운 1368년으로부터 두 周甲 되는

---

70) 魏涵民, 『馬鞍山古詩詞選注』, 合肥工業大學出版社, 2015, 189쪽.

71) "持節下丹霄, 嚴程擬度遼. 寵分新帝命, 爵重舊宮僚. 別醞頻浮蟻, 行裝尚擁貂. 董生家學正, 箕子國封遥. 候館催晨策, 周廬警夜刁. 玄蒐荒隱樹, 鴨綠暗通潮. 譯史傳華語, 蕃王接使軺. 屯雲来羽衛, 匝地奏鐃箾. 損益周儀注, 承宣漢詔條. 氷壺知節操, 海鶴見丰標. 客路春回馭, 宸居斗建杓. 臨邊詢戰法, 觀俗聽風謠. 史案需鉛槧, 吟囊富籥韶. 皇華莫輕續, 留取壯天朝." (程敏政, 「送董尚矩侍讀使朝鮮」, 『篁墩集』)

72) 按: 원문이 "黃"字로 되어 있는데 "董"의 오자로 추정한다.

73) 黃克, 『中國歷代名臣言行錄 先秦-晚清 文白對照』 第3卷, 中國城市出版社, 1998, 2339쪽.

74) "天王出震紀新元, 又值高皇建極年. 詔使遠從天上下, 綸音遙向海東宣. 四方專對詩三百, 兩月經行路五千. 好為天朝全大體, 篇章珍重莫輕傳." (邱濬, 「送董尚矩庶子頒詔朝鮮」, 『瓊臺會稿』)

해(1488)에 새 황제의 등극을 알리기 위하여 조선으로 가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사신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창화할 때 함부로 시문을 쓰지 말고 진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부탁했다.[75] 이밖에 「동상구의 귀성을 송별하여(送董尚矩歸省)」[76]라는 시에서는 귀성길을 떠나는 동월을 보내면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吳寬의 자는 原博이고 호는 匏庵・匏庵先生・玉亭主 등이며 長州(지금의 江蘇省 蘇州市) 출신이다. 1472년에 壬辰科 진사 시험에서 장원 급제했다. 이후 한림원 수찬, 시강동궁을 지냈다. 홍치제가 즉위한 후 좌서자를 거쳐 少詹事, 侍讀學士, 南京禮部尚書 등을 역임했다. 八股文을 좋아하지 않아 문장이 소박하여 꾸밈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77] 그 또한 「동상구의 조선 출사를 송별하며(送董尚矩使朝鮮)」[78]라는 제목으로 송별시를 지었는데, 동월이 출사하는 사유를 밝히고 사행을 무사히 마칠 것을 기원하였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동월은 평소 李東陽, 程敏政, 邱濬, 吳寬을 자주 만나 가까이 지냈고, 동월이 조선으로 출사했을 때 程敏政, 邱濬, 吳寬이 각각 송별시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李東陽, 程敏政, 邱濬, 吳寬 네 사람 모두 董越과 마찬가지로 한림원 출신 문신관료라는 점도 주목된다. 그리고 程敏政과 吳寬은 茶陵詩派의 詩文贈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翰林院 同官이었다.[79] 동월도 이 모임에 참여한 바 있었다.[80] 이동양이 동월의 시문을 두고 “淸峭하며 속세의 때를 벗었다. 荒誕한 글을 쓰지 않는다.”[81]라고 했던 평가가 바로 茶陵詩派의 특징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동월이 한 번 茶陵詩派의 모임 자리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茶陵詩派의 一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동월이 항상 茶陵詩派의 중심 인물과 어울려 溺詩하면서 茶陵詩派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

75) “好為天朝全大體, 篇章珍重莫輕傳.”(邱濬, 「送董尚矩庶子頒詔朝鮮」, 『瓊臺會稿』 卷五)

76) “楚尾迢迢不計程, 却因慈母重行行. 乆爲朝士多鄉夢, 始信江神也世情. 錦敕有光天日爛, 布帆無恙水波平. 江都父老如知得, 莫向津頭候董生.”(邱濬, 「送董尚矩歸省」, 『瓊臺會稿』)

77) 龔篤淸, 『八股文匯編』, 岳麓書社, 2014, 49~51쪽.

78) “聖主新登寶位高, 儒臣寍肯歎賢勞. 天朝雨露隨黃紙, 海國雲霞映錦袍, 周室受封箕子遠, 漢廷陳策董生豪. 史編有待歸無緩, 憑仗春風送節旄.”

79) 黃霖, 梅新林, 胡明, 『中國文學古今演變硏究論集四編』下, 上海古籍出版社, 2015, 731~736쪽 참조.

80) “治中南京吏部尙書倪岳, 吏部侍郎楊守址, 戶部侍郎鄭紀, 禮部侍郎董越, 祭酒劉震, 學士馬廷用, 皆發身翰林者. 相與醵飮, 倡爲瀛洲雅會, 會必序齒.”(黃佐, 『翰林記』 卷二, 中華書局, 1985, 352쪽.)

81) “公所爲詩文, 大抵淸峭, 脫去塵俗, 不爲荒誕之語.”(李東陽, 「董文僖公集序」, 『李東陽集・續集』)

2) 조선 사행과 조선부

조선후기 李德懋(1741~1793)의 기록에 따르면 동월은 풍채가 엄숙하고 진중하여 언동에 준칙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여 남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잊지 않았으며, 욕심이 적었고 검소를 앞세운 사람이어서, 봉록이 들어오면 언제나 宗族과 지인들 가운데 가난한 이를 도와주었다고 한다.[82] 조선에 출사할 때 조선 遠接使 許琮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정사(즉 동월)의 성품은 온화하고 두터우며, 사람과 만나면 공손하고 삼가며 예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며, 詩에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았다.[83]

동월은 1488년 조선에 弘治帝의 등극을 알리는 頒詔正使로 임명되었다. 성종 19년(1488) 윤정월 12일에서 19일 사이에 동월은 북경을 출발하여 副使 王敞 이하 14인을 거느리고 2월 25일에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들어왔다. 그리고 평양을 거쳐 3월 13일에 한양에 도착하였고 慕華館에서 詔書를 반포한 후 3월 18일 전별연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다시 북경을 향해 출발하여 5월에 북경에 도착하였다.

조선의 사신이 중국으로 갈 때 일정한 사행길이 있는 것처럼 중국 사신들도 조선으로 올 때 정해진 사행길이 있어 그 길을 따라 왕래했다. 그러므로 사신들은 대개 거쳐온 客館과 자연 경관, 문화 유적 등을 글의 제재로 삼았다. 따라서 사신들이 지은 시문을 통해 사행단의 경로와 行程을 엿볼 수 있으며,[84] 詩의 제목 또는 詩序를 통해 동월 일행의 사행 여정을 재구할 수 있다. 원접사 許琮이 압록강에서 동월 등 사신단과 이별하며 「내가 2월 21일 압록강 강가에서 처음 절을 하였는데 홀연 한 달이 지나갔다. 이제 압록강에 돌아와 이별에 임하니 슬픔과 회한을 이길 수 없다. 삼가 근체 율시 세 수를 지어 경앙하는 정을 가탁한다.(琮二月廿一日初拜鴨綠江上, 奄忽之間已攸一月矣. 今還到江上, 臨別不勝悵恨. 謹錄奉近體各三律, 以寄景仰之情)」라는 제목의 시를 썼다. 허종이 2월 21일에 압록강에서 동월 일행을 처음 만났음을 알 수 있다.

> 「삼월 초하루 안흥관에 있는데 비가 내렸다. 내가 출발을 재촉하니, 이조판서 허종이 역관을 시켜 심히 만류하면서, 거듭 "하늘도 좋은 비를 내려 아름다운 손을 머물게 하네"라는 시를 외웠다. 이에 육언시 7수를 지어 한 번 웃을 거리로 삼는다. 중서군[붓을 의인한 말]이 늙고 대머리가 되어 공을 아뢰지 못함이 심한데, 더구나 내가 빨리 가느라 예쁜

82) "越風采凝重, 言動有則, 樂道人之善, 不輕許可, 恥衒能以形人短而不忘規箴. 寡嗜欲, 敦儉素, 祿入恒以恤宗族及知交之貧者. 著圭峯文集. 使東日錄. 讀此, 可知圭峯之爲賢士大夫."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57, 「董圭峯」,)

83) 『성종실록』 성종 19년(1488) 1월 28일 참고.

84) 『황화집』의 弘治元年戊申頒勅諭使 卷에서 당시 조선 사행 과정에서 동월, 부사 왕창, 그리고 원접사 허종 세 사람이 쓴 詩文 및 당시 사행에 관한 시문을 수록하였다.

걸음새라고는 없음에, 두 뛰어난 분이 오셨으니 경수와 위수처럼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로써 뜻에 답하니, 두 분은 무시 말라. 동월은 왕동사 선생에게 머리를 조아린다.(三月朔, 安興館遇雨. 予將促行, 許吏曹命譯者苦留, 且屢有"天敎好雨留佳客"之誦. 因摘爲六言七首, 用博一粲, 中書君已老而禿, 甚不奏功, 況値我疾行, 殊無好步, 二妙之來, 益見涇渭. 聊以答意, 兩不外也. 越頓首王同事先生.)」[85]

이를 통해 동월이 1488년 음력 3월 1일 안주에 있는 安興館에 도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시 「초이레 황주를 출발하여 가는 도중에 비를 만나다(初七日出黃州道上遇雨)」[86]를 보면 동월이 3월 7일에 이미 황주에서 출발했음이 확인된다. 동월이 쓴 다른 시의 제목 「초여드렛날 용천관에서 동쪽으로 가니 물가에 있는 석벽이 보였는데 마치 병풍 모양과 같았다.(初八日自龍泉館東行, 見水濱一石壁, 儼然如屛狀)」[87]를 통해 3월 8일에 황해도 瑞興都護府에 설치된 객사 龍泉館을 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월과 함께 조선에 사신단의 일원으로 왔던 副使 王敞이 쓴 시 「안성관에서 점심을 먹는데, 예조판서 허종이 꿩으로 만든 육포를 만들었다. 꿩은 예조의 창골이라는 새매로 잡은 것이다. 이에 '창골이 꿩을 잡았다' 한 편을 지어 보여주었다. 삼월 초아흐레.(安城館午飯, 許吏曹獻雉作包脩. 雉蓋吏曹蒼鶻所獲者, 因作「鶻邀雉」一章, 以旌之, 三月初九日)」[88]를 보면 3월 9일 안성관에서 점심을 먹을 때 허종이 창골이라는 새매를 날려 잡은 꿩으로 육포 만들어 올리자, 왕창이 「鶻邀雉」라는 글을 지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월이 쓴 시 「보여주신 가작 '창골이 꿩을 잡았다'에 차운하여 사간 왕공 동사에게 받들어 답한다. 삼월 십일 안성관에서 대충 기록한다.(承示「鶻邀雉」佳作, 用次奉答司諫王公同事, 三月十日在安城館漫錄)」[89]를 보면 동월이 음력 3월 10일에 安城館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안성관은 황해도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平山에 있다. 이것으로 3월 9일과 10일에 왕창과 동월의 使行團이 이미 平山에 도착했음이 확인된다. 「삼월 십일일에 임진강을 건너다 비를 만나다(三月十一日, 渡臨津江遇雨)」를 보면 동월이 3월 11일에 임진강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동월이 쓴 시 「삼월 십사일 태평루를 멀리 바라보고 왕황문의 시에 차운하다(三月十四日, 眺太平樓, 次王黃門韻)」[90]와 「삼월 보름에 성균관 대성전에 참배하다(三月望日, 成均館謁宣聖廟)」[91], 그리고 「삼월 보름에 한강

85) 趙季(輯校), 『足本皇華集』, 鳳凰出版社, 2013, 347쪽 참조.

86) 위의 책, 362쪽 참조.

87) 위의 책, 367쪽 참조.

88) 위의 책, 368쪽 참조.

89) 위의 책, 369쪽 참조.

90) 위의 책, 382쪽 참조.

91) 위의 책, 374쪽 참조.

루에 오르다(三月望日登漢江樓)」[92]를 보면 3월 보름쯤에 동월 일행이 이미 漢陽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동월은 碧蹄館에 묵으며 「삼월 십팔일 벽제관에서 자다(三月十八日宿碧蹄館)」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썼는데. 이 시의 제목을 통해 그가 3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벽제역에 설치된 객관 碧蹄館에 있었던 사실을 밝힐 수 있다.

> 「봉산루에 다시 오르다. 내가 처음 봉산에 왔을 때, 황문 왕창 공과 같이 이 누각에 올랐다. 입으로 절구 한 수를 읊어 이조판서 허종에 주었는데 대충 지은 것이라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 또 보름이 지나 내가 조선에서 돌아오는 길에 흥이 나 다시 올라보니 내 시가 이미 나무에 새겨져 있었다. 지난 날 일을 생각하니 마치 꿈만 같다. 이에 다시 이 작품을 짓지만 나무에 재앙을 끼치는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 같은 해 삼월 이십사일.」[93]

위에 인용한 시의 제목을 보면, 동월이 한양으로 가던 중 처음 봉산에 이르렀을 때, 鳳山樓에 올라 경치를 관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 북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鳳山樓에 오른 것은 보름 뒤의 일이었다. 鳳山은 황해도 봉산군 沙里院에서 동쪽 약 6km 지점에 있는 옛 읍이다. 그러므로 삼월 이십사일에 동월의 위치는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 근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월이 쓴 「遊蔥秀山記」를 보면 "내가 이 산의 이름을 물으니 '총수'라고 대답한다. (중략) 그 때가 삼월 이십이일이었다. (중략) 서쪽에 몇 봉우리 푸른 산의 뾰족한 모양이 마치 파처럼 생겼다. 이에 예조에게 '어찌하여 聰은 蔥으로 바꾸지 않은 것인가?'라고 했다."[94]라는 구절이 있다. 동월이 蔥秀山을 유람했을 때 蔥秀山의 봉우리가 푸르고 싱싱한 모습이 파와 같아서 산의 이름을 '聰秀山'에서 '蔥秀山'으로 바꾸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때는 3월 22일이었다. 蔥秀山은 황해북도 평산군 평산읍 소재지에 있는 산이다. 상기한 자료를 통해 동월이 3월 22일에 황해북도 평산군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월 이십팔일 조선에서 돌아올 때 박천강을 건너고 다시 대낮에 대정강에 배를 띄웠는데, 기뻐서 시를 지었다.(三月二十八日, 自東國歸, 旣渡博川, 薄午又泛大定, 喜而有作)」는 동월이 3월 28일 조선에서 북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천을 지나 大定江 강물 위에 배를 띄우며 기분이 좋아서 지은 시이다. 大定江은 大寧江의 다른

---

92) 위의 책, 375쪽 참조.

93) "「重登鳳山樓. 予初道鳳山時, 當興黃門王公一登斯樓, 口占一絶, 遺許吏曹, 漫不復記憶. 又半月, 予自東國歸, 乘興再登, 則予詩已加災於木矣. 念往事恍然如夢, 因再賦此. 庶不蹈前轍云. 是歲之三月二十四日)」", 위의 책, 402쪽 참조.

94) "予因問玆山曷名, 答曰: '聰秀'(...)時三月之二十二日也(...)其西數峰蒼翠, 削出如靑蔥. 因謂吏曹曰: '胡不易聰爲蔥乎?" 위의 책, 429~430쪽 참조.

이름이다. 大寧江은 바로 平安北道 博川郡 옆으로 흐르는 강이다. 3월 28일에 동월은 平安北道 博川郡에 있었던 것이다. 동월이 허종에게 지어준 「尙友堂詩序」에서 "3월 30일, 선천군의 임반관에 숙박하고 이튿날 아침 출발하려고 했는데[95]"라는 구절을 통해, 3월 30일 동월의 위치는 평안북도 선천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월이 쓴 「題申汎翁文集後」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96] 4월 4일 동월이 義州의 義順館에 머물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허종에게 보낸 「寄許吏曹」를 보면[97] 董越과 王敞이 4월 7일 오후에 遼陽에 도착한 뒤, 4월 11일까지 계속 遼陽에 머물렀던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재구한 사행단 여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董越 朝鮮使行 行程表」와 같다. 『황화집』에 실린 正使 董越과 副使 王敞의 시문, 그리고 館伴使 許琮의 시문에 나타난 날짜・장소・내용 등 정보를 수집하여 표로 정리해보면, 董越의 사행 일정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표 1] 董越 朝鮮使行 行程表

시의 제목	작자	날짜	위치
「琮二月卄一日初拜鴨綠江上, 奄忽之間已攸一月矣. 今還到江上, 臨別不勝悵恨. 謹錄奉近體各三律, 以寄景仰之情」	許琮	二月卄一日	鴨綠江
「三月朔, 安興館遇雨, 予將促行, 許吏曹命譯者苦留, 且屢有"天敎好雨留佳客"之誦, 因摘爲六言七首, 用博一粲, 中書君已老而禿, 甚不奏功. 況値我疾行, 殊無好步. 二妙之來, 益見涇渭. 聊以答意, 兩不外也. 越頓首王同事先生」	董越	三月初一	安州 安興館
「初七日出黃州道上遇雨」	董越	三月初七	黃州
「初八日自龍泉館東行, 見水濱一石壁, 儼然如屛狀」	董越	三月初八	瑞興都護府
「安城館午飯, 許吏曹獻雉作包脩. 雉蓋吏曹蒼鶻所獲者, 因作『鶻邀雉』一章, 以旌之, 三月初九日」	王敞	三月初九	平山 安城館

95) "三月之晦, 宿宣川郡之林畔館, 明發戒行, 乃以一刺來曰(...)" 위의 책, 432쪽 참조.

96) "時弘治元年 歲在戊申 四月四日, 賜進士及第 欽差正使 右春坊庶子 兼 翰林院侍講 經筵官同修國史章貢 董越 題于義州之義順館", 위의 책, 433쪽 참조.

97) "初七日午後抵遼陽..... 四月十一日在遼陽, 越,敞同致意吏曹許公足下." 위의 책, 43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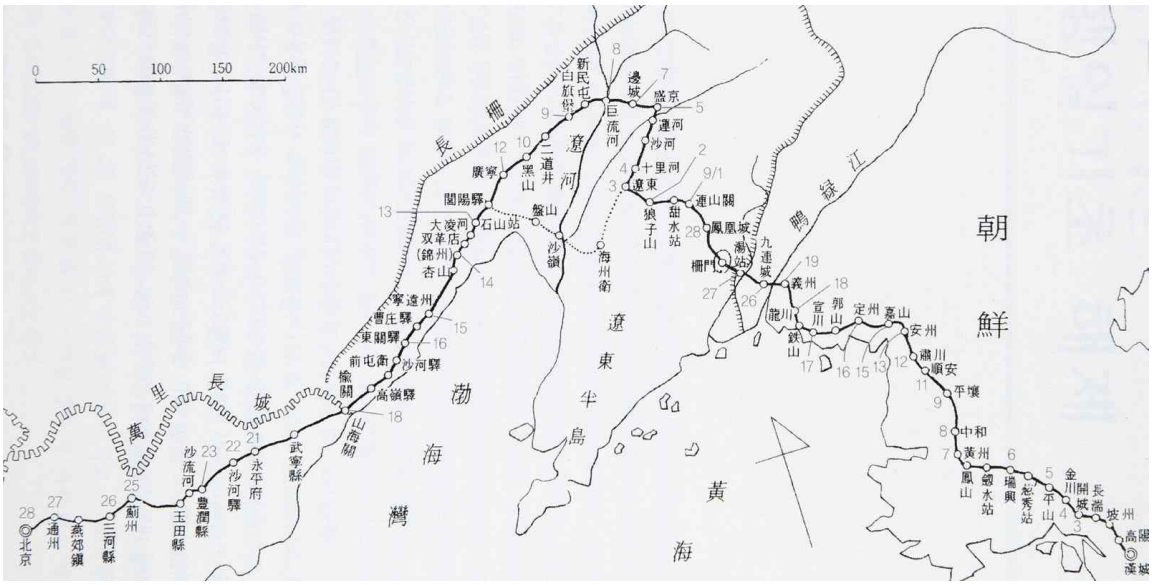
「承示『鶻邀雉』佳作, 用次奉答司諫王公同事, 三月十日在安城館漫錄」	董越	三月十日	平山 安城館
「三月十一日渡臨津江遇雨」	董越	三月十一日	臨津江
「三月十四日眺大平樓次王黃門韻」	董越	三月十四日	漢陽
「三月望日成均館謁宣聖廟」	董越	三月十五日	漢陽
「三月望日登漢江樓」	董越	三月十五日	漢陽
「三月十八日宿碧蹄館」	董越	三月十八日	高陽 碧蹄館
「遊蔥秀山記」	董越	三月二十二日	黃海北道 平山郡
「重登鳳山樓」	董越	三月二十四日	黃海道 鳳山
「尙友堂詩序」	董越	三月三十一日	平安北道 宣川郡
「題申汎翁文集後」	董越	四月四日	義州
「寄許吏曹」	王敞, 董越	四月初七日, 初八, 初九, 十日, 十一日	中國 遼陽

한양에서 북경까지 이어진 조선 사신의 燕行 노정은 명나라 사신이 조선으로 오는 노정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국역연행일기초』[98]에 실려 있는 연행路程圖를 참고해 동월의 사행노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1」을 참고하면 압록강을 건넌 후의 노정을 재구해볼 수 있는데, 동월이 이끄는 사행단은 압록강을 건넌 다음 바로 의주에서 출발하여 義州 → 龍川 → 鐵山 → 宣川 → 郭山 → 定州 → 博川 → 安州 → 肅川 → 順安 → 平壤의 노선으로 平壤까지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동월은 조선에 다녀간 수많은 명나라 문신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이름을 떨친 인물이었다. 당시 동월의 직함은 "右春坊右庶子 兼翰林院侍講 董越"이었는데, 春坊이라는 직함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명나라 태자의 스승이었으며, 58세의 고령으로 환갑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당상관의 높은 품계를 지니고 있었으니, 실로 조선에 내왕한 사신 중에서 가장 나이도 많고 품계도 높았으며 인품도 仁厚했던 경우에 속했다. 이 정도 되는 인물을 사신으로 삼아 파견했다는 사실은, 당시 명나라 조정이 조선 사행에 부여했던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따라 董越을 접대하기 위해 조

98) 유득일 지음, 임재완 옮김, 『연행일기초』, 국립중앙도서관, 2010, 62쪽.

선에서도 품계가 높은 吏曹判書 허종을 원접사로 임명하였다.



[그림 1] 《국역연행일기초》에 실려 있는 연행노정도. 한양에서 북경까지 유득일의 연행노정이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다. (유득일 지음, 임재완 옮김, 『국역연행일기초』, 국립중앙도서관, 2010, 62쪽.)

예겸 때부터 명의 사신이 귀국할 때 조선에서 간행된 『황화집』을 기념으로 가져가는 관행이 생겼고, 이후 조선에서는 역대의 『황화집』이 합본되어 다시 간행되기도 했다. 지금 전하는 『황화집』은 명나라의 사신이 조선에 사행을 와서 지은 시문 그리고 接伴使와 서로 주고받은 시문을 집대성한 책이다. 그 중 권10, 권11, 권12는 弘治 원년(1488) 조선사행에서 명나라 사신과 조선 문인들이 수창한 시문을 모아놓은 것인데, 정사 동월, 부사 왕창, 원접사 허종의 시문 각 수십 편이 있고, 평안도관찰사 成俔이 차운한 시 네 수가 있다. 다만 허종 등 일부 문인의 작품은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준 것이다. 許筠(1569~1618)의 문집 『惺所覆瓿藁』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원접사 허종이 동월과 수창한 시는 모두 從事官으로 수행한 申從濩가 대신 지어준 것이었다고 한다.

> 詔使의 賓對는 반드시 당대에서 문망이 높은 자를 뽑았다. 朴元亨과 許琮은 모두 의표와 禮貌로 중국인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박원형이 芳洲(명 나라 兪泰의 호)와 화답한 시와 허종이 圭峯(董越의 호)과 화답한 시는 모두 종사관으로 수행한 李三灘(李承召)과 申三魁(申從濩)가 대신 지은 것이었다."[99]

99) "儐待詔使. 必擇一時文望. 而朴元亨, 許琮. 俱以儀表禮容. 見奬於華人. 朴之酬芳洲, 許之答圭峯. 皆從事官李三灘, 申三魁之代述也." (許筠, 『惺所覆瓿藁』,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참조.)

申從濩가 지은 시와 『황화집』에 수록된 허종의 시문을 비교하면 내용이 똑같고 제목만 다른 시가 있다. 『동문선』에 수록된 申從濩의 칠언율시 「정사 동공이 대동강에 배를 띄우고 쓴 시에 차운하다(次正使董公泛大同江韻)」[100]는 申從濩가 동월의 「重泛大同江」에 차운한 작품인데 『황화집』에 수록된 허종의 「重泛大同江次韻」[101]과 비교하면 시의 구절이 똑같고 제목만 다르다. 『동문선』에 수록된 申從濩의 칠언율시 「送別副使王公」[102]도 『황화집』에 수록된 허종의 「右送別副使大人」[103]과 비교해보면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이 동일하다. 원접사 허종이 동월과 화답한 시는 모두 從事官으로 수행한 신종호가 대신 지은 것이었다고 한 허균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이로부터 알 수 있다. 조선에서는 관작이 높고 나이도 적당한 허종을 원접사로 삼아 동월을 응대케 하였으나, 시문수창의 상황에서는 文才가 빼어난 인물들을 종사관으로 삼아 원접사를 보좌하며 시를 代筆하도록 했던 것이다.

「조선부」는 『황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문 중의 하나다. 앞서 언급했듯이 명나라에서 파견한 사신들이나 조선 측에서 정선한 館伴使 모두 뛰어난 文才를 갖춘 당대 최고의 문신이었다. 그들 사이의 詩文酬唱은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진 솜씨 겨루기가 아니라, 兩國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문인들이 공동문어인 한문을 매개로 벌이는 문명의 대결이었다. 이들은 각기 자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文字를 武器로 삼아 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결의 결과물로 탄생한 수많은 시문들은, 겉보기에 단순한 사행 노정의 기록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사실 그 속에는 자국의 문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고투가 담겨있었던 셈이다.

동월은 조선 사행을 위해 상당한 사전 준비를 했다. 예를 들어 조선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기 위해 동월은 명나라에 온 조선 사신을 만나본 적이 있다. 성종18년(1487년) 정월에 조선에서 홍치제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 登極使 盧思愼, 副使 柳子光, 正朝使 李崇元을 파견하였다. 이들이 북경에 머물 때 통사 朴孝順이 禮部에 이르러 翰林 員外郎 馬泰를 만났다. 마태는 반조정사로 差任되어 곧 조선에 갈 동월이 접견을 원한다는 것을 박효순에게 알려주었다. 조선의 사신 일행은 통사 박효순을 보내어 동월을 찾아가게 하였는데, 동월은 조선 왕의 나이와 북경에서 조선까

100) “平蕪淡淡接煙津, 鏡面澄澄絶點塵. 酒影暖涵金沆瀣, 山光晴浸玉嶙峋. 四千里路將歸客, 九十韶光欲暮春. 別後相思眇空濶, 天涯莫惜寄書頻.”(『東文選』 속동문선 제8권 칠언율시.)

101) “平蕪淡淡接煙津, 鏡面澄澄絶點塵. 酒影暖涵金沆瀣, 山光晴浸玉嶙峋. 四千里路將歸客, 九十韶光欲暮春. 別後相思眇空濶, 天涯莫惜寄書頻.”(趙季 [輯校], 『足本皇華集』, 鳳凰出版社, 2013, 403쪽.)

102) “早向青霄穩著鞭, 一時才器絶無前. 草成方朔三千牘, 書破羲之九萬牋. 龍氣衝星雷煥劒, 虹光貫月米家船. 今年過海詩成集, 留與人間萬口傳.”(『東文選』 속동문선 제8권 칠언율시.)

103) “早向青霄穩著鞭, 一時才器絶無前. 草成方朔三千牘, 書破羲之九萬牋. 龍氣衝星雷煥劒, 虹光貫月米家船. 今年過海詩成集, 留與人間萬口傳.”(趙季 [輯校], 위 책, 415~416쪽.)

지의 遠近을 물었다. 또 站에 준비되어 있는 말은 좋은지, 탈 가마는 제대로 있는지 등을 물었다.[104]

조선에 머무르는 동안 동월은 날마다 둘러보고 물어보아 얻은 것을 밤이 되면 그때그때 쪽지에 적어 상자에 넣어 두었다.[105] 동월이 조선에 가기 전에 여기저기 咨詢한 것과, 조선에 사행하는 동안 꼼꼼하게 보고들은 바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朝鮮賦」 창작이 절대 한순간의 기억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계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글에서 쓸 만한 내용과 중요한 용어를 미리 작은 쪽지에 초고로 적어 놓고, 나중에 중국에 돌아간 후에 자구를 꼼꼼히 다듬어 창작했던 것이다.

동월이 「朝鮮賦」를 지은 것은 한편으론 외교관으로서 외국 출장의 '사행 보고서'를 쓰는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기도 했다. 다른 한편, 당시 유행하던 賦라는 장르를 택해 문장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文才를 과시하고 명나라가 文學强國인 것을 알리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명나라의 입장에서 조선은 영토 분쟁이 많은 요동 지역과 인접한 이웃나라로 인식되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朝鮮賦」에서 조선의 산천·지리·도로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조선의 지리 형세를 미리 파악해 둠으로써 앞으로 있을지 모를 조선과의 군사적 긴장에 대비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이후 조선을 공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조선의 지형에 대한 이해는 군사적으로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부」는 1490년에 중국 강서지역의 泰和縣에서 처음 간행된 이래로 조선을 거쳐 일본으로 넘어가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중국의 경우 1490년, 1521년에 강석지역을 중심으로 간행되어 유통되다가 16세기 중반에 이르면 북경과 광녕지역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16세기 전반에 『國朝典故』가 출현한 이래로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는 총서의 일부로서 읽혀졌다. 조선에서 1490년 중국본이 유입되자 활자본을 간인한 이래로 16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금속활자본과 관판목판본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간행되었고 1530년부터 지리총서에 편입되어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중국과 조선에서 15~16세기에 단독 서적으로 여러 차례 간행되고 16세기부터 총서

104) "登極使右議政盧思愼, 副使武靈君柳子光, 正朝使延原君 李崇元等還至遼東馳啓曰: "臣等在北京正月十九日, 通事朴孝順到禮部, 適見翰林院外郎馬泰, 曰: '我是侍讀董越陪吏. 今以頒詔正使差往汝國, 欲見汝國人, 審問道路遠近. 汝宜往見.' 翌日臣等令孝順往見語之曰: '本國宰相以賀登極入朝, 明日當還. 聞大人奉詔使本國, 敢問起程日時.' 董越答曰: '閏正月十一日, 十九日中發程. 但遼塞寒甚, 欲待天氣向緩發行.' 仍問殿下春秋幾何? 孝順答曰: '吾是微臣, 未敢知道.' 且問道路遠近, 答曰: '自遼東至義州, 八站; 自義州至王城, 十八站.' 且問: '汝國站馬良否? 轎子有無?' 答曰: '本國站路一如中朝, 乘馬乘轎, 惟大人所便.' 董越曰: '我是今皇帝在東宮時侍講. 前此爾國使臣, 皆以行人司員差之, 未有堂上員差往者. 今朝廷以爾國事大至誠, 特以如吾年老之人充使, 此意傳說宰相.' 有稱編修官者在坐, 曰: '主人以東宮舊侍陞爲堂上, 汝國當尊敬之.'" (『성종실록』 성종 19년(1488) 윤1월 15일.)

105) "日有得於周覽咨詢者, 遇夜輒以片楮記之, 納諸巾笥....." (동월, 「조선부」)

에 편입되어 읽혀졌던 반면, 일본에서는 상업출판이 왕성했던 18세기 이르러 처음 간행이 이루어졌다.

「조선부」는 조선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꾸준히 유통되었다. 1492년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와 복명한 盧公弼(1445~1516)이 董越이 지은 「조선부」를 올리면서 "이것은 許琮(허종)에게 기증한 것입니다."라고 하니, 성종이 "이 賦는 우리나라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었으니, 속히 인쇄하여 바치도록 하라."라고 했다는 기록이 『성종실록』에 보인다.[106] 동월이 중국에서 「조선부」를 간행한 뒤, 이를 허종에게 주려고 盧公弼에게 맡겼던 것이다.

성종이 바로 간행하게 명한 「조선부」는 금속활자로 간행되었지만 이 판본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 다만 16세기 甲辰字. 甲寅字, 癸丑字 등 금속활자로 간행된 판본이 여러 종 전한다. 이를 보면 이 시기 「조선부」의 수요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이 책의 간행과 관련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규장각 등 여러 곳에 필사본이 다수 전하는 것을 보면 이 책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조선부」는 일본에서도 널리 읽히고 또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壬辰倭亂으로 인해 많은 조선 古籍이 일본으로 유입되었고, 「조선부」도 이 무렵 일본에 전해져 교토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유통되었다. 光緖 연간 楊守敬이 일본에서 「조선부」를 보았다는 기록이 『日本訪書誌』에 보인다. 楊守敬이 본 「조선부」의 판본은 조선 太斗南(1486~1536)이 重刻한 것이다.[107] 「조선부」는 이 판본 외에도 여러 차례 일본에서 간행되었다. 일본에서 간행된 「조선부」는 중국의 판본이 아닌 조선의 판본을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가 주도가 아니라, 서점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다. 상업출판이 주를 이루었기에, 본문에 지도를 추가한다거나 邊欄에 장식을 더하는 등 독자의 눈을 끌기 위한 방법들이 시도되기도 하였다.[108]

「조선부」는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널리 유통되고 다양하게 간행되었다. 본고에서 가장 주목하는 판본은 『신증동국여지승람』本이다.[109]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 姜希孟(1424~1483), 盧思愼(1427~1498) 등에 의해 편찬되었고 1530년 李荇, 尹殷輔가 『동국여지승람』을 보완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했다. 이때 「조선부」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本은 吳必顯・王政이 간행한 「조선부」 初刊本과 비교해 볼 때 歐陽鵬의 序, 동월의 自序, 王政의 後序를 삭제했지만, 원문과 주석이 함께 인용되어 내용상 완정하고 오류가 적으며 원본에 제일 가깝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지승람』本을 底本을 삼고 『사고전서』本과 朱琦抄本

106) "公弼又進天使董越所撰 「조선부」, 啓曰: '上使贈臣云, 此董大人所寄許吏部也.' 傳曰: "此賦詳載我國之事, 其速印進.'" (『성종실록』, 성종 23년 6월 23일)

107) 楊守敬, 『日本訪書誌』, 上海古籍出版社, 2002, 718쪽.

108) 김소희, 앞 논문, 140~142쪽.

109) "仍奏曰, 明人所作有朝鮮賦, 而不入於皇華集中, 當此改刊之日, 何以爲之乎? 上曰, 此賦在於何冊乎? 相簡曰, 在於輿地勝覽矣." (『承政院日記』, 영조 49년 6월 8일.)

「조선부」를 참고하였다.

Ⅲ. 「朝鮮賦」의 형식과 내용

1. 注를 병기한 賦

賦는 대체로 序와 본문, 그리고 결어의 3단으로 구분된다. 서에서는 작품의 동기나 연유를 쓰고, 결어는 보통 전편의 뜻을 요약한다. 「조선부」도 이런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동월은 조선에 체류한 달포 동안 견문한 산천 경치, 풍토 인정을 쪽지에 적어 넣어 이를 바탕으로 「조선부」를 작성했다는 것을 序에서 밝혔다. 또한 부의 장르를 선택하는 이유도 설명하였다. 바로 '부'라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펼쳐서 곧바로 서술하기 때문이다. 즉 동월은 「조선부」를 썼을 때 문학적 수사보다 사실의 전달을 중요시하며 일을 자세하면서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부의 형식을 택하였던 것이다.[110] 이 점은 결어에서도 다시 강조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많이 왜곡하지 않았으니 諮問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111] 諮問은 사신이 행해야 하는 임무로서, 『詩經·小雅』의 「皇皇者華」에서 "이리저리 채찍질하여 달려서, 두루 찾아서 자문을 하도다.(載馳載驅, 周爰諮詢)"라고 한 부분을 사신을 보낼 때 부르곤 했다. 이는 임금이 사신에게 사행을 갈 때 사명을 잊지 말고 반드시 두루 자문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다.[112] 동월도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마음에 새겨 두어 조선에서 머무른 동안 날마다 물어보고, 물어보아 얻은 것을 열심히 기록하였다.

「조선부」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내용은 대체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113] 첫 장은 "睠彼東國"부터 "小者亦雄屹屹之豹關"까지다. 먼저 조선의 지리와 팔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복장, 관봉급, 형벌, 무역, 농업, 경로연, 歸厚署, 향음주례, 혼인, 도박, 제사 등과 같은 조선의 제도와 풍속을 소개하였다. 첫 장은 총론으로 조선에 대한 예비적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장은 "蓋自義順而歷宣川"부터 "惜不為予黨所解也"까지 되어 있고 동월이 의주에서 도성까지 여정에 따라 본 경치와 견문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 체류기간 동안의 경험도 기록하였다. 이 장에서는 평양, 개성, 그리고 서울에 관한 내용

---

110) "賦者, 敷陳其事而直言之也...(중략)...凡無關使事者悉去之, 猶未能底於簡約, 意蓋主於直言敷事, 誠不自覺其辭之繁且蕪也."(동월, 「朝鮮賦」)

111) "六義有賦, 惟取直陳. 浹月經行, 詎得其真. 矧予以襪線之非才, 不異乎滄海之纖鱗. 乃能運筆端之造化, 寫六合之同春. 惟不敢厚誣於見聞, 或庶幾不愧於咨詢."(동월, 「朝鮮賦」)

112) "三夏, 天子所以享元侯也. 使臣弗敢與聞. 文王, 兩君相見之樂也, 臣不敢及. 鹿鳴, 君所以嘉寡君也, 敢不拜嘉. 四牡君所以勞使臣也, 敢不重拜. 皇皇者華, 君敎使臣曰: '必諮於周'. 臣聞之, 訪問於善爲咨. 咨親爲詢, 咨禮爲度, 咨事爲諏, 咨難爲謀, 臣獲五善, 敢不重拜."(『春秋左氏傳 襄公4年』, 번역은 한국고전DB참조.)

113) 「朝鮮賦」 장별의 구분은 본문 부록을 참조.

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먼저 의순에서 순안까지의 노정을 기록하여 경과한 산과 역원, 누대를 읊었다. 평양에 이르러 개략을 기술한 후에 평양의 외곽, 근교, 풍토, 기후, 田制, 자연 경관, 문물, 생도들의 모습, 유물, 유적 등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나서 개성을 거쳐 서울까지 간 여정을 기록하였다. 특히 서울에서 사행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서울 거리의 모습, 사신을 맞이하는 음악과 백희, 頒詔와 연향 의식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셋째 장은 "乃若山川道里"부터 "而亦由其琛贄之絡繹也"까지의 부분이다. 셋째 장은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상의 형식으로 앞서 소개하지 못한 조선의 풍물을 소개하였다. 조선에서 머무른 동안 인상 깊었던 것을 회상하여 내용별로 운을 나누어 가며 서술하였다. 성균관과 학제, 한양의 성곽, 백성의 생활상, 가축과 동식물, 특산물 등을 상술하였다.

마지막 넷째 장은 序의 내용과 연결하여 동월의 창작 태도와 저술의 자세를 밝혔다. 자신의 재주는 넓은 바다의 작은 물고기와 같이 보잘 것 없지만, 보고 들은 그대로 적었으니 사신의 임무에 부끄럽지 않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문장 앞뒤가 호응하니 시작과 끝이 일관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부」는 사행을 기록한 다른 시문들과 달리 賦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동월이 문학적 역량을 과시하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자의 생각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 주는 문학 양식'이라는 부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보인다. 「조선부」는 4언과 6언을 위주로 하되 장구나 산구를 대량으로 섞고 있으며, '雖 · 而 · 亦' 등의 접속사 이외에도 '之· 者 · 也' 등 허사를 많이 사용해 用韻이 비교적으로 자유롭다. 바로 이런 성격을 지닌 부의 장르를 택해 산문화된 형식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싶은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부는 미사여구로 "鋪張敍述"하는 것이 특징이다.[114] 「조선부」는 대구를 많이 사용하고 각 구의 끝에는 운을 달고 있으며 필요할 때 환운하기도 한다. 압운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며 對도 편의에 따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정연하지 않은 對도 많으며 일부러 對句에서 散句, 隔句對를 끼어 넣는 경우도 많다. 다양한 변화를 통해 들쑥날쑥한 문형을 만들어 글의 리듬감과 생동감이 있도록 하기도 한다.

田賦以結代畝, 牛耕四日者, 乃輸四斗之<u>租</u>. [平聲虞韻]
士養以類定員, 身寄二齋者, 皆食二時之<u>稍</u>. [去聲效韻]
官非三品, 綺繡不得文<u>身</u>. [平聲眞韻]
民受一廛, 禾麻則皆穿<u>窘</u>. [去聲效韻]
전답의 세금은 결로 묘를 대신하는데, 소로 4일을 갈 정도면 이에 4말의 조세를 내고.

114) 동월 지음, 윤호진 옮김, 『조선부』, 까치, 1995, 18쪽 참조.

선비 양성은 부류에 따라 인원을 정하는데, 상재와 하재에 기숙하는 자는 두 끼의 녹미를 먹는다.
벼슬이 3품이 아니면 색깔을 물들인 옷으로 몸을 치장할 수 없고
백성은 1廛의 땅을 받는데 벼와 삼은 다 움을 파고 넣어둔다.

밑줄 친 字는 각 구절의 운자로 '租'는 '平聲虞韻'이고, '身'은 '平聲眞韻'이고 '稍'와 '窖'는 '去聲效韻'이다. 詩의 환운은 감정의 변화와 관련을 맺기도 하지만 「조선부」에서는 감정의 변화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새로운 내용을 서술할 때마다 주로 환운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대목에서 운자를 바꾸어 평운과 측운을 번갈아 썼다. 그리고 2구 혹은 3구를 합쳐서 하나의 對로 만들었다. 「조선부」에서는 통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有兩翁仲, 如唐巾裾. [平聲魚韻]
點以斑斕之苔蘚, 如衣錦繡之文襦. [平聲虞韻]
左右列以跪乳之石羊, 碑碣馱以昂首之龜趺. [平聲虞韻]
為圓亭以設拜位, 累亂石以為庭除. [平聲魚韻]
두 기 석상이 있는데, 당나라 복식 같다네.
　얼룩얼룩한 이끼 반점이 끼어, 비단옷의 무늬와 같다네.
좌우에 꿇어앉아 젖먹이는 석양이 늘어서고,
비갈은 머리를 쳐든 귀부에 실려 있다.
둥근 정자를 지어 절하는 자리를 만들고,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 정원을 만들었다.

'裾[平聲魚韻]'와 '襦[平聲虞韻]', '趺[平聲虞韻]'과 '除[平聲魚韻]'가 隣韻으로 通韻하였다. 율시에 역시 통운을 운용한다.

太平有館, 鐘鼓有樓. [平聲尤韻] (對)
仡仡國中, 言言道周. [平聲尤韻] (對)
以宴以息, 以遨以游. [平聲尤韻] (對)
臥榻則環以八面幃屏, 疏簾則加以半卷香鉤. [平聲尤韻] (對)
雞鳴則候問安之使, 騎出則鳴夾道之騶. [平聲尤韻] (對)
有緝御以給使令, 有楮墨以供唱酬. [平聲尤韻] (對)
蓋敬主必及乎使, 而為禮不得不優也. [平聲尤韻] (散句)
태평이라는 관이 있고, 종고를 둔 누가 있다.
나라 안에 우뚝 솟아, 큰 길에 높고 높도다.
잔치하고 쉬기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한다네.
눕는 침상은 팔 폭의 병풍을 둘러쳤고,
성긴 주렴은 반을 말아 올려 경쇠로 걸었다.

닭이 울면 사자를 시켜 문안을 하고,
말을 타고 나가면 길에서 마부가 소리쳐 벽제를 해주네.
명을 받드는 사람이 있어 심부름을 하게 하고,
종이와 먹을 두어 창수하게 한다네.
천자를 공경하여 반드시 사신에게까지 미치므로,
예를 행함에 우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네.

여기서 운자의 변화는 없으나 새로운 구법이 보인다. 연이어 對句를 사용하다가 불쑥 '蓋敬主必及乎使, 而為禮不得不優也'와 같은 散句를 끼워 넣었다. 이는 앞의 정연한 對句와 어울려 글에 변화를 부여한다. 위의 인용문처럼 연결되는 2구를 하나의 對를 만든 경우도 있고 이 밖에 한 구 걸러 대구가 되는 隔句對도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듯이 여러 구를 합쳐 하나의 對가 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조선부」는 부의 형식을 택해 시의 성격을 띠면서도 형식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었다. 운율은 내용의 흐름에 따라 환운하였으며 문장의 구성을 위해 필요할 때는 통운도 구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두 개의 句를 하나의 單位로 한 隔句押韻도 구사하였다. 구법에서도 다양함이 반영되고 있는데, 문장의 구성은 4자구에서 12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자구에 구애를 받지 않았다. 대구는 연결되는 2구를 對로 한 경우가 매우 흔하고, 이 외에 격구대 또는 여러 구를 합쳐 하나의 대로 만든 경우도 있었다.

이어서 주석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朝鮮賦」의 자주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단순한 어휘의 설명이고 하나는 본문 내용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이다.

가문은 벼슬을 가장 중요시하니, 대대로 양반에 속한 사람은 혹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면 모두 그를 예의 없다고 생각한다.
[조상 때부터 일찍이 문무의 벼슬을 겸한 사람을 양반이라 한다. 양반 자제에게는 다만 독서만 허락하고 기예를 익히지 않는다. 혹 행실이 선하지 못하면 나라사람들이 모두 그를 비난한다.][115]

국왕이 朝會할 때 남향한 국왕을 중심으로 文班은 동쪽에, 武班은 서쪽에 서는데, 이 둘을 양반이라고 하였으며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지배신분 계층이다. '양반'은 중국에 없는 용어이므로 중국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 동월이 자주에서 해설하였다. 유형원의 『반계수록』에서 "양반은 대부와 士의 자손 친족이다. 國制에 대부와 사의 친족이면 동반과 서반의 正職을 할 수 있어 양

115) "門第最重簪纓, 世列兩班者, 或匪彝, 則皆不為之禮貌. [以先世嘗兼文武官者謂之「兩班」, 兩班子弟止許讀書, 不習技藝. 或所行不善, 則國人皆非之.]" (동월, 「朝鮮賦」)

반이라고 칭한다."[116]라고 하였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도 동월의 「조선부」를 인용해 양반을 설명한 바가 있다.[117]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해 단 주석은 그 출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견문한 것, 다른 곳에서 들었던 것, 그리고 자료에서 얻은 것이다.

「조선부」 序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월은 조선에서 견문한 것을 사실 그대로 적었다. 진실하고 믿을 만하는 점을 거듭 밝히고 출처를 주석에서 누차 밝혔다. 먼저 「조선부」에서 본인이 직접 견문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단 주석의 예를 보도록 한다.

> 가난한 집은 벽을 대나무로 엮고
> 새끼줄로 얽어서 튼튼히 하였고
> 그 위는 짚으로 이었으며
> 빈 곳은 진흙으로 막았다.
> [그 벽은 잡목 따위를 바로 세운 뒤 엮지 않고 새끼로 잡아맨다. 새끼로 잡아맨 곳은 마치 그물의 눈과 같은데, 한 개의 눈마다 하나의 진흙덩이로 막았다. 왕도의 작은 골목에서 본 것은 이와 같고, 오는 도중에 본 것은 완전히 진흙으로만 발랐다.][118]

인용문은 조선 일반 백성의 집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대나무를 엮어 집의 벽을 만들고 위는 띠풀로 엮었으며, 구멍이 있으면 진흙덩이로 막았다. 자주에서 동월은 서울의 골목에 직접 본 것임을 강조하고, 오는 도중에 본 것은 완전히 진흙으로만 발랐다고 하였다.[119] '어디서 보았다'와 같이 사소한 부분을 언급한 것은 자신이 직접 견문해 관찰하고 기록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116) "而又有所謂兩班(大夫士之子孫族黨也, 凡國制唯大夫士之族, 得通東西班正職. 故俗稱兩班.)" (유형원, 『반계수록』)

117) "皇明天使董越朝鮮賦注, 先世嘗兼文武官者, 謂之兩班. 兩班子弟, 止許讀書, 不習技藝. 兩班乃東土士大夫之稱, 有名於天下. 故我國士人遊燕都, 唐擧星命者問其來歷, 稱兩班則更不論其相命者, 貴已極矣, 故不復言云矣. "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번역은 한국고전DB를 참조하였음.)

118) "貧壁編筱, 索絢以完. 其上則覆以茅茨, 其空則塞以泥丸. [其壁取荊榛之類, 直豎而不編, 以草繩約之, 繩約處如網罟之目, 每一目以一泥丸塞之. 王都小巷如此, 若塗間所見者則全用泥塗.]" (동월, 「朝鮮賦」)

119) 성호 이익은 築堵를 설명하면서 「朝鮮賦」의 다음 구절을 인용하였다. "동월의 「朝鮮賦」에 "가난한 집 벽에는 대로 엮어 새끼로써 완전히 하고, 진흙덩이로써 메운다." 하였고 自註에 "가시나무 같은 것을 가지고 세로로 세우기만 하고 엮지 아니하며 짚으로 매는데 그물눈 같은 곳을 진흙덩이로 메운다. 왕도에는 전부 진흙으로 발랐다." 하였으니, 아마 지금의 풍속과 같지 않았던 것이다." 築堵는 담을 쌓는다는 것이다. 「朝鮮賦」의 이 구절은 15세기의 조선에서 담을 어떻게 쌓는지 기록한 것인데. 이익은 이를 읽고 당시의 築堵와 비교하여 풍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밝혔다.

두 번째로 「조선부」에 나오는 정보의 출처는 통사다. 통사는 사역원에 소속되어 통역의 임무를 담당한 譯官이다. 조선말을 모르는 동월이 조선의 국경에 들어온 후에 통사는 꼭 필요한 존재이므로 늘 옆에 붙어 다녔다. 통사는 통역을 하기도 하고 조선의 풍속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신이 조선에 머무른 동안 모시고 따라다녔다. 이에 동월이 조선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 통사가 실시간으로 해설을 해 주었다. 통사는 조선 사람으로서 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최적의 정보출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선부」 자주에서 통사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영묘한 못에는 신비한 동물이 숨어 있고,
긴 내에는 폭포가 걸려 있다.
[산꼭대기에 용추 폭포가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왕씨가 여기에 도읍했을 때 가뭄을 만나 임금이 친히 거기에 가서 기도했으나 효험이 없었다. 어떤 도술을 부리는 자가 용을 쳤더니, 용이 물에서 나와 왕을 뵈었다. 왕이 지팡이로 용을 쳐서 비늘 몇 개를 떨어뜨렸는데, 지금도 그 비늘이 國庫에 수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통역관 李義는 개성 사람으로 일찍이 내게 이 사실을 말하고, 또 왕에게 아뢰어 그 비늘을 꺼내어 내게 보여주려 하였으나, 나는 쓸데없는 일이라 여겨 드디어 그만두게 하였다.][120]

형벌은 궁형을 쓰지 않고
도둑은 목에 칼을 씌운다.
[내시는 다 궁형을 당한 자가 아니고, 어렸을 때에 다쳤거나 병을 앓았던 자만 썼기 때문에 내시가 아주 적었다. 도적은 가벼이 용서해주지 않는다. 이 일을 서너 명의 통사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들의 말과 모두 들어맞았다.][121]

이전 원나라는 이곳을 구획하여 경계로 삼았고,
우리 명나라 때에 이르러 바깥이 없음을 보였다.
[성불령은 북으로는 산을 베고, 남으로는 바다를 베고 있다.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면 구름 밖에 높이 솟아 있다. 어떤 관문 어귀에 옛날에 만든 추성의 네모난 돌 몇 무더기가 있다. 어떤 통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북쪽이 곧 자비령으로 원나라 때에 이곳을 그어 경계로 삼았는데, 여기가 바로 그 관문 입구다."라고 하였다.][122]

버선은 베로 신은 가죽인데

120) "蟄神物於靈湫, 挂瀑布於長川. [山頂有龍湫瀑布. 相傳王氏都此時遇旱, 王自往禱, 不應. 有道術者激龍出水面啟, 王杖之, 去其數鱗, 仍收其國庫中. 通事李義, 開城人, 嘗為予道此, 且欲啟王出鱗予觀. 予以為無益, 遂止之.]" (동월, 「朝鮮賦」)

121) "刑不以宮, 盜乃荷校. [閹宦皆非宮刑, 惟取幼時傷疾者為之, 所以甚少, 惟盜賊則不輕貸. 此事以詢諸三四通事, 所言皆合.]"(동월, 「朝鮮賦」)

122) "在前元則畫此為界, 至國朝乃示以無外也. [成佛嶺北枕山, 南枕海. 山巔睥睨, 高出雲表. 一關口棄舊時所伐甃城方石數堆. 詢之一通事, 云其北即慈悲嶺, 元時畫此為界, 此即其關口. 若然則自鴨綠江東抵平壤皆為內地...]" (동월, 「朝鮮賦」)

발은 풀어놓고 묶지 않았고,
옷과 저고리는 베나 비단인데
소매는 넓으나 길지는 않다.
저고리는 모두 무릎까지 내려오고
치마는 다 마루까지 드리워진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볼 때에도 무릎을 꿇어 예를 표하고
천한 사람이 있으면 머리로 이는 것이 보통이다.
[신은, 천한 사람은 소가죽으로 만들고, 귀한 사람은 사슴 가죽으로 만들며, 버선은 베를 많이 쓴다. 서너 명의 통사의 말이 모두 같았다.][123]

「조선부」의 상당한 내용은 모두 조선 통사에게서 정보를 얻은 것이다. 이 점을 동월은 자주에서 밝혀 신뢰성을 높였다. 인용한 부분을 살펴보면 통사가 자발적으로 사신에게 이야기한 내용도 있지만 동월이 의문이 생겨 통사에게 찾아가 자문한 경우가 더 많았다. 용추 폭포에 관한 傳說은 개성 사람인 통사 李義가 동월에게 일찍이 말해 준 것이지만, 조선의 궁형, 그리고 도둑을 처벌하는 방식 등은 서너 통사에게 자문하여 확인한 것이다. 법률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중요하므로 사행보고서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이었다. 이에 동월이 여러 통사에게 재차 확인하여 정확한 답이 나와야 이를 기록하였다. 행장은 사람의 눈에 쉽게 띄는 것으로 중국 사람이 이역을 알아갈 때 제일 먼저 관심이 생기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동월이 조선 사람의 행장을 묘사했을 때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서너 통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말하자면 동월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통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하였다.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한 통사에게만 물은 것이 아니라 여러 통사에게 자문해 거듭 확인하고 비로소 만족하였다. 이는 동월이 자신이 쓴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동월이 조선 통사에게 거듭 확인한 사실임을 자주에 반복해 밝힌 것도 자신이 쓴 「조선부」의 진실성과 사실대로 적는 저술 태도를 독자에게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자주에서 언급한 통사 중 한 명은 자주에서 밝힌 대로 통역관 李義인데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다. 또 安處仁(?~1521)이라는 통사도 동월을 도왔었다.[124] 안처인은 조선전기 계상전의를 역임한 역관이고 安瓊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安敦厚이고,

123) “襪履布韋, 足皆縱而不束. 衣襦布帛, 袖則闊而不長. 上衣則皆過膝, 下裳則皆垂堂. 卑見尊, 亦以蹲踞為禮, 賤有事, 則以首戴為常. [履, 賤者牛皮, 貴者鹿皮. 襪多用布. 三四通事說皆同.]”(동월, 「朝鮮賦」)

124) 安處仁이 1484년에 통사로 차출되어,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 온 중국 여성 萬莊 등 3명을 遼東으로 데려가서 풀어 주었다. 1488년 동월이 조선에 와서 행례절차를 연습할 때 통사로서 階上典儀가 되었다; “臣隨至寶山站, 上使語通事曰: ‘慕華館迎詔處, 可圖來.’ 臣將圖入謁, 兩天使見之曰: ‘正是乃出坐階上, 習行禮節次.’ 令通事安處仁爲階上典儀, 李義爲階下典儀, 州官二人及頭目二人作宣詔, 捧詔, 展詔等官.”(『성종실록』, 1488년 3월 10일 기사.)

아버지는 봉사 安珩이다. 1521년(중종 16)에 李忠健·安處謙·權礛·趙廣佐 등은 기묘사화 이후 沈貞·南袞 등이 득세하여 士類를 배척하고 중종의 은혜를 가리어 숨긴다 하여 이들을 제거하고 문종의 후손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모의를 하다가 발각되었는데, 여기에 아버지와 형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처인도 연좌되어 교살 당하였다.[125]

동월의 자료 출처 중 또 다른 하나는 허종의 『풍속첩』이다. 「조선부」에서 『풍속첩』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제사는 대대 가묘를 세우는데.
대부는 3대까지 제사하고,
사서는 할아버지에 그친다.
이는 다 기자로부터 그 풍습이 전해 내려온 것이고, 또 중국에서 하는 것과 비교해보자면 모방한 것이다.
[이상은 다 관반사 이조판서 허종이 갖추어온 『풍속첩』에 보인다.]
祭則皆立家廟.
大夫乃祭三代, 士庶則止祖考.
此皆自箕子而流其風韻, 而亦視中國為之, 則傚也.
[已上, 皆見館伴使吏曹判書許琮具到風俗帖.]

위 인용문은 조선의 제사를 소개한 것이다. 풍속첩은 외국에서 사신이 올 경우, 화첩에다가 여러 가지 풍속을 그려 넣어 사신이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 풍속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선부」에서 말하는 『풍속첩』은 실상이 전하지 않아 허종이 직접 그려 준 것인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동월에게 보여 준 것인지 자세하지 않다. 『인종실록』에서도 중국 사신에게 풍속첩을 보여 주는 일에 관한 기록이 있다.[126]

부귀한 여자는 얼굴을 검은 비단을 드리워 가리고,
가난한 사람은 장딴지를 흰 치마로 가리지 못한다.
지위가 있고 존귀한 사람만 가마를 타고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고
지위가 없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다만 말을 타는 것만 허락한다.
[부귀한 집 부인들은 머리에 큰 모자 같은 광주리를 쓰고, 차양에 검은 비단을 드리워 그 얼굴을 가렸다. 비록 얼굴을 가리더라도 또한 사람들을 피해서 다닌다. 서울에도 이

125) 『성종실록』 1488년 3월 10일, 1488년 10월 19일 기사; 『중종실록』 1521년 10월 17일 기사.

126) "禮曹啓曰: '風俗帖【錄本國風俗, 以示天使者.】 遠接使齎去, 不待天使求見, 而先出給之, 前有其例, 此有似誇美. 設若天使求見, 則姑爲遲留, 或於中路, 或於入京後, 斟酌給之, 不示預纂之意何如?' 傳曰: '可.'" (『인종실록』 1545년 3월 3일 기사.)

러한 것이 있다.][두 구절은 이조 판서 허종이 준『풍속첩』가운데 들어 있다.][127]

「조선부」에서 조선 양반가 여성의 행장에 관해 서술한 것 역시 허종의『풍속첩』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의 부유하고 귀한 집 부인들이 얼굴을 검은 비단으로 가리고 다니는 조신한 모습을 묘사하였다. 양반가의 여성을 만나기 어려워 풍속첩을 통해 그 실상을 알게 된 것이다.[128]

동월은 중국의 지리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었다.

그 너비는 2천 리요, 길이는 너비의 두 배가 되고
[그 나라는 동서 2천 리, 남북 4천 리라고 지서에 이른다.][129]

여기서 말하는 지서는『명일통지』로 추정된다.『명일통지』89권「外夷」에서 "조선국 동서남은 모두 바다에 닿아 있고 북은 여진족, 서북은 압록강이다. 동서는 2천 리, 남북은 4천 리이다.[130]"라고 하였다.

대개 의순관에서 선천을 지나는데 그 사이에 비록 높다란 용호산과 웅골산이 있지만 오직 곽산이 더욱 높이 하늘에 솟아 있고
[의순은 관의 이름으로 의주 압록강 동쪽 강안에 있다. 강이 곧 화이의 경계다. [선천은 군의 이름으로 의주의 동쪽에 있다.], [산의 이름으로 용천군의 진산이다.]
[산의 이름으로 철산군의 진산이다.] [곽산은 군의 이름으로 그 성이 산꼭대기에 있다. 지서에서는 '능한성'이라고 명하였다.][131]

여기서 말하는 지서는 어느 책인지 명확하지 않다.『대명일통지』「朝鮮國山川考」

---

127) "富貴者, 面乃蔽以黑繒, 貧賤者, 頸不掩於素裳. 有位而尊, 乃許乘輿出入, 無位雖富, 止許約馬超驤. [富貴家女婦, 戴一匡如大帽, 簷垂黑繒以蔽其面, 雖蔽面亦避人, 王京乃有之.] [二句出許吏曹所具風俗帖中.]" (동월,「朝鮮賦」)

128)『高麗圖經』에서 貴婦를 묘사했을 때 "부인은 검은 비단으로 된 너울을 쓰는데, 세 폭으로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8척이고, 정수리에서부터 내려뜨려 다만 얼굴과 눈만 내놓고 끝이 땅에 끌리게 한다."라고 하였다. 『임하필기』 제17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曺伸의 『소문쇄록』에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족의 부녀가 밖에 나갈 때에는 모두 검은 비단으로 원립을 덮고 사방으로 한 자 남짓씩 드리우고 쓰는데,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대개 唐나라의 羃䍦와 帷帽의 유제로서, 혹은 蓋頭라고도 한다." 하였다.『識小錄』에 이르기를, "사족의 부녀가 쓰는 遮首는 곧 옛날의 이른바 帷帽이고, 신부들이 혼례에 쓰는 捲首는 곧『시경』에 이른바 '副笄에 여섯 곳을 옥으로 꾸민다'는 것이다." 하였다."

129) 其袤也道里二千, 延則加倍. [其國東西二千里, 南北四千里. 誌書云.] (동월,「朝鮮賦」)

130) "朝鮮國東西南瀕海, 北隣女旦, 西北至鴨綠江, 東西二千里, 南北四千里." (李賢,『明一統志』)

131) "蓋自義順而歷宣川, 其間雖有龍虎熊骨之巑岏, 惟郭山更凌乎霄漢, [義順, 館名, 在義州鴨綠江東岸. 江即華夷界限. 宣川, 郡名, 在義州東. [山名, 龍川郡鎮山. 山名, 鐵山郡鎮山. [郭山, 郡名. 其城在山顛. 志書名「凌漢城」.]" (동월,「朝鮮賦」) 본문과 주석 확인할 것

에서 “웅화산은 곽주의 동북쪽에 있다”라고 하였다. 곽주는 지금의 郭山郡이다. 『세종실록』「세종지리지」에서 “능한산은 곽산군 동북쪽에 있는데, 郡人들이 진산으로 삼고 있다.”[132]라고 하였다. 최근 편찬된 사전에는 “능한산은 진산이고 평안도 곽산군 동북 7리에 있다. 『대명일통지』에서 ‘웅화산’이라고 한다.”[133]라고 되어 있으니, 곽산군이 능한산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한산이 곽산군의 동북쪽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동월이 능한산과 곽산군의 위치를 잘못 인식했거나 지서에서 말하는 능한산과 곽산은 같은 것이 아니다.

2. 저술 태도와 조선 인식

1) 사실의 기술

동월의 「조선부」는 사신으로 사행 견문을 기록하여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한 일종의 사행 보고서이다. 부의 양식은 저자의 생각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 주는 성격을 지닌다. 동월은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조선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조선부」에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지만, 서술의 주안점과 입각점에서 동월의 저술 태도와 개인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대로 동월은 「조선부」의 序와 결어에서 미사여구로 “鋪張敍述”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 점은 본문에서도 종종 드러난다.

>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도 손으로 붙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 쌀 한 말을 이고서도 빠른 걸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 이것은 내 스스로 본 것을 간단히 말한 것이고
> 보지 못한 것은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것이다.[134]

여기서 동월은 조선의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냈다. 손으로 물동이와 쌀을 들지 않고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다. 옛날에 중국에서도 물건

132) “郭山郡: 知郡事一人, 兼義州道左翼兵馬, 本高麗長利縣. 顯宗戊午, 改郭州防禦使, 高宗十八年辛卯, 避狄兵入于海島, 元宗二年辛酉, 宋理宗景定二年出陸, 隷隨州, 爲兼官. 恭愍王二十年辛亥, 復郡號. 本朝太宗癸巳, 例改今名 凌漢山. 在郡東北, 郡人以爲鎭山.”(『세종실록』 154권, 지리지 평안도 의주목 곽산군)

133) “凌漢山在平安道郭山郡東北七里鎭山『大明一統志』作「熊花山」.” (中華大典編纂委員會, 『中華大典·歷史地理·域外分典』, 浙江古籍出版社, 116쪽.)

134) “有頂盂水而手不扶匡者, 有戴斛米而步亦趨蹌者. 此則自所見而略陳, 其未見則莫得而詳也.”(동월, 「朝鮮賦」)

을 머리에 이고 운반하는 습속이 있었다. 춘추전국 시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孟子』에서도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孟子·梁惠王』「寡人之于國也」에서 "머리칼이 희끗희끗한 노인을 머리에 물건을 이고 다니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했다.[135] "세태가 좋아 노인을 존경한다면 길에서 머리칼이 희끗희끗한 노인이 머리에 물건을 이고 다니는 것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다. 당나라 때도 사람들이 머리에 물건을 이고 다닌 일이 있고[136] 송나라[137]에 이르러서는 흔하지 않다가 명나라 때 거의 없어진 것 같다. 따라서 사람들이 머리에 물동이와 쌀을 이고 다니는 것을 동월이 명나라에서는 보지 못하다가 조선에서 봤으니 신기하게 여겨 특기한 것이다.

이를 기록한 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본 것을 말한 것이고 보지 못한 것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고 보충 설명하였다. 직접 본 것만 기록한다는 것은 동월이 사실 그대로를 펼쳐 곧바로 기록하는 저술태도를 강조하려고 쓴 것이다. 이 외에도 동월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것만을 기록했다고「조선부」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였다.[138]

동월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해 본 적도 있다. 다음의 예를 통해 동월의 실사구시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 종이는 닥나무로 만드는데 고치로 만든다고 여긴 것은 종이를 공교롭게 잘 다듬었기 때문이다.
> [옛날에는 모두 조선에서 나는 종이는 고치로 만든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조선에 와서야 비로소 닥나무로 만든 것인 줄 알았다. 만드는 솜씨가 교묘해서 그렇게 전해진 것이다. 내가 불로 태워서 시험해 보고서 그런 줄을 알았다.][139]

---

135)『孟子·梁惠王』,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鷄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 勿奪其時, 數口之家, 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于道路矣".

136) 당나라 역사가 顔師古가『한서』를 주석하면서 "婁藪, 戴器也. 以盆盛物戴於頭者, 則以婁藪薦之. 今賣白團餠人所用者是也."라고 했다. (顔师古,『前汉·东方朔传注』); '婁藪'는 머리에 물건을 이고 다닐 때 머리와 물건 사이에 까는 둥근 깔개이다. 이수광의 『지봉유설』 권19에서도『博物志』를 인용해 '婁藪'를 설명하였다. "博物志曰: 簍藪, 東方朔以爲寄生賣餠人. 結茅爲經以戴頭上, 狀如環云, 余意經疑作絰. 今我國女人戴物者所用卽此也." (이수광,『지봉유설』)

137) 北宋의 畫家 張澤端의 명작 「淸明上河圖」에 800여 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의 오른쪽 위에 길거리의 한 사람이 대야를 이고 다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800여 명 인물 중 머리에 물건을 이고 다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손으로 들거나 수레나 가축을 통해 물건을 운반한다. 따라서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머리에 물건을 이고 다니는 경우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흔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수레와 가축을 써서 물품을 운송하는 방식을 더 많이 쓰게 된 것이다. 이에 명나라 때에는 물건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습속이 거의 없어진 것 같다.

138) "鮮食則蹄荃山海, 蔬茹則採掇江灣. [自平安至黃海二道所見皆如此.]"; "女鬢掩耳, 不見佩璫. 首戴白圈, 直壓眉眶. [自開成府至王京, 夾道所見, 皆如此.]" (동월,「朝鮮賦」)

139) "紙造以楮, 而以繭認者, 以其搗練之工.[舊皆傳, 其國所出之紙為繭造, 至乃知以楮為之, 但制造工耳. 予嘗以火試之而知其然.]" (동월,「朝鮮賦」)

조선이 제작한 종이는 고려 때부터 이미 유명했고 중국 사람들이 수입하여 애용하는 高級紙가 될 정도였다. 『송사』에서 “고려의 땅에서는 백추지가 생산된다.”[140] 라고 했고, 『계림지』에서 “고려의 저지는 광택이 나고 희어서 참 좋은데, 이름을 백추지라고 한다.”[141]라고 했다. 『고려도경』에서는 “고려의 종이는 닥나무만을 전적으로 쓰지는 않고, 간간이 등나무를 섞어서 만들며, 다듬이질을 하여 모두 매끈한데, 좋고 나쁜 것의 몇 등급이 있다”[142]라고 했다. 동월이 조선에 오기 전에 이미 조선의 종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에 온 후에 종이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고 그 원재료를 따진 것으로 보인다. 동월이 조선의 종이를 누에고치로 만들었다고 생각한 것은 조선의 종이가 가진 ‘繭紙’라는 이름 때문인 것 같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우리나라의 紙品은 옛날에 견지가 있어서 천하에 그 이름이 알려졌다. 예로부터 다른 원료는 쓰지 않고 오직 닥나무 껍질만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런데 견[繭]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楮紙의 질기고 윤택한 것이 누에고치와 비슷해서이다.”라고 하였다.[143] 동월은 조선에 직접 와 보고서야 조선의 종이가 누에고치가 아니라 닥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안 것이다.

동월은 조선의 종이의 원재료를 알기 위해 불로 태워서 시험까지 하였다. 누에고치로 만든 제품은 불로 태우면 흰 연기가 나고 모발 타는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기에 과연 그러한지 확인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 직접 실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을 통해 동월이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원칙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엿볼 수 있다. 동월은 이러한 서술 원칙을 통해 「조선부」의 진실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조선에 대해 알고 싶으면 「조선부」를 참조하는 것이 최적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월이 「조선부」에서 ‘직접 본 바[所見]’를 강조한 것은 자신의 저술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조선부」에서 동월이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기로 한다.

2) 조선 인식

동월은 조선이 중국의 藩國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조선부」의 서두를 열었

140) “高麗地産白硾紙.” (脫脫, 『宋史』)

141) “高麗楮紙, 光白可愛, 號白硾紙.” (王雲, 『鷄林志』)

142) “高麗紙不全用楮, 間以藤造, 搥搗皆滑膩, 高下數等.” (徐兢, 『高麗圖經』)

143) “而我東紙品, 古有繭紙, 名重天下矣. 自昔不用他料, 但取楮穀. 而以繭名紙者, 楮紙之堅厚潤滑如繭, 故稱以繭紙者也.”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다.[144] 애초부터 조선을 명나라 변방의 작은 나라로 설정해 문장의 기조를 정한 것이다. 동월은 조선을 관찰하여 기록하면서, 조선을 바라보는 천자국의 시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성불령 웅장한 관문에 내버린 돌이 층층이 쌓여 있는데
> 북으로 자비령에 이어지고, 남으로는 발해에 임하네.
> 이전 원나라는 이곳을 구획하여 경계로 삼았고,
> 국조에 와서 바깥이 없음을 보였네.
> [성불령은 북으로는 산을 베고, 남으로는 바다를 베고 있다.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면 구름 밖에 높이 솟아 있다. 어떤 관문 어귀에 옛날에 만든 추성의 네모난 돌 몇 무더기가 있다. 어떤 통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북쪽이 곧 자비령으로 원나라 때에 이곳을 그어 경계로 삼았는데, 여기가 바로 그 관문 입구다."라고 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압록강에서 동으로 평양에 이르기까지 다 원나라 경계 안쪽의 땅이니, 조선이 통치하는 8도 중에서 그 한 도 남짓이 없어진 것이다. 우리 성조가 모두 조선에 돌려주었으니, 마땅히 공순히 예를 행하여 예전(원나라)에 비해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성불령은 황주에 속한다.][145]

여기서 동월은 자비령을 소개하였다. 1269년에 고려의 신하인 李延齡 등이 西京 이하 60성을 들어 원나라에 귀부하자, 원나라에서는 이로 인하여 동녕로를 설치하고는 자비령을 경계로 하였다. 『해동역사』에서 韓鎭書의 학설로 "자비령은 瑞興府에서 서쪽으로 60리 되는 곳에 있는데, 평양에서 京都로 통하는 옛길이다"[146]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경도(京都)'는 당시 중국의 수도를 가리킨다. 『대명일통지』에는 "자비령은 평양성에서 동쪽으로 160리 되는 곳에 있다. 원나라 때에는 이곳을 그어 경계로 삼았다"[147]라고 했다.[148] 『대명일통지』에 실려 있는 조선의 산 이름 가운데에서 평안도 지역은 특별히 상세한데, 이는 대개 원나라 때 이 지역이 동녕로에 속

---

144) "睠彼東國, 朝家外藩." (동월, 「朝鮮賦」)

145) "成佛雄關, 棄石磊磊. 北接慈悲, 南臨渤澥. 在前元則畫此為界, 至國朝乃示以無外也.[成佛嶺北枕山, 南枕海. 山巔睥睨, 高出雲表. 一關口棄舊時所伐甃城方石數堆. 詢之一通事, 云其北即慈悲嶺, 元時畫此為界, 此即其關口. 若然則自鴨緑江東抵平壤皆為內地,] 而朝鮮所統之八道, 已去其一道餘矣. [我聖祖則盡以界之, 宜其恭順秉禮, 視古有間也. 嶺屬黃州.]" (동월, 「朝鮮賦」)

146) "鎭書謹按, 慈悲嶺在瑞興府西六十里, 自平壤通京都舊路也. 元時畫此爲界." (『해동역사』 속집13권 地理考)

147) "慈悲嶺在平壤城東一百六十里, 元時畫此爲界." (『大明一統志』 권89)

148) 자비령은 巴嶺이라고도 한다. 『中州集』 에서 王寂의 '송장중모사삼한시(送張仲謀使三韓詩)'에 이르기를, "압강에선 도엽이 아침에 건너는 걸 맞이하고, 파령에선 송화로 밤중에 탕 끓이리라.[鴨江桃葉朝迎渡 巴嶺松花夜煮湯]"라고 했는데 여기의 '巴嶺'이 곧 자비령이다.

하여 산천의 이름이 원나라의 版圖에 실려 있으므로『대명일통지』를 찬수하는 자가 상세하게 실을 수 있었던 것이다.[149]

동월은 한편으로 통사의 증언을 근거로 원나라 때에 자비령을 구획하여 경계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는 압록강까지 원래 중국의 땅이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렇다면 압록강부터 평양까지 다 중국의 땅이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조선의 8도 중에서 한 도인 평안도는 없어질 것이다. 이에 동월은 명이 조선의 국토를 회복시켜 준 것에 대해 조선에서 고맙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뒷글에서 隋唐이 高句麗와 전쟁을 벌인 일을 우회적으로 비판할 때도 다시 확인된다.[150] 여기서 동월은 영토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천자국의 사신으로서 조금이라도 명의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강한 민족의식을 내비친 것이다.

이와 같은 동월의 강한 민족의식은 箕子廟의 풍경을 묘사한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동월은 사행을 가기 전에 단군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사행 여정 중 주동적으로 기자묘를 참배하고 싶다고 제안하였다.[151] 동월은 명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력한 민족의식을 드러내면서, 고조선을 세운 단군보다 단군의 대를 잇고 왕업을 전한 중국인 기자를 정통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152] 그리고 동월은 기자묘를 참배한 후 단군의 사당도 배알했으나「조선부」의 본문에서는 아예 단군묘의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153] 自註에서 단군묘가 기자 사당 동쪽에 있고 안에 나주 신주가 있다고만 간단하게 소개할 뿐이었다. 반면 기자묘에 대해서는 그 위치, 묘의 石像의 모습, 절하는 자리를 마련한 정자, 좌우에 벌여 있는 石羊이 꿇어앉아 젖 먹이는 디테일까지 일일이 본문에서 서술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의 근본인 기자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조선 사람들의 뜻과 달리 실제 행태는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154]

무엇보다 동월은 조선의 풍토물정을 설명할 때 항상 중국과 비교하여 기술하는

149) "明統志之載我邦山名, 特詳於平安道. 而每云州屬東寧路. 蓋元時岊嶺 以北屬於東寧路東寧路. 山川名號載於明版圖, 故纂明志者得以詳載爾."(『해동역사』 속집13권 地理考)

150) "蓋惟不蹈前人之覆轍, 所以獨蒙昭代之深恩也."(동월,「朝鮮賦」)

151) "正使曰:'箕子之墳與廟在乎? 吾等欲拜焉.'答曰:'墳則遠在城外, 今不可到, 廟則在城內矣.'曰:'然則當謁廟矣.'卽詣箕子廟, 行拜禮. 出廟門, 指檀君廟曰:'此何廟乎?'曰:'檀君廟也.'曰:'檀君者何?'曰:'東國世傳, 唐堯卽位之年甲辰歲, 有神人降於檀木下, 衆推以爲君. 其後入阿斯達山, 不知所終.'曰:'我固知矣.'遂步至廟, 行拜禮."(『성종실록』 1488년 3월 3일 2번째 기사)

152) "東有箕祠, 禮設木主, 題曰朝鮮後代始祖, 蓋尊檀君為其建邦啟土, 宜以箕子為其繼世傳緖也."(동월,「朝鮮賦」)

153) 위와 같다.(『성종실록』 1488년 3월 3일 2번째 기사)

154) "東有箕祠, 禮設木主, 題曰朝鮮後代始祖, 蓋尊檀君為其建邦啟土, 宜以箕子為其繼世傳緖也. 墓在兔山, 維城乾隅. 有兩翁仲, 如唐巾裾. 點以斑爛之苔蘚, 如衣錦繡之文襦. 左右列以跪乳之石羊, 碑碣馱以昂首之龜趺. 為圓亭以設拜位, 累亂石以為庭除. 此則其報本之意雖隆, 而備物之禮亦疏也."(동월,「朝鮮賦」)

방식을 취했는데, 이러한 방식도 그의 저술 입각점을 내비친다. 특히 제도, 예의, 궁중 음식에 관한 부분을 논할 때 종종 중국에 있는 것과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편폭의 제한이 있어 「조선부」의 일부만 인용해 설명하도록 한다.

> 탕을 한 번 올릴 때에는 수가 반드시 다섯 사발이 되도록 하고,
> 그릇을 포개어 쌓을 때에는 높이가 한 자를 넘지 않게 한다.
> [왕은 스스로 올리지 않는데, 이것은 중국과 다르다.]
> [그 밥상은 매우 작은데, 구운 음식을 올리는 것이 많으면 포개어 쌓는다.][155]

> 사람은 반드시 스물네 명이 한 가마를 메는데
> 삼십 리도 못 가서 또 백 사람을 바꾸니,
> 대개 무거운 것은 모두 어깨에 질 수가 없으므로
> 마땅히 이렇게 하여 모두 손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다.
> [가마 하나에 앞뒤로 전부 24명을 쓰고, 곁에서 붙잡는 사람이 바깥쪽에도 있다. 가마는 중국의 교의와 같으나 다리가 짧고, 좌우에 두 개의 긴 가마채를 끼운 것도 중국의 제도와 같다.(후략)][156]

동월은 특히 전통적인 전례나 의식주에 관한 내용을 기술할 때 늘 중국과 연관하여 서술하였다. 첫 번째 인용문은 탕을 올릴 때와 그릇을 포개어 쌓을 때의 제도를 설명하였다. 국을 한 번 올릴 때에는 다섯 사발로 올리고 그릇을 포개어 쌓을 때에는 높이가 한 자를 넘지 않는다. 뒤에 자주를 붙여 이는 다 중국의 禮制와 같으나 왕이 스스로 올리지 않는 것만 중국과 다르다고 하였다. 두 번째 인용문은 조선 사람이 가마를 타고 출행하는 모습을 기술하였다. 여기서도 중국의 가마와 비교하여 다른 점을 지적하였다. 가마는 중국의 교의와 같은데 다리가 짧고, 좌우에 두 개의 긴 가마채를 끼운 것도 중국과 같다고 하였다. 동월이 이렇듯 자주 조선의 것과 중국의 것을 연관시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은 것은 조선이 명을 천자국으로 삼아 항상 우러러보며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도박금지와 제사를 중요시하는 미풍양속을 소개할 때도 동월은 "이는 다 기자로부터 그 풍습이 전해 내려온 것이고 또 중국에서 하는 것을 보고 본받은 것이다."라고 감탄하였다.[157]

---

155) "湯一進必以五碗為數, 器累迭不以盈尺為高. [王不自進, 惟此禮與華不同.] [其食案甚小, 燔炙之進既多, 則累而迭之.]" (동월, 「朝鮮賦」)

156) "人必三八乃舉一輿, 行不一舍又易百夫. 蓋於重, 皆不能以肩任, 宜於此, 皆以手舉扶也. [一輿前後通用二十四人, 扶翼者又在外. 其輿如華之交椅而足短, 左右夾二長杠, 亦輿華制同.(생략)]" (동월, 「朝鮮賦」)

157) "至若家不許藏博具, 祭則皆立家廟. 大夫乃祭三代, 士庶則止祖考. 此皆自箕子而流其風韻, 而亦視中國為之, 則傚也." (동월, 「朝鮮賦」)

주인이 손님에게 잔을 드릴 때에는 늘 중화의 禮儀를 따르고,
손님이 주인에게 잔을 되돌릴 때도 연회의 의식을 따른다.
[음식을 진열한 것이 다섯 겹인데, 모두 과실은 넣지 않는다. 꿀에 쌀가루를 섞어 방형이나 원형의 약과를 만들고 기름으로 지져 올록볼록하게 한 다음 첩첩이 쌓아 올린 것이 높고 커서 한 자쯤 된다. 여기에다 白銀이나 白銅으로 八角의 테두리를 두르고, 푸른 구슬을 치장한 그물로 엮는다. 그 위에 푸른 비단을 잘라 네 개의 花葉을 만들고, 또 붉은 비단을 잘라 네 개의 화판을 만드는데, 화판마다 백동으로 두르고 작은 못으로 매어 놓아, 마치 중국의 珍珠花 같다.][158]

여기서는 궁중 연향의 장면을 묘사하였다. 시작부터 중국의 예의를 따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제도를 기준으로 조선의 전례 제도를 묘사하였다. 뒤에 붙은 자주에서는 장식된 음식이 중국의 珍珠花와 같다고 하였다. 明末淸初의 원예 학자 陳淏之가 『花鏡』 卷五 <藤蔓類考>에서 "진주화는 옥설이라고도 한다. 그의 잎은 금작화와 같고 지간이 길고 크다. 3월 4월에 작은 흰 꽃이 피어 가지 위에 매달린 것이 촘촘하여 '婁'자 모양을 하고 있다. 패루화라고도 한다."[159]라고 했다. 조선이 음식을 담는 방식은 중국과 다르다. 동월은 이를 설명하면서 역시 중국을 기준으로 삼아 중국의 비슷한 것을 먼저 머리에 떠올렸다.

이와 같은 태도는 궁실의 제도를 기술한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선 궁실의 제도는 중국과 같은데 문무와 편전의 기와는 중국의 관공서 지붕을 덮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160] 그리고 연향 음식을 기술할 때 자주를 붙여 중국의 쌀떡과 蓼花餠 같은 것도 있다는 것을 보충 설명하였다.[161]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조선부」의 이 부분을 인용해 튀밥에 붉은 물을 들여서 비녀 모양으로 만든 떡에다 엿을 바른 것을 蓼花餠이라 부르는 것은 중국에서 기인한 것임을 고증한 바 있다.[162]

그러나 동월이 조선의 모든 것을 무조건 중국의 것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동월은 조선의 특이한 장사 풍속을 기록하면서 조선이 변방 이민족이라 그 풍속이 깊이 생각하고 따지지 않는다고 무시하며 조선을 깔보았을 때도 있지만,[163]

158) "主獻賓一以華禮, 賓酢主亦用燕儀(중략)[其列五重, 皆不用果實. 以蜜和面, 為方圓餠餌, 油煎之, 頓挫. 周遭玲瓏, 迭累高大至尺許. 衛以白銀或白銅八角闌幹, 綴以綠珠之網. 其上剪綠羅為四花葉, 又剪紅羅為四花瓣, 每瓣周遭以白銅, 小釘綴之, 如華之珍珠花樣...(생략)]" (동월, 「朝鮮賦」)

159) "珍珠花一名玉屑. 葉如金雀而枝幹長大, 三四月開細白花, 皆綴於枝上, 繁密如婁字狀, 名孛婁花." (陳淏之, 『花鏡』 卷五 「藤蔓類考」)

160) "宮室之制, 與華亦同. 其塗皆丹, 其覆皆甋.[國無銀朱, 以丹代之. 桐油亦無.][門廡便殿, 皆用甋瓦, 如中華公署所覆者.]" (동월, 「朝鮮賦」)

161) "間殽羞以糝食, [亦能為華之米糕蓼花之類.]" (동월, 「朝鮮賦」)

162) "或紅染糳米又作餠. 如釵股用餳粘着者, 曰蓼花餠. 以其形似而命之也. 董越朝鮮賦'間肴羞以糝食, 自註: 亦能為華之米餻蓼花之類.' 然則蓼花之稱起自中國矣." (이익, 『성호사설』)

163) "貧則皆葬山椒, 貴乃卜宅郊原. 此皆出殊方異俗, 而不必深考細論也." (동월, 「조선부」)

조선의 연향에서 안주와 탕을 두 번 올려놓을 자리가 없으므로 책상에 있는 것을 거둬 자리 사이의 땅에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164] 조선은 중국과 다른 나라이니 조선의 풍속이 그러하다고 이해하였다. 또한 동월이 비록 조선을 천자국 명나라의 종속으로 생각했지만 조선에게서 배울 만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 그 가장 이를 만한 것은 나라에 여든 살 된 노인이 있으면 남녀 모두에게 잔치를 하사하여 그 은혜를 널리 베푼다. [해마다 늦가을에 왕은 여든 살 넘은 노인들에게 대전에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왕비는 여든 살 넘은 부인에게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어준다.][165]

조선에서 노인을 존경하여 매년 80세 된 노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풍속을 기록한 부분이다.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동월의 「조선부」를 인용해 "조선 초기의 법은 80세가 된 노인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나라에서 잔치를 벌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헛말이 아니다"라고 하며 양로 제도를 다시 시행하여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166] 정약용의 『牧民心書』에서도 양로 제도에 관해 「조선부」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國初에는 해마다 80세 된 노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상례로 했기 때문에 동월의 賦가 이와 같았다고 하여 지금 국가의 財力이 부족한데 養老宴 참여의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되고 80세 이상만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7] 동월은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룰 만한 것이라고 여겨 조선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풍속을 칭찬하며 인정하는 태도를 내비쳤다.

동월의 조선 인식은 또한 외교 현장의 전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조선부」는 사행의 결과물로, 천자국을 대표하는 명 사신이 조선과의 교섭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이에 「조선부」의 묘사를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비교해 당시 사행 현장을 재현하고 이를 통해 15세기 말 조선과 명의 외교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64) "几案不容, 則徹於蹈籍之席. 腥膻既飫, 乃進以澗沚之毛. [肴羞與湯再進, 則無容處, 以几案上者, 徹置席間之地, 此則其國俗然也.]" (동월, 「조선부」)

165) "其最可道者, 國有八十之老, 則男女皆錫燕以覃其恩. [每歲季秋, 王燕八十之老人於殿, 妃燕八十婦人於宮.]" (동월, 「조선부」)

166) "國初之法, 八十之老男女皆錫宴以覃恩. 每歲季秋, 王燕八十之老人, 妃燕八十婦於宮, 亦見於朝鮮賦, 殆非虛傳也. 余少時里中人歲末為洗鋤宴, 為農已成也. 余亦往觀既在衆聚之中, 各自斂筋秩秩有禮, 比士族之會反有勝似者. 至以次起舞老者就列, 則其族黨子弟年少者不敢居位, 避席拱立. 其失禮者有公言一員輒咎罰之. 至樂作村篋杖鼓盡歡而罷. 俗鄉尚然, 況國家行此其為興動為如何哉." (이익, 『성호사설』)

167) "選男子八十以上與宴. 八十以上, 其饌四豆, 餠羹之外其楪四. 九十以上, 其饌六豆也. 禮曰, 六十者三豆, 七十者四豆, 八十者五豆, 九十者六豆. 鄉飲酒之法, 今檃括如是也. 衰病不能來者, 歸饌于其家. 如有百歲者, 是日牧以八豆之饌, 遣首鄉, 躬獻于其家. 董越朝鮮賦云, 國有八十之老, 則男女皆錫燕, 以覃其恩. 自註曰: 每歲季秋, 王宴八十老人於殿, 妃燕八十婦人於宮. 國初歲以爲常, 故董賦如此." (정약용, 『牧民心書』, 「力詘而擧贏, 不可廣也, 宜選八十以上.」)

「조선부」에서는 迎詔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며 “왕은 몸을 구부리고, 세자와 배신들은 좌우에서 부축한다.”라고 했다.[168] 이를 통해 迎詔했을 때 세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미래의 군주가 될 사람으로서 영조 의식을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당시의 迎詔 의식은 세자의 참석과 관련해 작은 풍파가 있었다.

동월이 왕경에 도착하기 전에 성종이 세자의 영조 의식 참석 문제에 관해 신하들과 논의한 일이 있었다. 성종은 세자가 이제 가례를 치렀고 또 朝賀·조참에도 참여하였으니 영조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세자가 아직 연소하니 실례되는 일이 생길까 봐 영조를 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169] 그래서 儀註에는 세자가 조명을 맞이하는 의식이 갖추어 등재돼있음에도 사신에게는 세자가 병 때문에 詔勅을 맞이하는 일에 出迎할 수 없다고 고하였다. 그러나 동월 일행은 왕세자가 병을 핑계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왕세자가 迎詔를 참석하지 않는다면 의주에서 세자 행례 절차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170]

이 사례를 통해 조선이 명 사신을 대접할 때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알 수 있다. 사신이 오기 전에 영조의 절차를 고려하여 어린 세자가 영조 의식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 천자국에 대해 충실해야 하니 예를 따라 이미 가례를 치른 세자의 이름은 儀註에 등재하였다. 그러나 명 사신을 접대한 경험이 많은 성종은 연소한 세자가 사신 앞에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할까 염려해 세자를 영조에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결국에 세자의 영조 문제는 儀註에 등재한 것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명 사신의 요구 하에 詔勅을 맞이하는 일에 出迎하였다. 다시 말해 성종이 세자를 영조에 참여시키지 않으려 한 것은 아직 몽매한 세자가 명 사신에게 불경하게 행동할까 염려해서 내린 결정이고, 결국에 세자를 영조에 참여시킨 것도 명나라를 존경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동월 일행이 세자가 영조하는 일을 반드시 의주에 기록한 것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원칙을 고집한 것은 한편으로는 명나라가 예를 따라 행동함을 보여 주려고 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자국의 위엄을 떨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부」에서

168) “詔至殿廷, 王則傴僂. 世子陪臣, 左右夾輔.”(동월, 「朝鮮賦」)

169) “禮曹正郎權景祐將堂上議來啓曰: “前者世子未嘉禮, 故於儀註不載世子迎詔之禮, 天使若問, 則以病未迎詔, 權辭答之. 今嘉禮已成, 又參於朝賀朝參, 則迎詔之禮, 何以處之?” 傳曰: “世子嘉禮, 當以實對. 若迎詔, 則世子年少, 相接之際, 恐或失禮. 然於儀註備錄世子迎詔之儀, 天使若問世子迎詔與否, 以病爲辭何如? 其問于政丞." 尹弼商, 李克培, 盧思愼啓曰: “上敎允當.” 克培又啓曰: “不待天使之問, 先以病未迎詔言之乃可.” 洪應啓曰: “世子年幼, 接待天使雖錯於禮, 天使必不譏之, 反以國本有儲爲美也. 臣意世子迎詔亦可.” 傳曰: “予累接天使, 猶慮其失禮, 況世子年少, 豈無失禮事乎? 姑勿迎詔.”(『성종실록』 1488년 2월 21일.)

170) “命奉禮權景禧, 以世子不豫未得出迎詔勅事, 告于天使. 景禧往告之, 天使曰: “審如此, 則儀註何備錄王世子行禮節次乎? 且何不早言之乎? 是必托病也.” 景禧曰: “若托病, 則於儀註, 初何備錄乎? 且安有托病之理乎?” 天使曰: “然則行禮節次, 不可錄於儀註, 朝廷豈知有王世子乎? 儀註內行禮節次, 削之可也.”(『성종실록』 1488년 3월 13일.)

는 세자의 영조 참여 문제에 관한 조선 조정과의 우여곡절을 기록하지 않고 조선국왕과 세자, 그리고 배신들이 공경하게 조칙을 맞이하는 장면만 간단하게 묘사하였다. 조선이 명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은 의당 그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닐까 싶다.

조선 왕이 勅書와 詔書를 맞이할 때의 예를 두고도 조선-명나라 간에 논쟁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동월은 예를 따라 조선 왕이 勅書와 詔書를 맞이할 때 輦을 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개진하였다.[171] 심지어 조선 대신과 영조 예의 문제에 관해 논쟁했을 때는『大明集禮』를 꺼내들고서 예를 따르느냐 마느냐는 명나라를 존경하는지 여부의 문제인 것임을 강조했다.[172] 조선의 朝廷 대신들은 모두 격렬하게 반발하였지만 결국 동월의 요구에 응하여, 성종이 조서를 맞이할 때에는 輦을 타고, 칙서를 맞이할 때에는 말을 타기로 결정하였다.[173] 이에 관해「조선부」에서는 언급이 전혀 없고 단지 "조선 국왕이 곤룡포에 면류관 차림으로 교외에 나아가서 맞이한다."[174]라고 적었다. 이는 조선이 명을 떠받들어 섬긴 것만 드러내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명나라와 조선 간의 의좋은 외교 관계를 강조하려고 해서 美化했다고 볼 수도 있다. 어느 쪽이건 조선 국왕의 영조에 대해 양측이 상이한 의견이 있었던 것은 결국 다 예의를 중요시해서 생긴 異見이다. 명과 조선은 다 禮儀之國의 명호를 자랑으로 여겨 예법에 맞는지에 대해 특별히 조심하였다. 양국이 은근히 禮儀之國의 자존심을 걸고 겨루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171) "李克培, 魚世謙, 李克墩, 蔡壽等請親啓乘馬迎勅不便事. 上卽引見, 克培等啓曰: '自祖宗以來, 詔勅一時迎之, 其來已久. 今次使臣偏執所見, 初則令乘馬迎詔勅; 中則令乘輦迎詔, 乘馬迎勅, 分而兩之; 終則欲留勅於郊外, 先行頒詔, 是委君命於草野也.『大明集禮』迎詔、迎勅儀, 雖各有之, 然迎詔爲重, 而迎勅爲輕, 迎詔時竝迎勅書, 就重行輕, 甚合於禮. 遣大臣, 更以此意譬曉何如?' 上曰: '知道.' 克培等出, 命遣李克墩往告天使曰: '迎詔、勅一時行之, 其來已久, 然大人力言不可, 故欲從之. 今更思之, 詔勅一時俱至, 獨迎詔書而留勅於郊外, 恐爲不可. 兩大人奉詔而來, 使頭目守勅書及賜物, 於禮何如? 且迎詔, 盛禮也; 迎勅, 殺禮也. 詔與勅, 兩大人旣一時受來, 則於頒詔盛禮, 幷授勅書, 甚合於禮. 故敢請.'"(『성종실록』 1488년 3월 13일.)

172) "李克墩回啓曰: '臣以上敎, 告于兩使, 語未畢, 兩使遽以『大明集禮』示臣. 臣覽訖, 告之曰: '是迎詔、迎勅兩般儀註也. 若只行迎詔, 則用迎詔儀; 只行迎勅, 則用迎勅儀, 當矣. 今則詔、勅, 大人一時受來, 就頒詔時幷傳勅書, 無可疑也.' 副使曰: '本國素秉禮義, 而不遵朝廷儀註, 其敬朝廷之意安在? 吾等到此不得擧行朝廷儀, 則朝廷謂我等何? 吾等之尊敬朝廷, 猶爾國臣民之尊敬國王也. 吾等知有天子, 不復知有國王也. 若以留勅於郊外爲不可, 則迎詔、迎勅二事, 可於今日行之矣. 以今日爲晩, 則明日行之無妨.'"(『성종실록』 1488년 3월 13일.)

173) "上遣右承旨李季男告天使曰: '詔、勅久留草野, 於心未安. 當從大人之敎.' 俄而季男回啓曰: '臣以上敎告天使, 天使頗有和色, 曰: '聞殿下多讀書知禮, 朝中大臣亦有知禮者矣. 迎詔、勅兼行有前例, 殿下欲從前例, 是也, 今見儀註, 卽變而通之, 亦是也. 可謂賢王矣. 吾等奉詔書以入頒詔, 殿下受詔, 禮畢, 吾等還出, 殿下亦出, 乘馬導勅書以入, 受勅, 禮畢後, 行相會禮可也. ' 臣答曰: '殿下業已處之矣.'"; "申時, 天使奉詔、勅至慕華館. 上具冕服出迎. 天使奉詔、勅, 各置龍亭, 其勅書留于帳殿. 上導詔書, 乘輦先行, 天使乘馬, 隨詔書而行. 至景福宮, 頒詔如儀."(『성종실록』 1488년 3월 13일.)

174) "王則袞冕郊迎."(동월,「朝鮮賦」)

조선이 명나라를 지성으로 섬기는 태도는 「조선부」에서 사신에 대한 예우를 묘사하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닭이 울면 문안하는 사자가 와서 문안하고
말을 타고 나가면 길옆에서 망아지가 우네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심부름을 해 주고
종이와 먹이 있어서 창수하는 데 이바지하네.
대개 천자를 공경하여 반드시 그 사신에게까지 미치므로
예를 행함에 있어서는 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네."[175]

여기서 동월은 조선이 명 사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날이 밝으면 사신에게 문안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사신을 도와주고 差遣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창수할 때 필요한 종이와 먹 같은 물품도 다 제공되었다. 『典錄通考』 禮典에서 "중국 조정의 사신은 원접사를 義州에 보내고, 선위사를 5곳에 보내어 모두 2품 이상이다. 영접하고 잔치를 열어 위로한다. 선위사는 나중에 영위사로 고쳤다. 都司가 사신을 따라서 오면, 3품의 당상관을 보내어 위로한다. 중국에 파견된 사신이 돌아올 때 요동의 護送官에게도 잔치를 열어 위로한다."[176]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5곳에 보내는' 선위사는 黃州迎慰使, 平壤迎慰使, 安州迎慰使, 定州迎慰使, 義州迎慰使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중국 사신을 대접하는 조선 관리로는 平壤府問安假承旨, 開城府問安假承旨가 있다. 황주 영위사, 평양 영위사, 안주 영위사, 정주 영위사, 의주 영위사와 평양부 문안 가승지, 개성부 문안 가승지는 모두 도내의 품계가 높은 수령을 實差와 預差로 차출하되 직함을 임시로 쓰게 하여 차출하고, 영위사는 이조에서 차출하되 六曹의 參判이나 亞尹의 직함을 임시로 쓰게 하고, 문안 가승지는 승정원에서 차출하되 우부승지나 동부승지의 직함을 임시로 쓰게 한다.[177] 다시 말하면 조선은 직위가 높은 신하를 보내 사신을 대접하고 생활의 각 방면에서 사신을 편리하게 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씀으로써 중국 조정을 향한 정성과 공경을 드러낸 것이다.

요컨대 「조선부」의 기술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이

175) "鷄鳴則候問安之使, 騎出則鳴夾道之駒. 有緝御以給使令, 有楮墨以供唱酬. 蓋敬主必及乎使, 而爲禮不得不優也." (동월, 「朝鮮賦」)

176) "朝廷使臣, 則遣遠接使于義州, 宣慰使于五處竝二品以上. 迎送宴慰. 宣慰後, 改迎慰. 都司隨使臣來, 則遣三品堂上官, 宣慰. 赴京使臣還時, 遼東護送官, 亦宴慰." (『典錄通考』 禮典)

177) "黃州, 平壤, 安州, 定州, 義州迎慰使及平壤, 開城府問安假承旨, 竝以道內秩高守令實預差, 借銜差下, 迎慰使, 吏曹差下, 六曹參判及亞尹借銜; 承旨本院差下, 右副同副借銜. 御帖及空名帖, 遠接使齎傳. 若除京外宴享, 則迎慰使中, 別問安使差下, 致謝於義州黃州. (『銀臺條例』)

명나라 사신을 대접할 때는 언제나 '事大之禮'를 원칙으로 삼아 천자국을 대표하는 사신을 존경하고 우대하였다. 조칙을 맞이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의가 있었지만, 조선은 진지한 성의를 보여주었고, 동월 일행도 충분히 존중의 태도를 드러내었다. 이상 살펴본 것을 통해 15세기 말 조선과 명나라가 맺은 우호 외교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이 粉飾과 美化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사행체험을 미화하는 서술이 많고, 사행 과정에서 불거진 외교적 마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조선부」의 사료적 가치를 평가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요컨대 「조선부」의 기록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조선부」 저술은 모두 동월이 직접 경험한 것과 기억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부사 왕창의 기록과 대비하여 교정하고, 어떤 때는 확실한 답을 얻으려고 직접 실험까지 하였다. 그만큼 「조선부」는 사실에 근거하여 창작된 작품인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부」 속에 기재되어 있는 조선의 사정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월은 조선이 오랑캐와 달리 예의 제도가 중화를 많이 따라 명의 종속국 중에 제일 문명을 숭상한 국가인 것으로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조선이 중국이랑 대등한 문명 대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조선의 모습을 기술할 때 항상 明을 기준으로 삼아 조선을 바라보면서 조선을 명나라의 울타리라 여기고, 조선의 태평성대는 명나라 황제의 은택 덕분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는 동월의 강력한 민족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신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고자 했던 책임감, 그리고 천자국의 사신으로 가진 자부심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賦로 쓴 조선 풍물지

「조선부」는 도입부에서 조선의 위치, 지형, 행정구역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조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어서 조선의 교육, 과거, 무역, 토지, 경로, 향음주례, 혼례, 상례, 도박, 제사 등 제도와 풍속에 대해 서술하여 조선의 人文風情을 묘사하였다. 그 다음 의주부터 한양까지 오는 길에 본 경치와 견문을 서술하고, 한양에서의 사행 임무 수행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으며, 이어 사신 접대와 관련한 백희가무, 조서 頒布 의식, 宴饗 등을 일일이 묘사했다. 마지막으로는 당시 사행을 회상하며, 조선의 학제, 한강의 경치, 도성 안의 건축물, 사람의 복식과 생활상, 물산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1) 지리와 풍물의 소개

① 地理

동월은 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앞선 문헌을 많이 참조했지만 답습하지는 않았다. 옛 기록에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은 간략하게 서술하고, 간단히 언급된 내용은 세세히 설명하였다. 『고려도경』에서 城邑, 封境 등의 항목을 두어 조선의 지리적 위치를 자세히 묘사하고 고려의 인접국, 海道, 강, 東南西北 접경 등을 일일이 소개하였던 것과 달리,[178] 「조선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짧은 구절로 조선의 위치와 지형, 행정구역을 간단명료하게 소개하고 지역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저 동국을 돌아보건대 중국의 바깥 울타리라
서쪽은 압록강에 막히고, 동쪽은 부상에 닿아 있는데.
바다는 남문이 되고, 靺鞨이 그 북문이 된다네.
[그 나라의 동과 남이 다 바다와 닿고 서와 북은 건주고, 정북은 毛鄰과 海酋다]
팔도의 구역 중에 경기가 홀로 높은데 충청, 경상, 황해, 강원이 날개가 된다. 이름을 永安이라고 한 것은 국경을 견고히 안정되게 하고자 함이요[영흥과 안변을 합친 것인데 동월이 잘못 안]]. 평안은 땅이 조금 척박하고, 전라는 물산이 가장 풍부하다.
[경기, 충청, 경상, 황해, 강원, 연안, 평안, 전라는 다 도의 이름이다. 평안은 곧 옛날 변한의 땅이며, 경상은 곧 옛날 진한의 땅이며, 전라는 곧 옛날 마한의 땅이다.]
그 너비는 2천 리요, 길이는 너비의 두 배가 된다.
[그 나라는 동서 2천 리, 남북 4천 리라고 지서에 이른다.]
옛날에는 서너 나라로 봉해졌는데, 지금은 하나로만 남았다네.
[신라, 백제, 탐라가 지금은 다 소유가 되었다.][179]"

---

178) 高麗, 南隔遼海, 西距遼水, 北接契丹舊地, 東距大金, 又與日本, 流求, 聃羅, 黑水毛人等國犬牙相制. 唯新羅, 百濟不能自固其圉, 爲麗人所幷. 今羅州廣州道是也. 其國在京師之東北, 自燕山道, 陸走渡遼. 而東之其境, 凡三千七百九十里. 若海道則河北, 京東, 淮南, 兩浙, 廣南, 福建皆可往. 今所建國, 正與登萊濱棣相望. 自元豐以後, 每朝廷遣使, 皆由明州定海, 放洋絶海而北. 舟行皆乘夏至後南風. 風便不過五日卽抵岸焉. 舊封境, 東西二千餘里, 南北一千五百餘里, 今旣幷新羅, 百濟, 東北稍廣. 其西北與契丹接連, 昔以大遼爲界, 後爲所侵迫. 乃築來遠城, 以爲阻固. 然亦恃鴨綠以爲險也. 鴨綠之水原出靺鞨, 其色如鴨頭, 故以名之. 去遼東五百里, 經國內城, 又西與一水合, 卽鹽難水也. 二水合流, 西南至安平城入海. 高麗之中, 此水最大, 波瀾淸澈, 所經津濟, 皆艤巨艦, 其國恃此以爲天塹. 水闊三百步, 在平壤城西北四百五十里, 遼水東南四百八十里. 自遼已東, 卽舊屬契丹, 今虜衆已亡. 大金以其地不毛, 不復城守, 徒爲往來之道而已. 鴨綠之西, 又有白浪, 黃嵒二水. 自頗利城行數里, 合流而南, 是爲遼水. 唐正觀間, 李勣大破高麗於南蘇. 旣渡, 怪其水淺狹. 問之, 云是遼源, 以此知前古未嘗恃此水以爲固. 此高麗所以退保鴨綠之東歟. (徐兢, 『高麗圖經』)

179) "睠彼東國, 朝家外藩, 西限鴨江, 東接桑暾. 天池殆其南戶, 靺鞨為其北門. [其國東南皆際海, 西北為建州, 正北為毛鄰海酋.] 八道星分, 京畿獨尊, 翼以忠淸慶尙, 黃海江原. 義取永安, 意在固垣. 平安地稍瘠薄, 全羅物最富繁. [京畿忠淸慶尙黃海江原永安平安全羅, 皆道名. 平安即古弁韓地, 慶尙即古辰韓地, 全羅即古馬韓地.] 其袤也道里二千, 延則加倍. [其國東西二千里, 南北四千里. 誌書云.] 視古也國封三四, 今則獨存. [新羅百濟耽羅, 今皆為所有.]" (동월, 「조선부」)

그 다음 의주에서 한성까지 노정을 따라 沿途의 역관과 산천을 기록하였다. 「조선부」에 기록된 역관은 義順館, 新安館, 安興館, 肅寧館, 安定館, 生陽館, 劍水館, 龍泉館, 寶山館, 金巖館, 太平館, 碧蹄館, 慕華館 총 13개가 있고, 山은 龍虎山, 熊骨山, 天馬山, 鳳頭山, 錦繡山, 魯陽山, 蔥秀山, 兔山, 聖居山, 松嶽山, 天魔山, 三角山, 南山 총 13개가 있다. 江은 鴨綠江, 大定江, 大同江, 淸川江, 博川江, 臨津, 延津, 漢江이 있다. 예겸은 『조선기사』에서 역관마다에서 발생한 일을 기록하였고 역관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적어 두었다. 역관에 도착했을 때 조선 관원들이 迎詔하는 장면, 宴饗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설명하였다. 동월은 예겸과 달리 역관에서 발생한 사사건건을 기록하지 않고 그저 왕도까지 가는 사행 길의 산천과 누대를 서술하였다. 노정과 유람한 명승고적을 기록하면서 간혹 토양의 특징 같은 세부 내용도 적었다. "조선의 토양이 많이 마르고 붉어 간간이 누런 흙이 있으나 또한 모래와 돌이 섞여 있다. 그러나 평양은 대부분 고을과 달리 평양성 가까이부터 흙이 차지다."라고 하여 이런 토양에서 어떤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자세히 기록하였다.[180]

② 歷史

「조선부」에는 조선 역사에 관한 언급이 자주 보인다. 그리고 역사를 설명할 때마다 천자국의 역할로서 중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예를 들면 조선의 聖敎를 설명할 때 自註에서 "중국이 고려국왕에게 귀뉴와 금인을 내려줘 조서로 스스로 성교를 이룸을 허락하였다."[181]라고 보충하였다. 그런가 하면 조선의 건국을 설명할 때에는 명나라 임금이 국호를 朝鮮으로 정해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182] 청천강을 소개할 때는 "이곳은 수나라 군사가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패한 곳이다"[183]라고 보충하였다. 이는 동월이 조선보다 높은 명나라의 천자국 지위를 과시하는 동시에 조선에게 명나라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는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80) "唯彼西京地最夷曠, 隨勢命名是曰平壤. (중략) 自餘諸州, 壤多燥赤, 間有黃壤, 亦雜沙石. 唯此近郭, 土則黏埴, 形存畎澮溝塗, 樹宜禾麻菽麥." (동월, 「조선부」)

181) "詔許建邦, 自爲聲敎.[本朝洪武二年, 高麗國王王顓表賀即位. 詔許自為聲教, 賜以龜鈕金印.]" (동월, 「조선부」)

182) "蓋王氏王此者 逾四百年, 至瑤昏迷, 始權知國事於李氏, 而名 「高麗」, 統此者易三四姓, 及旦得國, 乃請複舊號於朝鮮也. [本朝洪武廿五年, 高麗國王王瑤昏迷多殺, 失衆心, 國人乃共推門下侍郎李成桂權知國事. 遣其國知密直司事趙胖來請命. 後成桂更名旦, 且以易國號上請. 上曰東夷之號惟 『朝鮮』 最美且久, 詔改曰朝鮮. 既得命, 遂遷都今漢城府, 以此為留都云.]" (동월, 「조선부」)

183) "[安州城下瞰薩水, 上有百祥樓, 即隋師伐高麗時敗績處, 又名淸川江. 在城內有安興館.]" (동월, 「조선부」)

15세기 중국 사람의 조선인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로 箕子 관련 내용이다. 「조선부」의 첫 구절이 바로 "단군이 국가를 창시하고 기자는 수봉하였는데, 모두 평양을 수도로 삼았다(檀君肇國, 箕子受封, 皆都平壤)"이다. 조선에 온 중국 사신들이 箕子廟에 참배하고 글을 남기는 것은 당시 이미 관례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중국인들은 '조선'이라 하면 자연스럽게 箕子를 떠올렸는데, 이 점은 1488년 崔溥(1454~1504) 일행이 중국 땅에 상륙한 이후에 만난 중국인들과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부가 桃渚所에서 초등조서를 받고 健跳所에 이르렀을 때 張輔라는 사람을 만났다. 최부 일행의 도착을 전해준 장보의 子弟는 "오늘날의 조선은 옛날의 고려입니다. 箕子의 遺風이 남겨진 곳으로 우리나라 동쪽 울타리가 됩니다. 그 나라의 사람은 반드시 禮와 義를 잘 지킵니다."라고 장보에게 보고하였다.[184] 장보의 子弟는 조정의 대신도 아니고, 조선에 가 본 적도 없는 보통 사람이다. 이런 보통 사람도 조선 하면 箕子를 떠올렸던 것이다. 崔溥 일행이 紹興과 杭州를 거쳐 蘇州에 이르러 姓氏가 王과 宋인 按察御使가 禮賓館에서 최부를 대접했을 때도 箕子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185] 아마 조선을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관련된 것을 먼저 떠올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明 사신이 조선에 사행을 갈 때도 대체로 箕子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1450년 조선에 출사하였던 倪謙도 조선 문신 成三問(1418~1456)에게 "옛날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는데, 도읍한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186] 그리고 중국으로 귀국하는 도중 평양을 지나며 기자묘에 참배하였다. 1476년 조선에 출사하였던 祁順도 箕子廟에 참배하고 「寄題箕子廟」[187] 4수를 지었다.

동월이 조선에 머물렀을 때에도 역시 사신을 접대하는 조선 官員에게 자발적으로 箕子廟에 참배하고 싶다고 청하였다. 箕子廟에 관한 이야기를 「조선부」에 적어 둘 뿐만 아니라 「平壤城謁箕子廟」라는 시도 지었다. 箕子廟의 나무 신주에는 "조선 후대 시조"라고 되어 있고 단군 종묘의 나무 신주에는 "조선 시조 단군위"라고 되어 있는데 동월은 이것이 단군을 높이는 표현이므로 단군보다 기자를 높이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188] 뿐만 아니라 동월은 평양에서 본 井田을 소개할 때도 그것이 기자가 구획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조선의 문명·문화의 기원은 중국

184) "子弟邦職請曰: '今之朝鮮, 昔之高麗, 箕子之遺墟, 我之東藩也. 其人必能守禮持義.'" (崇禎『寧海縣志』 卷10, 藝文, 送朝鮮崔校理序.)

185) 『漂海錄』권 2, 2월 17일.

186) 『世宗實錄』, 1450년 윤1월 13일 기사.

187) 祁順이 쓴 「寄題箕子廟」는 『皇華集』에 수록되어 있다. 『足本皇華集』, 앞 책, 298~299쪽.

188) "東有箕祠, 禮設木主. 題曰「朝鮮後代始祖」. 蓋尊檀君為其建邦啟土, 宜以箕子為其繼世傳緒也. [檀君帝堯, 甲辰年開國於此, 後入九月山, 不知所終. 國人世立廟祀之者, 以其初開國也. 今廟在箕子祠東, 有木主, 題曰朝鮮始祖檀君位.]" (董越, 「조선부」)

의 箕子라는 중국인의 선입견 때문인 듯한데, 이를 통해 동월이 가지고 있던 천자국 사신으로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③ 物産

물산은 어느 곳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조선의 物産에 대한 서술은 「조선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날짐승, 길짐승, 해산물, 생선, 화초, 과일, 금속, 특산물 등 물산의 특징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그리고 「조선부」를 읽는 중국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선의 물산을 설명할 때마다 중국에 있는 것과 함께 비교했다. 동월은 「조선부」를 쓰면서 예상 독자로 중국인을 상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부분 중국 사람들은 조선에 가 보지 못했고, 조선의 물산을 본 적도 없었다. 그러므로 책을 통해 조선 물산을 처음 접한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 물산은 어떻게 생겼는지, 맛이 어떤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생산지는 어디인지, 중국에서도 나는 것인지 궁금해 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월은 「조선부」에서 익숙한 중국 물산과의 비교 서술을 통해 독자의 머릿속에 물산의 특징이나 구제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누치는 중화의 '붉은 눈 송어' 비슷하다[189]", "활은 중국에서 만든 것에 비하면 조금 짧지만 화살은 매우 잘 나간다[190]", "八梢는 곧 江浙 지역의 望潮다[191]", "고사리에는 푸른색과 자주색 두 가지 색의 고사리가 있는데, 중국에서 나는 것과 같다"[192]라 하였는데 각각 중국에 있는 물고기, 중국에서 만든 활, 중국 江浙 지역의 望潮, 중국의 고사리와 비교하여 조선의 누치, 활, 팔초어, 고사리를 생생하게 소개한 것이다.

조선 物産을 설명할 때마다 중국의 것과 대비하는 경향은 다른 사행록에서도 보인다. 『고려도경』에서 조선의 茶를 소개할 때 "土産茶는 쓰고 떫어 입에 넣을 수 없고, 오직 중국의 臘茶와 용봉사단을 귀하게 여긴다.[193]"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조선의 茶를 다루면서 중국의 차와 같이 비교하고 있다.

「조선부」의 物産에 관한 부분은 또한 옛 기록에서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은 간략하게 서술하고, 간단히 언급된 내용은 세세히 묘사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고려도경』에서 자세히 설명한 陶器, 陶爐, 藤篚, 鬻釜 등은 「조선부」에서 다시 췌언하지 않고, 『고려도경』에서 간단히 언급된 魚類, 식물, 가죽 등은 자세히 소개하였다.

189) "重唇如華之赤眼鱯." (董越, 「조선부」)

190) "弓比華制稍短, 然甚發箭." (董越, 「조선부」)

191) "八稍即江浙之望潮." (董越, 「조선부」)

192) "蕨有青紫二色, 與華之所出者同." (董越, 「조선부」)

193) "土産茶, 味苦澁, 不可入口, 惟貴中國臘茶, 幷龍鳳賜團."(徐兢, 『고려도경』,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참조.)

조선의 광산물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銅이다. 동월은 「조선부」에서 “조선의 다섯 가지 금속은 나는 곳을 자세히 모르나 가장 많은 것은 구리이다.”194)라고 하였다. 『고려도경』에서도 “고려의 땅에는 금과 은은 적고 동이 많다.”195)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부」에서는 서인들이 망건의 관자[環]를 구리로 만든 것을 보면 구리는 조선에서 많이 생산되어 신분이 높은 자가 아니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금속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196) 「조선부」에 따르면 조선의 땅에서 나는 銅은 단단하면서 색깔이 붉어 예쁘다. 그래서 밥그릇, 수저 같은 기물을 다 銅으로 만들었다.197) 이는 『송사』에 기록된 1015년 중국으로 온 고려 사신 郭元의 말에서도 반영돼 있다.198) 중국은 조선 땅에서 나온 동을 高麗銅이라고 불렀다. 신라 때부터 高麗銅이 이미 중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 『본초강목』에서도 “신라의 동으로는 鍾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여 신라에서 나온 동의 품질을 인정하였다. 또한 銅은 당시 화폐를 만드는 주요 재료이다. 화폐는 상품유통의 지급방법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돈을 주조하는 것은 막중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화폐의 원재료인 銅을 어떤 것으로 쓰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하여 周나라 때는 조정에서 銅錢을 주조하기 위해 尙書水部員外郞 韓彦卿에게 비단 수천 필을 가지고 고려에 가서 동을 사오라고 명한 일도 있었다.199) 이처럼 高麗銅의 좋은 품질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았고, 高麗銅으로 만든 그릇이나 악기를 소중히 여기는 예는 『금사』와 『齊東野語』 등에서 보인다.200)

그리고 油單이라는 종이도 조선이 자랑으로 여기는 특산물이었다. 「조선부」에 따르면 조선에서 두꺼운 종이는 네 폭으로 한 장을 하는 것도 있고, 여덟 폭으로 한 장을 하는 것도 있는데, 통틀어서 유단이라고 하며, 조선이 이를 소중하게 여긴다 했다.201) 油單은 기름에 결은, 두껍고 질긴 큰 종이를 가리킨다. 『老峯集』에서 “기

194) “五金莫究所産, 最多者銅.” (董越, 「조선부」)

195) “高麗地少金銀而多銅.” (徐兢, 『고려도경』)

196) “其國總髮之網巾, 皆結以馬尾, 以環定品級. 一品玉, 二品金, 三品以下銀, 庶人則骨角銅蚌之類而已.” (董越, 「조선부」)

197) “[地産銅最堅而赤. 食器匙筯皆以此為之, 即華所謂「高麗銅」也.]” (董越, 「조선부」)

198) “高麗使郭元言本國民家器皿悉銅爲之.” (脫脫, 『宋史』 「高麗傳」)

199) “周顯德五年, 以高麗地産銅, 遣尙書水部員外郎韓彦卿, 以帛數千匹市銅於高麗, 以鑄錢.” (歐陽脩, 『五代史』)

200) “明昌五年, 諭旨有司, 凡使高麗還者, 所得銅器, 令盡買之.” (脫脫, 『金史』); “趙元父祖母齊安郡夫人徐氏, 幼隨其母吳郡王家, 又及入平原郡王家, 嘗談兩家侈盛之事, 歷歷可聽. 其後翠堂七楹, 全以石青為飾, 故得名. 專為諸姬教習聲技之所. 一時伶官樂師皆梨園國工也. 吹彈舞拍, 各有總之者, 號為「部頭」. 每遇節序生辰, 則旬日外依月律按試, 名曰「小排當」, 雖中禁教坊所無也, 只笙一部已是二十餘人. 自十月旦至二月終, 日給焙笙炭五十斤, 用綿熏籠藉笙於上, 復以四和香熏之. 蓋笙簧必用高麗銅為之, 艷以綠臘, 煖則字正而聲清越, 故必用焙而後可.” (周密, 『齊東野語』)

름 먹인 삼베[油單]는 곧 요즘 油芚 같은 종류이고, '單'자의 뜻으로 말하면 이는 紬綿에 기름을 먹인 것이다"라고 하였다.[202] 방수되는 효용이 있으니 흔히 짐을 덮어주는 데나 빗물을 막는 데, 그리고 옛날에 고약을 붙일 때 쓰였다. 원나라 孟漢卿의 잡극 『魔合羅』에서 "짐을 덮어 준 유단이 새는 곳이 있을까 봐 처음부터 다시 보자"라고 하였으며,[203] 『醫林撮要』에서는 "기름종이[油單]에 그 약을 발라 환부에 붙인다"라고 하여 약을 바를 때 유단의 사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204] 또한 金景善은 油單이 두꺼운 油紙로 만들어 빗물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여 수레를 세낼 때 油單 1장을 마부에게 주는 규정이 있었다는 것을 『燕轅直指』에서 언급했다.[205] 조선의 油單은 질이 좋고 쓸모가 많아 조선에 온 중국 사신들도 달라고 청구한 적이 있었다.[206]

滿花席은 조선을 대표할 수 있는 독특한 坐具이므로 「조선부」에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高麗圖經』에서 "그 좌석에는 상과 탁자는 마련하지 않고 단지 작은 도마 같은 것을 땅에 늘어놓는다."[207]라고 하였다. 고려 사람이 땅바닥에 앉을 때 깔아 놓았던 것은 바로 돗자리인데, 만화석은 각가지 꽃무늬를 가득히 놓아 짠 돗자리이고 花紋席의 일종이다. 화문석에는 만화석 외에도 黃花席, 雜彩花席, 龍文花席, 五爪龍席, 各色細花席, 別文席, 白紋席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화문석이 언제 생겨났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문헌에 처음 보이는 것은 고려 목종 11년(1088년) 遼에 龍鬚草地席을 보냈다는 기록이 아닌가 한다. 『해동역사』에는 『遼史』를 인용해 "요나라 통화 26년인 무신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여 문화 무공 양 궁전에 용수초지석을 선물하였다."라고 하였다.[208] 중국에서의 만화석에 대한 기록은 元나라 때 이미 있었다. 陶宗儀(1329~1412)[209]의 산문 「元氏掖庭記」에는 만화석에

---

201) "[其厚紙有以四幅為一張者. 有以八幅為一張者, 通謂之油單. 其自視亦不輕.]" (董越, 「조선부」)

202) "油單如卽今油芚之類, 而以單字之義言之, 是紬綿之染油者也." (閔鼎重, 『老峯集』)

203) "我則怕蓋行李的油單有漏處, 我與你須索從頭覷." (孟漢卿, 『魔合羅』)

204) "入水缸內, 去火毒, 三日取出, 油單紙攤藥, 貼患處, 立效."; "用油單紙攤膏, 貼患處. 候瘡愈, 皮老爲度. 杖瘡亦然."; "攤油單傅損傷, 瘡口自然肉, 不痛速愈." (楊禮壽, 『醫林撮要』)

205) "舊時我雇車只許貰銀. 人有見其光頭㦸寒, 心憐之, 適有貂皮敝風遮, 制如圍脖而小, 賜之. 後遂爲例. 今則代以錢二緡, 謂之風遮價. 又有饋一盂飯者, 後亦援以爲例. 今則以錢七緡付廚子, 每日中火時必饋飯, 謂之趕車的加飯. 又有西草一斤, 油單[卽厚油紙, 用以防雨水者] 一張應給之規. 窺其本則皆風遮加飯之類也. 明春回還時, 日氣不寒, 故不敢復討風遮. 而加飯西草油單等物, 如例徵索, 若固有之, 此則裨譯以下之事也." (金景善, 『燕轅直指』)

206) "遣權自恭, 贈使臣油單雨傘, 皆使臣所求也." (『문종실록』 1452년 4월 16일)

207) "其席不施牀卓, 唯以小俎, 藉地而坐." (徐兢, 『高麗圖經』 권26)

208) "遼統和二六年戊申五月遣使, 進文化, 武功兩殿, 龍鬚草地席." (『遼史・屬國表』)

209) 陶宗儀, 元末明初의 文學家, 史學家.

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원나라 順帝가 英英을 위하여 琼華島 采芳館을 세우고 안에 唐人滿花席을 깔았다. 唐人은 고려 섬의 이름이고 토산물은 만화초이다. 만화초는 성질이 부드러워 꺾어도 부러지지 않고 광택이 있어 매우 좋다. 사인은 이것으로 자리를 짠다.[210]

「元氏掖庭記」는 원 황실 후궁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묘사한 글이다. 인용한 구절에서 "順帝가 英英이라는 妃嬪을 위해 采芳館이라는 궁을 세우고, 안에 고려의 토산물 滿花席을 깔았다"라고 하였으며, 滿花席을 만드는 만화초라는 풀은 성질이 부드러워 꺾어도 부러지지 않고 광택이 있어 매우 좋다고 하였다. 이는 「조선부」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만화석의 풀은 빛이 누렇고 부드러워 아무리 접어도 꺾어지지 않아 蘇州에서 나는 것에 비해 훨씬 좋다. 해마다 궁궐에 공물로 바치고 때때로 상국에 이바지한다.[211]

「元氏掖庭記」에서 滿花席이 나타난 것은 원나라 때이지만, 「元氏掖庭記」를 기술한 시기는 명나라 때이다. 따라서 중국의 문헌에서 滿花席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면 明代 이전의 기록이 없다. 한국의 기록에서도 15세기 초나 되어야 滿花席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다. "고려 때의 자리들은 초기에 흑·백의 색으로 무늬를 넣었으나 후기에 이르면 채색 무늬의 자리를 제조했다고 할 수 있다."[212]라는 견해를 참고하면, 고려후기에 와서야 꽃무늬를 가득 수놓은 滿花席을 만들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만화석의 생산이 아주 활발했다. 『태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태종 2년(1402) 9월 8일에 일본 源賴秀의 使人에게 만화석을 내린 일이 있었다고 한다.[213] 또한 태종 18년 명나라 사신에게 만화석 6장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214] 그 후에 만화석은 조선이 일본·중국·유구에 보내는 주된 공물로

---

210) "帝爲英英起采芳館於琼華島內, 設唐人滿花之席, (중략) 唐人, 高麗島名, 産滿花草, 性柔, 折屈不損, 光澤可佳, 士人編之爲席."(陶宗儀, 「元氏掖庭記」, 『說郛』)

211) "滿花席之草, 色黃而柔, 雖折不斷, 比蘇州者更佳. 歲貢闕庭, 時供上國."(董越, 「조선부」)

212) 『莞草匠』,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10쪽 참조.

213) "日本 源賴秀使人辭, 賜米豆各五十石, 滿花席, 黑麻布, 白苧布."(『태종실록』 1402년 9월8일 기사)

214) "丙辰/贈使臣苧麻布等物, 苧麻布各二十匹, 人蔘三十斤, 滿花席六張, 滿花寢席六張, 厚紙二百張, 箭筒二, 鹿皮靴, 精套具, 貂皮護膝一, 石燈盞一事. 千戶劉庸黃貴等六人, 力士趙種等八人, 家人三福等四人, 苧布各一匹, 麻布各二匹, 分套各一. 又將十二升麻布四匹及裏衣所造貂皮斜脚, 付于黃貴, 贈遣于黃儼. 貴, 儼之姪也. 加賜十二升苧麻布二匹于劉庸, 黃貴. 中宮使內官金文厚贈使臣十二升苧麻布各二匹, 十一升苧麻布各三匹."(『태종실록』 1418년 1월5일 기사)

자리잡았다.

조선시대에 중국으로 보내는 3절(동지, 정조, 성절) 및 별사의 경우, 황제・황태후 등 수령인의 신분에 따라, 또 시기와 목적에 따라 대상별로 바치는 만화석의 수가 정해져 있었다. 예컨대, 1475년 吏曹參判 李恕長이 建州衛에서 사람과 가축을 돌려주게 한 일에 대한 사례 표문을 올렸는데, 皇帝・皇太后・中宮에게 만화석 각 11장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다.[215] 1476년 좌의정 沈澮는 중궁 책봉에 대한 주본을 가지고 중국에 가, 皇帝에게 만화석 10장, 皇太后에게 만화석 8장, 中宮에게 만화석 8장, 황태자에게 만화석 10장을 올리기도 했다.[216]

조선에 온 명 사신이 만화석을 달라고 하는 일도 있었다. 1429년 宦官 金滿이 조선에 사행을 왔을 때 滿花席과 樸頭矢 60개, 붉은 초립과 검은 초립 각 1개, 검은 칠한 櫃 5개, 紅狼皮合包 10개, 족자 1쌍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왕이 이를 주게 하였으나, 만화석만은 진헌하는 것 이외에는 시장에 없다고 대답하도록 하였다.[217] 이를 통해 만화석이 당시 珍貴하고 稀貴한 물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 11년 2월 5일에 각종 금령을 건의한 조목에도 화문석은 명나라에 헌납하거나 국가에서 사용할 것 외에는 일절 모두 금지하라는 내용이 있다.[218] 「조선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중국 蘇州에서도 만화석과 비슷한 돗자리가 생산됐는데도 명나라가 조선에게 공물로 만화석을 계속 받고, 심지어 달라고 요청까지 했던 이유는 바로 “만화석의 풀은 빛이 누르고 부드러워 아무리 접어도 꺾어지지 않아 소주에서 나는 것에 비해 훨씬 좋”[219]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만화석에 관한 중국 쪽의 기록과 묘사는 명대 이전에는 거의 없었고, 「조선부」에

---

215) “乙亥/遣吏曹參判李恕長, 奉表如京師, 謝降勑建州衛諭還搶擄人畜, 百官拜表如儀. (...) 其方物表曰: 天眷悉深, 曲加矜恤, 土宜雖薄, 聊表忱誠. 謹備黃細苧布二十匹, 白細苧布二十匹, 黑細麻布五十匹, 黃花席一十張, 滿花席一十張, 滿花方席一十張, 雜彩花席一十張, 人參一百斤, 松子二百斤, 右件物等, 製造匪精, 名般亦尠, 冀諒由中之懇, 儻容享上之儀. 皇太后紅細苧布一十匹, 白細苧布一十匹, 黑細麻布二十匹, 滿花席一十張, 雜彩花席一十張, 中宮紅細苧布一十匹, 白細苧布一十匹, 黑細麻布二十匹, 滿花席一十張, 雜彩花席一十張.” (『성종실록』 1475년 7월 28일 기사)

216) “遣議政府左議政沈澮, 禮曹參判李克墩齎奏本如京師, 命都承旨玄碩圭齎宣醞往餞于慕華館. 其奏曰: (...) 御前方物, 黃細苧布二十匹, 白細苧布二十匹, 黑細麻布五十匹, 龍文簾席四張, 黃花席十張, 滿花席十張, 滿花方席十張, 雜彩花席十張, 人蔘一百斤, 雜色馬二十匹. 皇太后: 紅細苧布十匹, 白細苧布十匹, 黑細麻布二十匹, 滿花席八張滿花方席八張, 雜彩花席八張. 中宮同. 皇太子, 白細苧布二十匹, 黑細麻布二十匹, 滿花席十張, 雜彩花席十張, 雜色馬四匹.” (『성종실록』 1476년 8월 22일 기사)

217) “金滿求滿花席及樸頭矢六十箇, 紅黑草笠各一, 黑漆櫃五, 紅狼皮合包十, 簇子一雙, 命贈之, 但滿花席, 則答以"進獻外, 市肆所無.” (『세종실록』 1429년 1월1일 기사)

218) “司憲府啓: "大小人員或未知各年受敎, 犯法者頗多. 請略節禁令條畫爲文板, 掛光化門外及都城各門鍾樓等處, 令其悉知(...) 一, 花席進獻及國用外, 一皆禁止.” (『세종실록』 1429년 2월 5일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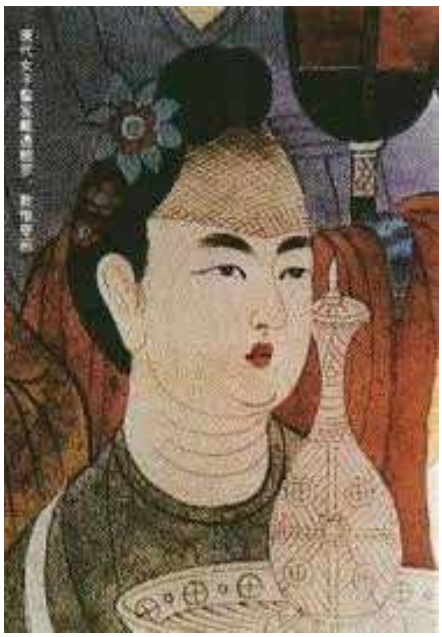
219) “[滿花席之草, 色黃而柔, 雖折不斷, 比蘇州者更佳.]” (董越, 「조선부」)

나오는 記述이 그 빈틈을 채웠다. 흑·백색으로 무늬를 넣은 돗자리에서 꽃무늬를 가득 수놓은 滿花席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滿花席 工藝의 발전 양상을 알 수 있다.

④ 服飾

중국 사신이 조선에 와 중국과 다른 점을 꼼꼼하게 기록한 것은 일종의 관례인데, 그 중에서도 나라간의 차이점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사람들의 옷차림이었다. 「조선부」에서는 兒童, 婦女, 貧賤者, 富貴者 등 각 階層 사람의 옷차림을 일일이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網巾을 예로 삼아 살펴보겠다.

「조선부」에서 網巾에 대한 기록은 服飾을 다룬 것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網巾'은 조선시대 성인 남자가 상투를 틀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머리에 두르던 장식품이다. 망건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중국 당나라 때였다는 說이 있다. 당나라 벽화 「樂廷瓌夫人行香圖」([그림2])를 보면, 주요인물이 귀족명부의 복장을 하고 있는데, 3인은 투액라망건을 착용하고 있다고 하며, 開元·天寶 연간(713~756)에 帷帽制가 폐지된 후에 남은 유물이라고 하고 있다. 당나라 때는 일반에 널리 사용되지 않았으며 「樂廷瓌夫人行香圖」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앞이마를 가리는 부속물에 불과했다.[220] 그러나 여기서 나타난 망건은 여자가 착용한 것이지, 조선시대처럼 성인 남자가 쓰던 것이 아니었다.



[그림2]「樂廷瓌夫人行香圖」

망건은 조선 초기 명나라에서 창안되었지만, 이후 조선에 전래되어 그 재료와 형태가 변모되었다. 『大明一統』에서 "망건을 쓰는 제도는 옛날에 없는 것이다.[網巾之制則古未有也]"라고 했다. 전설에 의하면 망건은 明 太祖 朱元璋으로부터 기원했다고 한다. 朱元璋이 순행을 다니던 중 어떤 道士가 망건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인지 물었는데, 도사가 이것은 망건이며 상투를 틀 때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날 朱元璋은 전국에 貴賤을 따지지 않고 성인 남자는 모두 망건을 써야 한다는 명을 내렸다.[221] 중국에서는 망건의 재료로 비단에 짙은 옻칠을 해서 사용한 반면 조선은 말총을 사용했다. 또한 중국과 달리 조선에서는 망건에 環을 장식하

220) 慶尙北道 編, 「'網巾匠' 無形文化財指定調査報告書」, 第140號, 文化財管理局.

221) "太祖一日微行, 至神樂觀. 有道士於 燈下結網巾, 問曰:'此何物也?' 對曰:' 網巾. 用以裹頭, 則萬髮具齋.' 明日, 有旨召道士, 命爲道官, 取十三頂頒於天下, 使人無貴賤皆裹之也." (郎瑛, 『七修類稿』 卷14)

여 신분귀천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삼았다.

이 점은 「조선부」에서도 언급되었다. “사람들은 망건의 관자를 드러내어 그것으로써 귀천을 구분한다. 그 나라에서는 머리를 싸매는 망건을 모두 말총으로 만들고 環으로써 품급을 정하는데, 1품은 옥이고, 2품은 금이고, 3품 이하는 은이고, 서인은 뼈나 뿔, 구리, 조개껍질 따위로 한다.”고 했다.[222] 『해동역사』에서도 「조선부」를 인용하면서 망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망건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귀인의 경우 혹 사람의 머리털로 만든 망건을 쓰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223]

실록에 의하면 1420년에 명나라 사신에게 馬尾網巾을 내린 일이 있었으며,[224] 1429년 1월 4일의 기사에도 명나라 사신 김만이 말총 망건 1개를 요구함에 왕이 명하여 선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225] 망건은 본래 명나라에서 유래하였으나, 조선식 망건이 중국에 역수출되어 오히려 중국의 망건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17세기 무렵에는 중국의 망건 양식이 조선의 영향을 받아 조선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226] 아울러 본래 신분의 귀천 구분 없이 착용되던 중국의 망건이 명나라 중후기 이후부터 環을 장식하는 풍습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조선식 망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227] 그리하여 17세기 무렵에 중국의 망건 양식은 역수출된 조선 망건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당시 兩國 간의 빈번한 교류가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228]

---

222) “人露總環, 以分貴賤. [其國總發之網巾皆結以馬尾, 以環定品級. 一品玉, 二品金, 三品以下銀, 庶人則骨角銅蚌之類而已.] (董越, 「조선부」)

223) “머리를 싸매는 網巾은 모두 말총으로 만든다. 環으로써 品級을 정하는데, 1품은 玉으로, 2품은 金으로, 3품 이하는 銀으로 하며, 서민의 경우에는 뼈나 뿔, 구리, 조개껍질 등으로 만든다. (『조선부 및 본주』). 살펴보건대, 망건의 제도는 명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다. 말총으로 만들며, 貴人은 혹 사람의 머리털로 만들어 쓰기도 한다. 網口에는 말총을 엮어서 편자[邊子]를 만들며, 편자의 양쪽 폭 조금 뒤에다가 두 개의 작은 고리를 다는데, 재상은 金玉으로, 士庶人은 玳瑁 및 소발굽, 뼈, 조개껍질 등으로 만들어 단다. 편자의 양쪽 머리에는 각각 가는 노끈을 달아서 貫子의 두 고리 안으로 꿰어 교차시킨다. 정수리에는 머리를 묶으며, 편자는 눈썹과 가지런하게 한다. 망건 끝에는 노끈 하나를 달아서 정수리의 머리털을 이것으로 묶는다.” (『해동역사』 제20권 禮志를 참조.)

224) “贈使臣鍍金小象佛二軀, 鍮鉢二雙, 鍮筯四十二雙, 鍮匙二, 茶匙二, 馬尾網巾二.” (『세종실록』 8권, 1420년 4월 19일.)

225) “金滿求鞍子二部, 狪皮合包四, 鹿皮合包二, 馬粧二部, 天靑韉二部, 黑斜皮海獺皮矢筒各一, 馬毛網巾一, 三刀子五部, 命與之.” (『세종실록』 43권, 1429년 1월 4일.)

226) 張慶嬉, 『朝鮮時代 冠帽工藝史 硏究』, 서울 景仁文化史, 2004, 18쪽.

227) 明朝 中後期에는 망건의 環으로써 금·은을 사용하는 구분이 생겨났다. 『금병매사화』 第12回에서 謝希大가 鍍金망건을 차고 있다는 언급이 등장한다. 第28回에는 陳經濟가 손에 銀망건을 들고 있다는 서술이 나온다.

228) 장숙환, 「조선시대 남자의 首飾 연구Ⅱ」,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010; 牛犁, 崔榮榮, 高衛東, 「網巾與明代社會變遷」, 江西社會科學, 2013.

⑤ 風俗

「조선부」에서 자세히 소개한 풍속 중에서 賭博이 주목된다.

> 집에 노름 기구를 두는 것을 불허할 정도이다. 바둑이나 쌍륙 따위는 민간 자제가 익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229]

賭博 중에서도 '雙陸'에 대한 기록은 인문풍속을 다룬 것 가운데 더욱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雙陸'은 오래전부터 조선에서 전승되어 왔으나, 그 기원이나 유래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아주 어렵다. 다만 문헌에 백제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며, 중국 漢武帝 때에 西域에서 중국을 거쳐 조선에 들어와 백제를 거쳐, 다시 일본으로까지 전해져서 '스고로쿠'가 되었다는 說이 있다.[230] 바꾸어 말하자면 雙陸은 백제 때 이미 한반도에 전해져 있었다. 여러 문헌이나 문집에 雙陸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은 가운데 『조선왕조실록』 1490년 1월 19일의 기록과 1522년 6월 16일의 기록이 주목된다.

> 義禁府에서 三覆하여 아뢰기를, "文昭殿 守僕奴 석시가 殿 안에서 쌍륙을 던져서 술내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화로를 차서 불을 흩뜨려 地衣를 태운 죄는 律이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석시의 죄는 진실로 죽어 마땅하다. 다만 인명은 매우 소중하므로 가볍게 처단할 수 없으니, 承旨들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자, 모두 아뢰기를, "석시는 죄가 중하여 법으로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형을 면하여 호생지덕을 나타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또 영돈녕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沈澮는 의논하기를, "석시가 神御 앞에서 술에 취해 장난하다가 地衣를 불태우는데 이르렀고 마음대로 바꾸어서 排設하였으니, 죄가 심히 무겁고 크므로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律에 의해 죄를 科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尹弼商・洪應・李克培・尹壕는 의논하기를, "석시의 범한 바는 마땅히 重典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지극히 중하니,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律文에 큰 제사의 祭器・帷帳・玉帛・牲牢・饌具의 등속을 도둑질한 자는 모두 斬한다고 하였는데, 燭는 위의 물건에 비할 것이 아니고, 또 殿內의 地衣만 불태웠을 뿐이니, 정상이 혹시 용서할 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특별히 사형을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231]

---

229) "至若家不許藏博具, 棋局雙陸之類, 民間子弟皆不許習." 董越 지음, 김영국 옮김, 『국역 조선부』, 도서출판 심미안, 2013, 31쪽,

230) 심우성, 「민속놀이 쌍륙」, 『우리 공연문화 읽기』, 공연관리뷰, 2016.

231) 『성종실록』 236권, 성종 21년(1490년) 1월 19일 기사, "義禁府三覆啓: '文昭殿守僕奴石屎, 殿內擲雙陸睹酒, 相鬪踢爐散火燒破地衣罪, 律當死.' 傳曰: '石屎罪固當死. 但人命至重, 不可輕斷, 承旨等其議啓.' 僉曰: "石屎罪重, 在法當死. 然特減死, 以著好生之德何如?' 又命議于領敦寧以上. 沈澮議: '石屎神御前醉酒戲謔, 以至燒破地衣, 擅便換排, 罪甚重大, 不

헌부가 아뢰기를, “의성위 南致元의 일은, 【전에는 남몰래 궁녀를 유인하여 자기 집에 나와 있게 하고서 간통한 것 때문에 죄를 입었고, 다음에는 종을 타살한 것 때문에 죄를 입었었다.】 비록 오래 되기는 하였지만 범한 죄가 매우 커서, 경솔하게 敍用할 수 없습니다. 곤양수 李河의 일은 그의 사촌 매부 李宗翼이 자기 아내와 간통했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비록 발명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촌 누이와 함께 있으며 혹 과도하게 술을 마시기도 하고, 혹은 쌍륙 놀이를 하기도 하여 행신이 착하지 못하였으니 서용할 수 없습니다. 【곤양수는 이 일 때문에 죄를 입은 것이 아니고 신사년 10월 16일에 중한 죄수들을 잡아올 때 비록 절친이라 하더라도 모여서 볼 수 없는 법인데도 영추문 밖에 많은 수가 모여 있다가 죄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상이 서용하도록 한 것인데, 대간의 생각은, 이 일 때문에 죄를 입었는데도 서용한 것으로 잘못 짐작한 것이다.】 ...[중략]... 전교하기를, “의성위는 죄를 입은 것이 한 차례만이 아니기 때문에 대간이 아뢰는 것인데 전일에도 서용했다가 대간이 아뢰게 되어 정지했었다. 그러나 부마는 조관과 같은 예의 것이 아니므로 祿을 잃지 않게 해야 하는데, 선왕의 부마가 오랫동안 녹을 잃게 되어 미안하기 때문에 서용한 것이다. 곤양수는 그 일 때문에 죄를 입은 것이 아니고 다른 일로 죄를 입은 것이므로 서용하도록 한 것이니, 지금 그 일 때문에 서용하지 말라는 것은 공편하지 못한 듯하다. 금란 부정은 전번에 그의 상언에 따라 죄를 풀어주었기 때문에 서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헌부가 지금 바야흐로 推覈하고 있다면, 아직은 서용하지 마는 것이 가하다. 황여헌은 나도 그가 죄입은 지 오래되지 못했음을 아나, 다만 그의 죄가 파직만 해야 하고 직첩을 거둠은 지나친 듯하기 때문에 도로 준 것인데, 이미 주도록 하였다가 또 거두도록 한다면, 이 역시 정령이 번거로운 일이다.”라고 하였다.[232]

『성종실록』 1490년 1월 19일의 기사에는 文昭殿의 守僕奴인 石屎가 쌍륙을 던져 술내기를 하던 중, 서로 싸우다가 화로를 차는 바람에 불을 흩뜨려 地衣를 태웠는데,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지만 결국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중종실록』 1522년 6월16일의 기사는 사헌부가 昆陽守 李河에 대해 敍用할 수 없

可輕論. 依律科罪何如?’ 尹弼商, 洪應, 李克培, 尹壕議: ‘石屎所犯, 宜置重典. 然人命至重, 減死何如?’ 盧思愼議: ‘律文, 盜大祀祭器, 帷帳, 玉帛, 牲牢, 饌具之屬者, 皆斬. 燭非右物之比, 且燒殿內地衣而已, 情或可恕.” 傳曰: ‘特減死.’”

232)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1522년) 6월16일 기사, “憲府啓曰: ‘宜城尉 南致元事, 【前以潛引宮女, 使之出私第, 通奸被罪. 後以打殺其奴, 被罪.】 雖久而所犯甚大, 不可輕敍. 昆陽守 河, 其四寸妹夫李宗翼以爲通其妻. 其終雖發明, 然與四寸妹混處, 或飮酒過度; 或戲雙陸, 其行不善, 不可敍用. 【昆陽守, 不以此被罪, 而辛巳十月十六日, 重囚拿來時, 雖切親不得聚看, 而迎秋門外數多屯聚, 被罪, 故上命敍用, 臺諫意誤以爲, 以此事被罪, 而敍用也.】 ...[종략]...傳曰: ‘宜城尉被罪非一度, 故臺諫啓之. 前亦敍用, 而臺諫啓止. 然駙馬, 非朝官例, 使之不失其祿. 先王駙馬久失其祿, 未安, 故敍用也. 昆陽守不以此被罪, 以他事被罪, 故命敍用, 而今以此事勿敍, 似未便. 金蘭副正, 前者以其上言, 釋其罪, 故命敍用, 然憲府今方推覈, 則姑勿敍用可也. 黃汝獻, 予亦知其被罪之未久也. 但其罪, 只可罷職, 而收職牒似過, 故還授之. 旣命給, 而又命收之, 則是亦政令煩數也.”

다고 아뢴 일이다. 李河는 사촌 누이와 함께 있으면서 과도하게 술을 마시기도 하고 혹은 쌍륙 놀이를 하기도 하여 행실이 바르지 못하였으니 서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후에 이 일 때문에 서용하지 못한 것은 아님을 밝혔지만 여기서 쌍륙 놀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김시습(1435~1493)의 『梅月堂集』에 「쌍륙」이라는 시가 있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6세기부터 시문에 雙陸 놀이에 대한 기록이 점점 많아지는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조선부」이다.[233]

앞에서 말하였듯이 조선 문헌 자료 중에 쌍륙 놀이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은 편이다. 『朝鮮王朝實錄』 가운데 쌍륙 놀이에 관한 기록은 1490년과 1522년의 기사인데, 동월이 1488년 조선에 사행 다녀온 뒤 「조선부」를 지은 것이 1488년이나 1489년쯤인 것으로 보아 「조선부」가 조선에서의 쌍륙 놀이를 정식으로 소개한 최초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⑥ 산대놀음

산대잡희는 고려시대에 발생하여 조선시대까지 궁중에서 성행하였다. 특히 외국 사신을 맞이할 때는 행차가 지나가는 거리 곳곳에서 여러 가지 예식과 공연을 베푸는 행렬 의식을 거행하였고, 그 행렬이 광화문에까지 이르렀다.[234] 「조선부」에는 산대놀음에 대한 묘사의 분량과 언급한 레퍼토리 종목이 상당히 많으며 묘사의 완전성이 높아 산대놀음에 관한 기술로는 매우 뛰어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다음의 검토를 통해 「조선부」에서 나타난 조선전기 산대놀음의 전경을 재구하자고 한다.

거리에는 늙은이와 어린이들로 꽉 채워지고, 누대에는 수놓은 비단을 둘러서 꾸몄네.
[거리 사람들의 집에는 모두 임금이 내려 준 예제인 양, 채색 비단을 치고 그림을 걸었다]
울려퍼지는 음악 소리는 부드럽고 느긋하며,
걸어놓은 쇠북은 곱고도 예쁘다.
침향과 단향은 새벽 햇살 받은 안개를 뿜는 것과 같고,
복숭아와 자두는 동풍에 날리는 비단처럼 아름답다.
수레와 말이 몰려드는 소리 울려퍼지고
물고기와 용이 튀어오르는 연희가 이어지네.
[이하의 글에서 모두 백희를 진설하고 조서를 맞이하는 광경을 말하였다.]
자라는 산을 인 채 봉영의 바다에서 뜨는 해를 맞이하고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무산협의 물을 마시네.

233)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화가 기산 김준근의 箕山風俗圖帖에 사람들이 쌍륙놀이를 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234) 사진실, 『봉래산 솟았으니 해와 달이 한가롭네: 왕실의 연회축제』, 태학사, 2017, 61~62쪽.

[광화문 밖에 동서로 오산 두 좌를 나열했는데 높이가 광화문과 같고 아주 공교하다.]
[사람의 두 어깨에 두 어린 아이를 세우고 춤을 춘다.]
근두를 뒤치니 상국사의 곰 재주는 비교할 것도 없고,
긴 바람에 울거니 어찌 소금 수레를 끄는 훌륭한 말이 있겠는가.
밧줄을 타고 내리니 가볍기는 허공을 나는 신선과 같고,
외나무다리로 달려가니 날뛰는 산귀신인가 놀라며 보네.
사자와 코끼리를 장식한 것은 벗긴 말가죽을 뒤집어쓴 것이고,
봉황과 난새가 춤추는 것은 들쭉날쭉한 꿩꼬리털을 묶은 것이네.
황해도와 서경에서 두 번이나 솔무를 보았지만,
모두 이만큼 좋고 아름답지는 않았다.
[평양과 황주에서 다 산대를 설치하여 백희를 베풀어 조서를 맞이하였지만, 유독 한양의 것이 제일 뛰어났다.][235]

이 부분에서 동월은 왕경에서 본 魚龍之戲・舞童・筋斗・踏索・獅象 등 산대잡희의 내용을 포함한 장경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 산대잡희는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걸쳐 국가의 경사에 綵棚을 陳設하고 그 위에서 상연된 가무백희이다. 이와 같은 잡희는 흔히 季冬儺禮儀 때와 임금의 祔廟還宮 때, 宗廟親祭 때, 그리고 謁聖 때와 그 밖의 각종 행사 때에 거행되었고, 또 중국사신 영접 때, 安胎 때, 進豐呈 때, 內農作 때, 신임 감사 영접 때, 그리고 각종 宴樂歡娛 등 경우에 광범위하게 등장하였다. 「조선부」에서 말한 '鰲山'과 '鰲山棚'이 곧 산대이며, '시끌벅적 수레와 말을 움직이는 소리(駢闐動車馬之音)'는 산대에 바퀴를 달아 끌고 다닐 때의 소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산대는 흔히 예산대 또는 山車・山棚이라고 부르던 것인데, 그 모양이 바퀴가 달린 기암괴석으로서 산의 형상을 하고 있어, 산대라는 명칭 가운데 '산'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 주고 있다.

동월이 본 조선의 魚龍之戲는 광대들이 탈을 쓰고 물고기가 용으로 변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광대놀음을 가리킨다. 조선후기의 문인 尹愔(1741~1826)가 설날을 읊은 시 「元日」에서 설날 길거리에서 가무백희를 거행하는 장경에 대한 기술한 부분에서도 어룡놀이를 펼치는 장면이 있었다.[236] 중국에서도 魚龍戲가 있었는데, 『漢書』 西域傳 贊에서 "酒池肉林을 차려놓고 四夷의 손님을 대접하고 魚龍과 角抵 등 놀이를 풍성하게 베풀어 보여 주었다"라고 했다.[237] 顔師古의 注에 따르면, 魚龍

235) "巷陌盡爲耄倪所擁塞, 樓臺盡文繡所衣被. [街巷人家, 皆如頒降禮制, 設彩挂畫.] 樂聲也若緩以嘽, 虡設也亦華以麗. 沈檀噴曉日之煙霧, 桃李艷東風之羅綺. 駢闐動車馬之音, 曼衍出魚龍之戲. [以下皆書陳百戲迎詔.] 鰲戴山擁蓬瀛海日, 猿抱子飲巫山峽水. [光化門外東西列鰲山二座, 高與門等, 極其工巧.] [人兩肩立二童子舞.] 翻筋斗不數相國之熊, 嘶長風何有鹽車之驥. 沿百索輕若凌波仙子, 躡獨趫驚見跳梁山鬼. 飾獅象盡蒙解剝之馬皮, 舞鵷鸞更簇參差之雉尾. 蓋自黃海西京兩見其陳率舞, 而皆不若此之善且美也. [平壤黃州皆設鰲山棚, 陳百戲迎詔, 而惟王京為勝.]" (동월, 「조선부」)

236) "舞繩漱霧魚龍戲, 鳴佩峩冠鵷鷺奔." (尹愔, 「元日」, 『無名子集』)

은 舍利[猞猁]라는 짐승의 모형을 만들어서 먼저 뜰의 끝에서 놀이를 하고, 끝난 뒤 궁전 앞으로 들어와서 물을 격동시키면 比目魚로 변하는데, 뛰면서 물을 뿜어대어 안개를 만들어 태양을 가린다고 하며, 끝나면 다시 8丈의 黃龍으로 변하는데, 물에서 나와 뜰에서 마음껏 놀아 광채가 햇빛처럼 빛났다고 한다. 張衡의 『西京賦』에 "바다의 큰 물고기[海鱗]가 변하여 龍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238] 李商隱의 시 「宮妓」에도 "굳이 어룡희를 다 보지 않아도 끝내 군왕이 언사에게 노할 것이다.(不須看盡魚龍戲, 終遣君王怒偃師)"라는 구절이 있으며, 사행으로 중국에 간 조선 사신이 북경에서 魚龍戲를 봤다는 사실도 『燕行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239] 중국의 어룡희도 조선의 것과 비슷하게 百戲 가운데 하나로,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는 것을 형상화한 놀이이다.

동월이 「조선부」 自註에서 기술한 "사람의 두 어깨에 두 어린 아이를 세우고 춤을 춘다."라는 것은 舞童의 춤을 가리킨 것이다. 무동춤은 또한 무동타기라고 하여 나이 어린 소년을 뽑아 놀이꾼 어깨 위에 올라서서 연행하는 춤을 말한다. 무동타기로 춤을 추는 것은 '神童의 춤'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세 쌍의 무동타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南原 槐陽 농악의 삼동놀이는 어린이의 出産科場, 成長科場 그리고 立身出世科場이 차례로 이어진다.[240] 무동 제도의 시초는 1432년에 君臣禮宴인 외연에서 여악 대신 무동이 춤과 노래를 담당하기 위해, 8살에서 10살 사이의 나이 어린 관노 60명을 뽑았던 것이다. 무동이 하는 呈才는 남악이라고 하며 外宴에서 많이 썼다. 세종 때 남악은 궁중에서 쓰는 雅樂과 俗樂에도 원칙적으로 쓰게 되어, 외연의 회례연이나 양로연 등과 隣國使客宴에서 공연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무동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張寧이 1460년 조선에 出使했을 때 女樂을 쓰지 말라고 해서 세조가 男樂만 썼다는 기록이 보인다.[241] 1476년 기순 일행이 조선에 사행 갔을 때도 女樂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조선이 마침내 男樂만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242] 여기서 말하는 남악은 바로 外進宴을 베풀 때 무동에게 시키던 呈才를 가리

---

237) "設酒池肉林以饗四夷之客, 作巴兪都戶, 海中碭極, 漫衍魚龍, 魚抵之戲以觀視之."(班固, 『漢書·西域傳贊』)

238) "魚龍者, 爲舍利之獸, 先戲於庭極, 畢乃入殿前激水, 化成比目魚, 跳躍漱水, 作霧障日, 畢, 化成黃龍八丈, 出水敖戲於庭, 眩耀日光. 『西京賦』云'海麟變而成龍', 卽爲此色也."(顔師古, 『漢書注』)

239) "且鞦韆戲, 魚龍戲, 一如前日之所見. 而埋障之縱橫雄健, 比前有加焉."(김정중, 『연행록』)

240)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90쪽, 94쪽 참조.

241) "百官分半, 先詣館行參謁禮, 上幸太平館設下馬宴. 樂部旣進, 寧曰: '請勿用女樂.' 上曰: '固知女樂非正音, 然我祖宗以來, 中國大人之來, 常用之. 古云, '素夷狄, 行乎夷狄.' 大人寬容何如?' 寧曰: '朝廷有禁, 斷然不用.' 上曰: '大人不欲, 不必强請.' 仍命出女樂, 只用男樂, 行酒."(『세조실록』 1460년 3월 2일 기사)

242) "開城府宣慰使尹弼商來復命, 上引見, 問天使動止, 弼商具啓, 且曰: "宴時始進女樂, 天使

킨 것이다.

筋斗는 땅재주 넘기를 말한다. 한·중 두 나라에서 '跟斗', '筋斗', '斤頭', '곤두' 등으로 불리며 고르게 나타난다. 「조선부」에서 말하는 '相國之熊'의 전고는 歐陽修의 시구 "상국사 앞에서 곰이 곤두박질로 땅재주하다(相國寺前熊翻筋斗)"[243]에서 나온 것이다. 宋나라의 서울에 相國寺란 절이 있는데, 그 앞에서 곰이 곤두박질로 땅재주하는 것을 구경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한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서 "조선의 광대들이 근두놀이를 할 때에는 반드시 손가락을 구부려 입술에 대고 휘파람을 부는데 그 소리가 뚜렷하다."라고 했다.[244] 『문종실록』에서는 "광대와 서인의 주질, 농령, 근두 등과 같은 규식이 있는 놀이[則如廣大西人注叱弄鈴斤頭等有規式之戲]"라고 하여, 땅재주를 '斤頭'로 지칭하고 있다.[245] 1626년 明 使臣이 太子의 탄생을 알리러 조선에 왔을 때 행한 儺禮에 대해 기록한 『儺禮廳謄錄』에는 중국사신 영접행사와 관련한 땅재주 소품으로 斤頭馬木이 등장한다.[246] 근두마목은 바로 땅재주의 받침대로 사용한 물품을 일컫는다. 이에 당시 명 사신 영접행사에서 땅재주가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에 出使했던 청나라 사신 阿克敦의 『奉使圖』 제7폭([그림 3])은 모화관 마당에서 열렸던 연희 공연의 장면을 그린 것인데, 연희자가 마당 가운데에서 근두를 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처럼 근두는 연희종목의 하나로 조선에서 사신을 영접할 때 흔히 등장하여 呈才의 일부로 펼쳐졌다.

曰: '女樂中朝所不用, 速去之.' 臣曰: '大人路上寂寥, 殿下遣此, 聊以慰之耳, 何却爲?' 天使固辭, 遂用男樂."(『성종실록』 1476년 2월 18일 기사)

243) "相國寺前熊翻筋斗, 望春門外驢舞蔗枝."(歐陽修, 『歸田錄』 卷二)

244) "東國倡優, 作戲筋斗, 必屈指接唇而嘯, 其聲劃然."(이덕무, 『청장관전서』 제56권 盎葉記三)

245) "則如廣大, 西人, 注叱, 弄鈴, 斤頭等 有規式之戲."(『문종실록』 1450년 6월 10일)

246) "軒架一, 嘯杆一, 乘虎一, 立師子一, 駝一, 折要馬一, 雙足竹一, 隻足竹一, 斤頭馬木一"(『儺禮廳謄錄』, 규장각古書, 13쪽)

[그림 3] 『奉使圖』 제7폭. 비단에 채색, 51×40cm, 북경 중앙민족대학 소장

「조선부」에서 "밧줄을 타고 내리니 가볍기는 허공을 나는 신선과 같고[沿百索, 輕若凌波仙子]"라는 구절은 광대나 줄꾼이 줄 위를 걸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보이는 줄타기놀이를 기술한 것이다. 줄꾼이 줄 위를 걷는 동작이 너무 가벼워 물 위를 걷는 선녀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줄타기는 한국・중국・일본에 다 있으며 『성호사설』에 踏索戱, 『허백당집』에 走索·步索, 『오주연문장전산고』에 走繩, 『역어유해』에 躧軟索 등의 명칭으로 적혀 있다. 이밖에 踏連索・戱繩・繩技・高絙・舞絙・絙戱・踏索이라고도 불렀으며, 崔南善의 『조선상식문답』에서는 줄어름타기라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줄타기를 繩技・舞絙・絙戱・戱繩・高絙이라 하였으며, 당대에는 走繩, 송대에는 上索・脫索・踏索・走索・履索 등으로 불렀다. 일본의 줄타기는 8세기에 중국에서 散樂雜伎가 전파되면서 퍼져 나갔다. 藤原通憲에 의해 제작된 『信西古樂圖』[247]에 굽 높은 나막신을 신은 여자 셋이 줄을 타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248] 이익은 『성호사설유선』에서 줄타기를 답색놀이[踏索戱]나 履繩이라고 했는데, 연희자의 재주가 너무 교묘해져서 줄을 타는 동안 춤을 추고 재주를 넘거나 해금을 타

247) 『신서고악도』 그림은 김광언, 『동아시아의 놀이』, 민속원, 2004, 373쪽을 확인할 수 있다.

248) 김광언, 『동아시아의 놀이』, 민속원, 2004, 360~374쪽 참조.

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張衡의 『西京賦』에서는 줄타기를 '走索'이라고 하여 줄을 타는 자들이 양쪽 손에 공과 칼을 쥐고 휘두르면서 밧줄 위로 달리다가 서로 마주 닿는 장면을 기술하였다.[249]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줄타기를 '줄[注叱]'이라 하였다.[250]

'躡獨趫'는 솟대타기를 가리킨다. 또한 솟대놀이, 솟대놀음, 장대놀이, 장대타기, 쌍줄백이, 都盧尋橦, 都盧橦, 上竿, 竿戲, 長竿戲, 緣竿이라고도 한다.[251] 조선시대 유학자 成俔(1439~1504)은 1488년 평안도관찰사로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 동월과 왕창을 접대하였다. 成俔의 「觀儺戲」, 「觀傀儡雜戲」 등의 시는 솟대타기의 여러 모습을 전해주는데, "백 척 솟대 위에서 잔 잡고 춤추네[長竿百尺舞壺觥]", "거꾸로 매달렸다 몸을 날리니 새가 나는 듯하네[跟絓投身條似飛]" 등의 구절을 통해 나례와 중국 사신 영접 행사에서도 솟대타기[長竿戲]가 연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몇 길 높이의 솟대 위에 올라가 잔을 잡고 춤을 추는 고난도의 솟대타기 기예에 대한 묘사를 통해 당시의 연희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청나라 사신 阿克敦의 『奉使圖』 화첩 제11폭([그림 4])에서도 중국 사신 영접 행사에 연행된 솟대타기가 묘사되어 있다. 李穡(1328~1396)의 시 「동대문부터 대궐 문전까지의 산대잡극은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다(自東大門至闕門前山臺雜劇前所未見也)」는 고려 말 산대잡극을 묘사한 것으로 그 중에 솟대타기도 등장한다. "긴 장대 위의 연희자는 평지에서 걷듯 하고[長竿倚漢如平地]"[252]라는 구절이 바로 장대 위에서 솟대타기를 펼쳤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연희자가 솟대 위에서 마치 평지를 걷는 듯이 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 「文機障子」라는 시에는 연등회에서 '광대들이 솟대 위에 올라가 재롱 부리다'라고 언급하며 솟대타기[緣橦]를 묘사했다.[253] 그리고 「진강후 저택에서 성가를 맞이할 때 교방의 치어와 구호(晉康候邸迎聖駕次敎坊致語口號)」에서도 고려시대 임금의 행차를 맞이하는 공식 행사에서 솟대타기[尋撞]가 행해졌다는 것을 기록하였다.[254] 「조선부」에서 말한 '跳梁山鬼'[255]는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산귀신을 묘사한 것이다. 요컨대 동월이

249) "今世優人有踏索戲, 或謂履繩. 漢世以兩繩繫兩柱, 兩倡對舞行於繩上, 對面道逢肩切而不傾. 張衡西京賦'跳丸劒之揮霍, 走索上而相逢'是也. 比見此伎轉巧, 不特對舞, 或能筋斗手彈奚琴蕩揺横斜而能不墜, 伎之巧捷乃如是. 問之, 曰: '單繩易於兩繩也.'" (이익, 『성호사설』)

250) "則如廣大, 西人, 注叱, 弄鈴, 斤頭等 有規式之戲." (『문종실록』 1450년 6월 10일)

251) 신근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솟대타기'조,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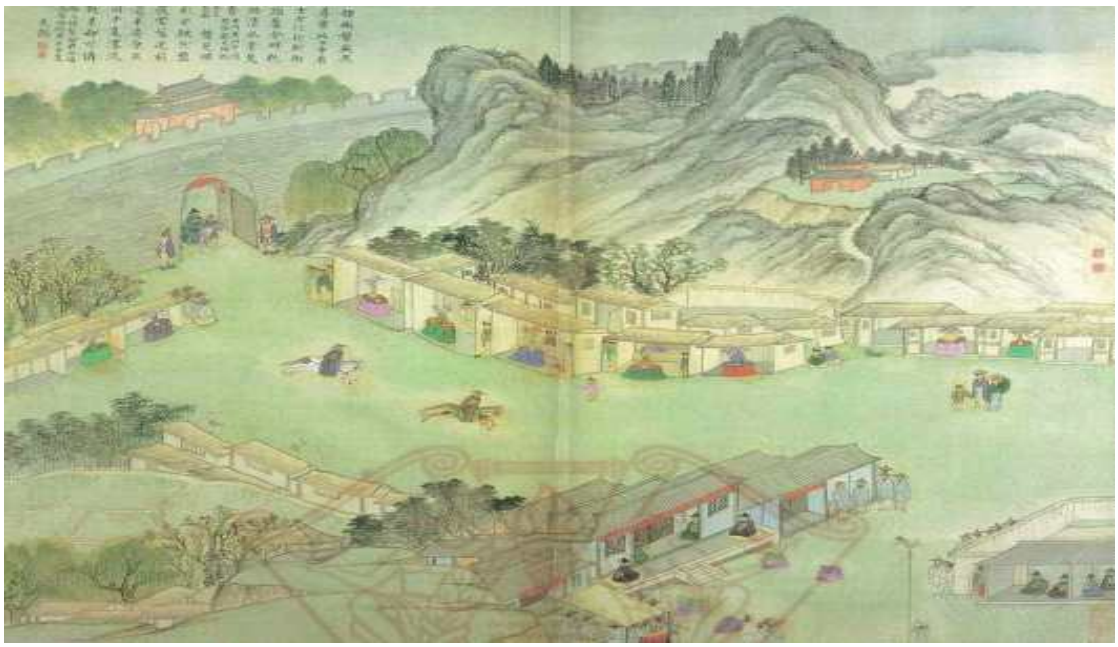
252) 李穡, 『牧隱集』 33권.

253) "踏席腰輕仙妓舞, 緣橦踉絓倀童才." (李奎報, 「文機障子」, 『東國李相國集』 제13권)

254) "錦障霞連, 綵山雲疊, 尋撞走索, 傾九市以聳觀, 擊石鳴絲, 亘八街而齊聽." (李奎報, 「晉康侯邸迎聖駕次敎坊致語」, 『東文選』 제104권)

255) '跳梁山鬼'에 대한 검토는 안상복, 「明人 董越의 「朝鮮賦」에 墓祀된 15세기 山臺雜戲 재검토」, 中國語文學誌, 2014, 216~217쪽 참조.

말한 '躡獨趫驚見跳梁山鬼'는 산귀신으로 꾸민 놀이꾼이 솟대를 타고 껑충껑충 뛰어 연기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그림 4] 『奉使圖』 제11폭. 비단에 채색, 51×40cm, 북경 중앙민족대학 소장

이어서 동월은 獅象 놀이를 기술했는데, 獅象은 사자놀이와 코끼리놀음을 말하는 것이고 동물의 모의춤이다. 이 기운데 사자춤은 사자의 모양을 만들어 사자탈을 움직이며 추는 춤으로 야수의 본성을 표현한 웅장한 춤이다. 사자춤은 狻猊라고도 한다. 최치원의 「鄕樂雜詠」 5수 중 「狻猊」는 바로 사자무에 대하여 읊은 시이다.[256] 『임하필기』에 수록한 악부시 「鄕樂」에서 말하는 "狻猊"도 바로 사자의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사자춤을 가리킨 것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했다.[257] 이를 통해 사자춤은 서역에서 들어왔고 삼국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자춤에 관한 기록은 朴思浩의 『심전고』에서도 나타난다. 심전 박사호가 冬至使 洪起燮(1776~1831)의 수행원으로 1828년 10월 청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4월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황주를 경과하면서 三使가 體仁閣에 모여 풍악을 베풀 때 그 중에 사자춤이 있었다고 한다.[258] 또한 『진연의궤』 '賞典'조에 "풍물을 監造한 뒤 獅子舞 재인 최복동 등 4명에게 각 목 2필을 시상함"의 기록을 보면 사자무가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푸는 수작·진연·진작·진찬 등의 연회에 흔히 등장한

256) "遠涉流沙萬里來, 毛衣破盡着塵埃. 搖頭掉尾馴仁德, 雄氣寧同百獸才." (최치원, 「狻猊」, 鄕樂雜詠, 『삼국사기』)

257) "大面黃藍南北躍, 狻猊束毒鬼霆鞭." (「鄕樂」, 『임하필기』 제38권 해동악부)

258) "晴, 黃州留. 三使齊會體仁閣, 設樂大樂府名色. 有獅子舞, 鶴舞, 牙拍舞, 錚江舞, 抛樂釵舞, 鼓舞獻蟠桃處容舞, 關東舞, 鴻門宴, 其中又有船樂." (박사호, 『심전고』 제1권 燕薊紀程 1829년 3월 26일)

呈才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연희 행사에서도 사자춤이 등장하였는데 조선의 사자춤과 비슷하다. 조선 말기의 여항시인 金進洙(1797~1865)가 중국에 갔을 때 북경에서 사자춤을 보고서 "또 사자를 부르며 춤추면서 배회하네[又呼獅子舞徘徊]"[259]라고 읊었다. 또한 중국에서 조선 사신을 접대한 행사에서 사자춤이 등장한 것은 『계산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60]

그리고 앞의 인용문을 통해 사신의 영접행사 연희 공연의 장소도 짐작할 수 있다. 오산이 광화문 밖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광화문 앞도 연희 장소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봉사도」에서 나온 모화관도 조선에서 명나라 사신의 영접행사를 펼친 장소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에서는 중국 사신이 모화관에 머무는 동안 의례적으로 놀이판을 벌이는 것이 관례였는데, 태종 시기에 명나라 사신 黃儼, 韓帖木兒 일행이 조선에 왔을 때, 山棚을 만들어 나례와 백희를 베풀고,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慕華樓에서 영접하였다는 것을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조선 초기부터 모화관에서 중국 사신을 환영하는 연희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6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부」에서는 산대잡극의 공연 규모, 무대, 음악 소리 등 공연장 상황을 박진감 넘치게 소개하여 독자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이어서 종목별로 펼쳐진 魚龍之戲・舞童・筋斗・踏索・獅象 등 놀이를 일일이 묘사하여 이를 통해 15세기 조선의 산대놀음의 전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독자에게 보여 주었다.

⑦ 기타

「조선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들 외에 조선의 言語와 法律도 다루었다.

먼저 조선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父와 母에 해당하는 조선어를 두고 "'부'를 '아필', '모'를 '액미'라고 하는 따위[如以「父」為「阿必」, 「母」為「額婺」之類]"라 소개했다. 『鷄林類事・方言』에서도 父와 母의 조선어에 대해 기록하면서, "'부'를 '자요비', '모'를 '요비'[父曰子了祕, 母曰了祕]"라고 하였다. 양자 모두 조선에서의 父와 母의 발음을 기록한 것이다. 조선후기 실학자 李瀷의 『星湖僿說』[262], 李裕元

259) 김진수, 「燕京雜詠」 제15수, 『벽로집』.

260) "其餘角觝戲獅子舞及紅棒環逐之狀. 皆次第設戲." (___, 『계산기정』 제3권 1804년 1월 12일)

261) "甲午/朝廷內史黃儼, 田嘉禾, 海壽, 韓帖木兒, 尙寶司尙寶奇原等來,, 結山棚陳儺禮百戲, 上率百官, 迎于慕華樓." (『태종실록』 1408년 4월16일 기사)

262) "又按『高麗史』, 獼猴桃謂之炟艾, 猫謂之高伊, 桲樹杖謂之水靑木. 董越「朝鮮賦」父謂之阿必, 母謂額婺. 宋孫穆『鷄林類事』雲曰屈林, 風曰孛纜, 雪曰嫩耳, 雨曰霏微, 雷曰天動, 虹曰陸橋, 雅曰打馬鬼, 犬曰家稀, 遊子曰浮浪人."(李瀷, 『星湖僿說』 제8권,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참조.)

의 『林下筆記』[263]에서는 조선 언어와 관련해 「조선부」를 인용하였다.

그런가하면 조선의 법률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형벌은 궁형을 쓰지 않고 도둑은 목에 칼을 씌워 거둔다. [내시는 다 궁형을 당한 자가 아니고, 어렸을 때에 다쳤거나 병을 앓았던 자만 썼기 때문에 내시가 아주 적다. 도적은 가벼이 용서해주지 않는다.][264]

조선의 형벌제도는 잔인한 궁형을 쓰지 않지만, 도둑을 쉽게 용서해주지 않고 엄격하게 처분한다고 하였다. 『宋史・高麗傳』에서도 고려의 법률이 잔인한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宋史・高麗傳』에 의하면 "형법은 참혹한 것이 없으나, 반역하고 부모를 욕하는 사람만 벤다. 나머지 법을 어긴 사람은 다 갈비뼈가 있는 부위를 때리는 형벌에 처한다.[265]"고 하였다. 『鷄林類事』에서도 고려에 대해 "풍속에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소송이 적다. 국법이 매우 엄격해 종이 한 치까지 따진다. 법을 어기면 바로 처벌한다. 대죄를 지은 사람은 형부에 구속돼 일 년 후에 처결하고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반역하고 부모를 욕하는 사람만 벤다. 나머지 법을 어긴 사람은 다 갈비뼈가 있는 부위를 때리는 형벌에 처한다."[266]라고 하였다. 내용을 비교해보면, 동월이 『宋史・高麗傳』과 『鷄林類事』에서 조선의 법률에 관한 부분을 읽어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宋史・高麗傳』과 『鷄林類事』 모두 조선의 법률 제도 문제를 다루었으니 「조선부」에서도 법률 제도에 대해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宋史・高麗傳』과 『鷄林類事』에서 "부모를 욕하는 죄", 곧 杖肋을 이미 다루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췌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宋史・高麗傳』과 『鷄林類事』에서 언급하지 않은 宮刑과 도둑을 처벌하는 荷校에 대해 설명한 듯하다. 궁형을 쓰지 않는 것을 例로 삼아 『宋史・高麗傳』에서 말한 "형법은 참혹한 것이 없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鷄林類事』에서 "고려의 풍속에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其俗不盜]"라고 했던 까닭을 나름대로 밝힌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조선부」는 옛 기록에서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은 간략하게 서술하고, 간단히 언급된 내용은 세세히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조선 자료에서 누락된 분야와 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

263) "董越朝鮮賦, 父曰阿必, 母曰額𤣥." (李裕元, 『林下筆記』, 권19)

264) "刑不以宮, 盜乃荷校. [閹宦皆非宮刑, 惟取幼時傷疾者為之, 所以甚少, 惟盜賊則不輕貸.]" (董越, 「조선부」)

265) "刑無慘酷之科, 唯惡逆及罵父母者斬, 余皆杖肋." (『宋史』 卷487, 『高麗傳』, 中華書局點校本(四十), 14055쪽.)

266) "其俗不盜, 少爭訟. 國法至嚴, 追呼唯寸紙, 不至卽罰. 凡大罪亦刑部拘役也, 周歲待決, 終不逃. 其法惡逆及詈父母乃斬, 余止杖肋....." (『中華大典』工作委員會, 『中華大典』編纂委員會編纂, 『中華大典・歷史大典・域外分典』, 浙江古籍出版社, 2004, 162쪽.)

2) 舊記錄에 대한 修正

① 物産

『高麗圖經』에서 간단히 언급되었던 黃毫筆, 苧麻布, 紙 등이 「조선부」에서는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267] 『明一統志』에서는 "조선에 이리 꼬리로 만든 붓이 있다." 라고만 하였는데, 동월은 조선에 가서 물어 보았더니 이리 꼬리가 아니고, 족제비의 털로 만든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조선부」에서 狼毫筆에 관한 옛 기록의 오류를 바로잡았다.[268]

또 "조선에서 베는 삼으로 짜는데 모시로 이름 지은 것은 아마 잘못 전해들은 데서 나온 것이다"[269]라고 지적하였다. 『태종실록』 1411년 9월 1일의 기록을 보면, 명나라 사신 황엄이 요구한 많은 물건을 공조에서 판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황엄이 요구한 물건 중에 苧麻布가 있었다.[270] "苧麻布는 모시[苧]로 이름 지었는데 사실은 삼으로 짜는 것이다."라는 점은 동월이 「조선부」에서 정확히 짚어냈다. 그리고 옛날에는 조선에서 나는 종이는 고치로 만든 것이라고 하였는데, 동월이 조선에 와서 직접 불로 태워 시험해 본 뒤, 조선의 종이는 고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닥나무로 만든 것임을 알게 되었다. 만드는 솜씨가 교묘해서 그렇게 전해진 것이라 하였다.[271] 또 『明一統志』에서 百濟國에는 키가 석 자 되는 과하마가 난다고 했는데, 동월이 물어보았더니 나지 않은 지 오래 되었다고 하였다.[272] 간단히 말해서 「조선부」는 『明一統志』 등에 보이는 오류에 대해 수정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② 服飾과 風俗

『文獻通考』에 "조선 사람들은 折風巾을 쓰는데, 남자의 巾幘은 唐나라의 것과 같

---

267) "其國自種紵麻, 人多衣布.", "黃毫筆, 軟弱不可書. 舊傳爲猩猩毛, 未必然也. 紙不全用楮. 間以藤造, 搥搗皆滑膩, 高下數等." (徐兢, 『高麗圖經』 제23권)

268) "為志所稱者狼尾之筆, [一統志載, 「所產有狼尾之筆, 其管小如箭苛, 須長寸餘, 鋒穎而圓」 詢之, 乃黃鼠毫所制, 非狼尾也.] (董越, 「조선부」)

269) "布織以麻, 而以苧名者, 蓋出傳聞之誤." (董越, 「조선부」)

270) "贈內史良馬一匹, 苧麻布五十匹, 又贈貂裘毛冠靴各一, 人蔘三十觔, 花席十二張; 贈頭目公奉等五人, 各苧麻布四匹; 其下有差, 又以襦袂衣一襲贈之. 靜妃殿所贈苧麻布十五匹, 世子所贈苧麻布六匹. 凡儼之所求, 令工曹備辦, 物數不可勝紀." (『太宗實錄』 1411년 9월 1일)

271) "[舊皆傳其國所出之紙為繭造, 至乃知以楮為之, 但制造工耳. 予嘗以火試之而知其然.]" (董越, 「조선부」)

272) "[又一統志謂, 「百濟國出 『果下馬』, 其高三尺, 果下可乘」, 今百濟國之境正在楊花渡之南岸, 去王京不過二三十里, 詢之, 雲久已無產矣.]" (董越, 「조선부」)

다."라 하였다. 동월이 조선에 와서 보니, 지금 남자들은 모두 大帽를 쓰고, 오직 왕도에서 가마를 메는 자들만 육각으로 된 검은 비단의 부드러운 건을 쓰는데 육각에는 다 흰 솜으로 만든 공을 붙였다고 했다. 또 자색의 비단으로 만든 圓領을 입었으며, 발에는 뾰족한 코의 가죽신을 신었는데, 마치 唐馬를 탄 奚官을 그려 놓은 것과 같았다고 했다. 그 당시의 옷이 모두 이러했기 때문에 당나라와 같다고 말한 것이다.[273]

동월은 중국에 잘못 알려진 조선의 풍속에 대해서도 직접 견문한 바를 바탕으로 그 오류를 바로잡았다. 동월은 조선에 오기 전에 조선 시내에서는 여자가 남자와 같이 목욕하며, 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과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매우 놀랐다. 『고려도경』에서 "여름에는 날마다 두 번씩 목욕을 하는데 시내 가운데서 많이 한다. 남자 여자 분별없이 의관을 언덕에 놓고 물 구비 따라 몸을 벌거벗되, 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274]라 하였는데, 남자와 여자가 분별없이 옷을 벗고 같은 시내에서 목욕하는 것은 禮法에 맞지 않아 敎化된 文明禮儀之國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였다. "조선 풍속에 과부들이 관과 역에서 일을 한다."[275]라는 傳言을 듣고도 동월은 이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동월이 조선에 온 후에 咨詢하고 직접 봤더니, 시내에서 여자가 남자와 같이 목욕하고 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과부라는 풍속이 지금 이미 고쳐졌다는 것을 알고 「조선부」에 적어 두어 옛 기록을 수정하였다.[276]

③ 儀禮

혼례는 한 남성과 여성이 부부로 관계를 맺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예를 중심으로 하는 통치의 질서 속에서 家禮는 국가를 이끄는 중심이념이었으며, 가족의 존재와 지속은 국가의 질서와 번영으로 연장된다는 점에서 혼례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었다.[277]

조선의 혼례 풍속에 관해 『명일통지』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면 결혼

---

273) "乃若所謂男子巾幘如唐, 今則非昔. 果下之馬, 亦無三尺. [文獻通考謂其國人戴折風之巾幘如唐, 今男子皆戴大帽, 惟王都為王擧輿者戴六角皂絹軟巾. 六角皆綴白綿球, 穿紫絹圓領, 足躡尖頭皮履, 儼如所畫騎唐馬之奚官, 意當時所服必皆如此, 故云如唐.]" (董越, 「조선부」)

274) "夏月日再浴, 多在溪流中, 男女無別, 悉委衣冠於岸. 而沿流褻露, 不以爲怪." (徐兢, 『高麗圖經』 제23권)

275) "[皆傳其俗以孀婦供事館驛.]" (董越, 「조선부」)

276) "若夫所謂川浴同男, 郵役皆孀. 則甚駭於傳聞, 今則乃知已經更張.豈亦以聖化之所沾濡, 有如漢廣之不可方也歟. [予未使其國時皆傳, 其俗以孀婦供事館驛, 予甚惡其瀆. 比至, 則見凡來供事者, 皆州縣官吏, 婦人則執爨於驛外之別室. 相傳, 此俗自景泰中, 其國王瑈襲封以後變之. 遼東韓副總兵斌所談也. 川浴事出舊志, 今亦變.]" (董越, 「조선부」)

277) 이화형, 「한국전통 産育의례 속의 생명중시 의식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33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437면.

할 수 있다. 풍속에 游女가 많다. 밤이면 남녀가 떼를 지어서 모여 노는데, 서로 좋아하면 바로 결혼 시킨다. 재물을 보내 주는 예가 없다."[278]라고 하였다.[279] 『명일통지』의 기록에 따라 많은 중국인들이 조선의 혼례 풍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좋아하면 바로 결혼할 수 있고 問名, 納采, 納吉, 納徵, 納幣, 親迎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 혼인은 조심해서 중매하고, 改嫁해서 난 자식은 비록 많이 배워도 사류에 끼이지 못한다. [풍속이 改嫁 所生과 실행한 부녀의 자식은 다 서류에 들어갈 수 없다.][280]

위의 인용문에는 조선인들이 혼인을 신중하게 여긴다는 견해가 피력되어 있다. 개가 소생과 실행한 부녀의 자식은 나라 사람들이 천대하여서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으며 사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혼례 풍습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의 자식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의 혼인은 신중해야 하는 일로 여겨졌기에 중매를 필요로 했고 함부로 혼인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조선은 예로부터 儒家 思想을 숭상해 예의를 중시했으며, 혼인과 같은 일생의 중대사는 예를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명일통지』에 실린 "남자와 여자는 서로 좋아하면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金誠一이 일본 승려 宗陳의 질문에 답한 「風俗考異」에서도 나타난다.[281]

> 우리나라는 본디 예의를 숭상하는데, 혼인을 올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더 정중하게 한다. 同姓끼리는 혼사를 맺지 않고, - 비록 異姓이더라도 近族일 경우에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 - 또 혼인을 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 逆家의 자제와는 혼인을 하지 않고, - 반역을 한 집안을 말한다. - 亂家의 자제와는 혼인을 하지 않으며, - 음란한 행실이 있는 집안을 말한다. - 대대로 나쁜 병이 있는 집안과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집안의 수준이 서로 엇비슷하고 가풍이 바르게 선 집안을 골라서 혼인을 상의한다. 먼저 매파를 통해 교섭을 한 뒤 양쪽 집안이 서로 허락하면 문명, 납채, 납길, 납징, 납폐, 친영 등 여섯 가지 예를 갖춘다. - 여섯 가지 예를 치를 때에는 반드시 祠

---

278) "男女相悅為婚, 俗多遊女夜則男女羣聚為戲相悅即婚. 無財聘之禮." (『明一統志』 八十九卷)

279) 이는 『계림기사』에서도 기록되었다.

280) "婚媾謹乎媒妁, 子出再醮者雖多學亦不得齒於士流. [俗恥再嫁所生及失行婦女之子, 皆不許入士流, 登仕版.]" (동월, 「조선부」)

281) 日本 僧侶 종진(宗陳 자는 古溪, 호는 蒲庵, 京都 大德寺 제117대 주지, 1561~1619)이 『대명일통지』에 실린 조선 연혁 및 風俗條를 가지고 와서 묻는 것을 학봉이 逐條 해설한 것으로 조선의 역사·문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온갖 잘못된 기사들을 명쾌하게 지적하고 辨破하였다.

廟에 고한다...(중략)... 우리나라 혼인의 예가 이와 같이 근엄한데 어찌 서로 좋아하면 결혼을 하여 聘幣의 예가 없을 리 있겠는가. 중국이 전해들은 말을 잘못 기록하였으니, 참으로 통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庶人들의 경우에는 능히 예를 다 갖추지 못하고 간략하게 치르는 풍습이 있으나, 이 역시 그 부모가 반드시 매파를 통해서 혼약을 하며, 納幣를 하여 예를 이루지, 서로 좋아하여 결혼시키는 경우는 없다. 이른바 서로 좋아하면 혼인한다는 것은, 貴國의 기생들이나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간혹 이런 음란한 풍습이 있기는 하나, 나라 사람들이 천대하여서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으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벼슬길에 나올 수가 없다. 士族 부인들의 경우에는 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행실을 잃으면 絞刑에 처하고 자손은 禁錮시킨다.[282]

위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선의 혼인 풍습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同姓, 반역을 한 집안, 음란한 행실이 있는 집안, 그리고 대대로 나쁜 병이 있는 집안과는 혼사를 맺지 않는다. 둘째, 반드시 매파를 통해서 혼약을 하며, 納幣를 하여 예를 이루지, 서로 좋아한다고 하여 결혼시키는 경우는 없다. 셋째, 士族 부인들은 개가할 수 없고 혼례의 법도를 지키지 않은 자의 소생과 실행한 부녀의 자식은 모두 사류에 들어갈 수 없다.[283] 이처럼 김성일이 반박할 정도로 일본에까지도 조선의 풍속이 잘못 알려져 있었는데, 동월은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조선부」를 통해 조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하였다.

「조선부」에는 조선 喪禮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는데, 『명일통지』의 기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조선에 와서 직접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였다.

자식에게 삼년상이 있어 비록 노복이라도 행하는 것을 허락하여 그 효를 이룰 수 있게 한다. [나라 풍속에 상은 반드시 3년이고 또 여묘를 숭상한다. 노복에게는 백일 상을 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3년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청탁을 들어준다.][284]

조선에서는 儒風이 성행하여 효도를 특별히 중시했다. 「조선부」에 따르면 부모의 상은 반드시 3년을 치렀고 여묘를 숭상했다고 한다. 이는 『명일통지』의 기록과 차

282) “我國素秉禮義, 婚姻之際. 尤致其謹, 不娶同姓. 雖異姓, 近族則不娶. 又有三不娶, 逆家子不娶, 叛逆 亂家子不娶, 淫亂世有惡疾不娶. 必擇門戶相適家風修整者與之議婚. 先使媒氏通言, 兩家相許, 則有問名, 納采, 納吉, 納徵, 納幣, 親迎等六禮. 行六禮時, 必先告祠廟...(중략)... 國朝婚姻之禮謹嚴如此, 安有相悅爲婚, 無聘財之理. 中國傳聞而誤記之, 不亦可痛矣哉. 如庶人則不能備禮, 多有苟簡之風. 然其父母必通媒妁, 納幣而成禮, 亦無相悅之婚. 所謂相悅者, 如貴國傾城者之所爲也. 我國亦間有此等淫風, 而國人賤之, 不齒人類. 其所産子孫不通仕路. 士族婦人,則不許改嫁, 失行則絞. 子孫亦禁錮.”(김성일, 『학봉집』 권6 雜著 風俗考異)

283) 이종묵, 『부부』, 문학동네, 2011, 39~40쪽 참조.

284) “子有三年之喪, 雖奴僕亦許行以成其孝. [國俗, 喪必三年, 且尚廬墓. 奴僕例許行百日之喪, 有願行三年者亦聽.]”(동월, 「조선부」)

이가 난다. 『명일통지』에는 "조선에서 사람이 죽으면 3년이 지난 뒤에 장사 지낸다. 부모와 남편의 상에는 모두 3년복을 입고, 형제간에는 3개월 복을 입는다. 매장이 끝나면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에 썼던 의복, 노리개, 수레, 말 등을 가져다가 무덤 곁에 놓아두는데, 장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앞 다투어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다.[285] 조선의 상례 풍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당장 장사를 지내지 않고 장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물품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명일통지』에 기록된 조선의 상례 풍습은 경박하고 예의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 「조선부」에 기록된 내용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명일통지』의 해당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학봉집』의 「풍속고이」를 통해서도 이러한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수 있다.

> …(중략)… 상례의 근엄하기가 이와 같은데 어찌 3년 동안 매장하지 않는 일이 있겠는가. 매장한 뒤에 죽은 자가 쓰던 의복이나 수레, 말 등을 무덤가에 가지고 오면 장례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앞 다투어 가져간다는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대개 우리나라의 풍속은 일반적으로 인가에 초상이 나면 누구나 달려가서 일을 도와주고, 친척과 붕우의 喪故에는 반드시 錢財, 의복, 향촉 등의 물품으로 賻儀를 하며, 곡읍하고 弔祭를 함에 있어 정과 예를 다하고 있다. 만약 장사 지내는 날에 죽은 사람의 물품을 앞 다투어 가지고 간다면 이것은 禽獸나 도적과 다를 바가 없다. 예의의 나라에서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하겠는가.[286]

사실 조선의 상례는 한결같이 朱子의 『가례』를 따르고, 또 周의 『의례』를 참고하여 古今의 마땅함을 참작하고 人情과 禮文의 절도에 맞게 하였지, 마음 내키는 대로 곧장 행하는 경우는 없었다. 동월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바탕으로 조선의 혼례와 상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겨, 『명일통지』의 여러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동월의 「조선부」를 통해 조선의 혼례·상례에 대한 실상이 소개됨으로써, 조선은 야만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고, 예의를 중시하는 文明之國으로서 중국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부」는 조선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만, 당시 정보 출처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한 오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선부」의 잘못된 기록으로 무엇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먼저 「조선부」의 잘못된 지리 정보를 살펴볼 것이다. 「조선부」에서는 "성불령이

---

285) "死經三年而葬. 死經三年而葬居, 父母夫喪服皆三年. 兄弟三月埋訖以死者服. 玩車馬至墓側會葬者争取而去."(『明一統志』, 八十九卷.)

286) "喪禮謹嚴如此, 寧有三年不葬之事. 至於埋訖, 以死者服玩車馬至墓側. 會葬者爭取而去, 則尤悖理也. 蓋我國之俗, 凡民有喪, 莫不匍匐救之. 親戚朋友之喪, 則必以錢財衣服香燭等物來賻. 哭泣弔祭, 各盡情禮. 若於葬日, 爭取死者之物, 則是與禽獸盜賊無異也. 曾謂禮義之國, 而忍爲此乎."(김성일, 『학봉집』 권6 雜著 風俗考異)

북으로 자비령에 이어지고, 남으로는 발해에 임한다."라고 하였다.[287] 성불령은 황주에 속한 곳으로 남쪽은 서해바다이다. 「용비어천가」 제1장에서 "동해의 다른 이름은 발해이다[東海之別有渤澥]"라고 하였다. 즉 渤澥는 동해를 가리킨 것이다. 성불령의 남쪽은 서해인데 「조선부」에서 동해라고 하였으므로 잘못된 정보이다.

그리고 「조선부」의 과거제에 관한 기록도 정확하지 않다. 「조선부」 自注에서 "조선이 중국 조정의 정삭을 받들고 향시는 자와 오, 묘, 유의 해에 행하고, 회시와 전시는 진, 술, 축, 미의 해에 행한다"[288]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중종실록』 1537년 3월 11일 가사를 보면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서 인재를 뽑는 방식을 물었을 때 조선 국왕이 "향시는 인과 신과 사와 해[寅申巳亥]의 해에 시행하고 회시는 자와 오와 묘와 유[子午卯酉]의 해에 시행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289] 즉 회시를 시행하는 때가 자와 오와 묘와 유[子午卯酉]의 해인데 동월은 이를 향시를 시행하는 시간으로 착각한 것이다. 회시를 시행하는 해에 대한 기록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조선부」의 開城 동쪽 陵墓에 관한 기술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조선부」에서는 開城 동쪽에 陵墓가 있는데 지금 조선 국왕의 선대의 무덤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오류다. 조선시대는 27대에 이르는 왕과 왕비, 추종왕의 무덤인 陵이 44기 있으며, 이 중 연산군과 광해군은 폐위된 왕으로서 묘로 조성되었으므로 왕릉은 42기이다. 이 가운데 태조의 원비인 신의왕후의 제릉과 정종과 정안왕후의 후릉은 북한 개성에 자리 잡고 있어, 남한에 있는 능원은 능 40기가 있다.[290] 그러므로 「조선부」 자주에서 "동쪽에 능묘가 있으니 바로 지금 국왕 이씨의 선대 무덤이다."라고 한 말은 틀린 것이다. 아마도 통역이 말을 잘못 전한 것이 아닌가 한다.

---

287) "成佛雄關, 棄石磊磊. 北接慈悲, 南臨渤澥. 在前元則畫此為界, 至國朝乃示以無外也. [成佛嶺北枕山, 南枕海. 山巔睥睨, 高出雲表. 一關口棄舊時所伐甃城方石數堆. 詢之一通事, 云其北即慈悲嶺, 元時畫此為界, 此即其關口. 若然則自鴨綠江東抵平壤皆為內地,]" (동월, 「조선부」)

288) "士窮則闢蠹雕蟲, 宦達則搏鵬變豹. [其國奉朝廷正朔, 鄉試以子午卯酉年, 會試殿試亦辰戌丑未年.]" (동월, 「조선부」)

289) "'願問一事, 貴國取士規矩, 何以爲之?' 上答曰: '鄉試則寅申巳亥之年爲之, 會試則子午卯酉之年爲之." 正使又問額數幾何? 上答曰: "會試, 取三十三人矣.' 正使曰: '有科錄乎?' 上曰: '有之.' 正使曰: '然則願一見其錄.'" (『중종실록』 1537년 3월11일 기사)

290) 이창환 지음; 서헌강 사진, 『신의 정원 조선왕릉』, 한숲, 2014, 21쪽 참조.

Ⅳ.「朝鮮賦」의 의의

동월 이전에도 조선에 다녀온 많은 사신들이 조선에서의 견문을 시문의 형태로 남겼다. 예컨대 『황화집』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는 조선의 명승고적에 대한 감상을 담은 것들이 많다. 그러나 기자묘나 東明王 사당처럼 하나의 경승지만을 소재로 삼아 쓴 「大平館登樓賦」, 「鳳山賦」, 「雪霽登樓賦」, 「謁箕子祠賦」 등과 달리 「조선부」는 조선의 모습을 개괄적으로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가 하면 龔用卿의 『사조선록』과 같이 조선의 다양한 풍속과 자연환경을 자세히 기록한 산문 사행록의 경우는 그 편폭이 너무 길어, 완독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흥미도 떨어지게 된다. 이에 반해 「조선부」는 일반적인 산문에 비해 짧은 편폭으로 조선의 여러 가지 모습을 포괄하여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다른 조선 사행록이나 조선 견문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다.

이와 함께 동월은 조선에 파견된 사신으로서 조선 문인들과 공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함께 交遊하고 시를 읊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깊은 학식과 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특별한 우정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董越과 王敞이 조선에서 떠난 후에 接伴使 許琮에게 써 보낸 시 「寄許吏曹」에서 엿볼 수 있다. “사람을 그린다[懷人]”, “서로 간의 감정은 다 똑같다[彼此之情, 諒無二致]”, “곧 다시 만날 수 없으니, 참으로 섭섭하네[重會未卽, 令人悵然]”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허종에 대한 동월의 그리움과 두 사람 사이의 진지한 우정이 엿보인다. 또한 『성종실록』 19년 4월 9일조에 보면, 압록강에서 이별했을 때 동월이 눈물을 머금고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이별의 슬픔에 빠진 모습이 보인다.[291] 동월이 조선에 체류한 기간은 짧았지만, 머무는 동안 조선 문인들과 깊은 정이 들었기에, 이별에 임하자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 문인들과의 교유에서 형성된 우호적 감정이 존재했기에, 동월은 보다 적극적으로 조선에서의 견문을 중국에 알리고자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조선부」였다고 할 수 있다. 동월 이후에 조선을 방문한 중국 사신들에게 「조선부」는 실로 문학 외교의 전범으로 인식되었으며, 장편시나 연작시로 조선의 자연과 문물을 중국에 알리는 것이 사신 본연의 임무처럼 여겨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292]

이와 함께 「조선부」는 중국에서 출판되어 널리 읽히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일례로, 조선어 관련 참고문헌으로 활용되었다. 청나라 말기의 학자 文廷式

---

291) “到鴨綠江上設餞宴, 兩使語通事孫重根曰: ‘殿下向朝廷, 盡其誠敬.’ 臨別, 兩使語臣曰: ‘多蒙賢王厚意, 感激而歸.’ 臣送至舟中, 相別之際, 兩使皆有悽然之色. 正使則含淚不能言.” (『成宗實錄성종실록』 성종 19년 4월 19일)

292) 董越 지음, 김영국 옮김, 위 책, 9쪽.

(1856~1904)은 『純常子枝語』에서 「조선부」에 나오는 조선어 관련 기록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 동월의 「조선부」 주석에 이르기를, "그 나라의 소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글을 읽을 적에는 평성이 거성과 같다. 예컨대 '星'을 '聖', '煙'을 '燕'이라고 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평상시에 쓰는 말은 여진의 말과 비슷한 데가 많다. 심지어는 한 글자를 3, 4자로 늘려서 부르는 것도 있다. 예컨대 '八'을 '야득이불'이라고 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한 글자를 두 글자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은 더욱 많았다."라고 하였다.[293]

이렇듯 「조선부」에는 15세기 중엽 한국어의 실태에 대한 귀중한 증언들이 담겨 있는데, 『계림유사』를 제외하면, 역대 사행록들 중에 이처럼 한국어의 옛 모습을 전해주는 기록은 드문 편이다. 아울러 「조선부」에 나오는 조선어 관련 기록들은 15세기 중엽의 한국어뿐 아니라, 동시대 중국의 한자음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부」는 중국인들이 조선의 지방행정구역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淸一統志』 권550의 「朝鮮」조에는 "국내 팔도로 나누어 중간은 경기도이고, 동쪽은 강원도이고[원래의 貊地], 서쪽은 황해도이고[고조선 옛 마한의 땅이다], 남쪽은 전라도이고[옛 변한 땅이다], 동남은 경상도이고[옛 진한 땅이다], 서남은 충청도이고[옛 마한의 땅이다], 동북은 함경도이며[옛 고구려의 땅이다], 서북은 평안도이다[원래 조선의 고지이다]"[294]라는 구절이 있다. 조선의 팔도에 대해 설명한 것인데, 이보다 앞선 시기 기록인 『明一統志』 권89에 실린 「朝鮮國」조에는 팔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淸一統志』 권550 「朝鮮」은 『明一統志』 권89의 「朝鮮國」을 바탕으로 수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淸一統志』 「朝鮮」조에 실린 팔도 관련 내용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에 대한 단서는 「조선부」의 다음 기록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 조선은 팔도로 나눈다. 경기가 홀로 높고 충청・경상・황해・강원으로 날개를 삼았다. 이름을 영안이라고 한 것은 국경이 견고히 안정되게 하고자 하는 뜻이다. 평안은 땅이 조금 척박하고, 전라는 물산이 가장 풍부하다. [경기・충청・경상・황해・강원・연안・평안・전라는 다 도의 이름이다. 평안은 곧 옛날 변한의 땅이며, 경상은 곧 옛날 진한의 땅이며, 전라는 곧 옛날 마한의 땅이다.][295]

---

293) "董越朝鮮賦注曰, 其國音有二樣, 讀書則平聲似去, 如以星爲聖以, 煙爲燕之類, 常語則多類女直. 甚至以一字爲三四字呼者, 如以八爲也得理不之類是也. 一字作二字呼者尤多."(文廷式, 『純常子枝語』, 卷三十一, 中國古籍基本庫.)

294) "國內分八道, 中曰京幾, 東曰江源[本貊地], 西曰黃海[古朝鮮馬韓舊地], 南曰全羅[本弁韓地], 東南曰慶尚, [本辰韓地], 西南曰忠淸, [古馬韓地], 東北曰咸鏡, [本高句驪], 西北曰平安, [本朝鮮故地]."(『淸一統志』, 권550, 中國基本古籍庫)

한눈에 봐도 『淸一統志』「朝鮮」조의 팔도 관련 서술과 매우 닮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자료 모두 팔도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소개하고, 각 도가 옛날에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 알려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내용 전개 방식이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淸一統志』에 실린 조선 팔도에 관한 내용은 「조선부」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조선부」는 중국 域外賦 창작의 전범으로서 활용되기도 했다. 1797년 淸 和寧(?~1821)이 「조선부」의 체제를 모방해 티베트의 토지 沿革, 풍속, 駐兵제도, 산천, 지리, 畜産 등을 내용으로 「西藏賦」를 작성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和寧은 자가 太庵이며, 蒙古 鑲黃旗 사람이다. 그는 1793년 副都統銜으로 駐藏大臣이 되어 8년간 연임했는데, 「西藏賦」는 바로 이 시기에 작성된 것이었다. 和寧은 「西藏賦」를 쓰기 위해 圖經과 地志를 많이 읽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고를 구사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西藏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함으로써 「조선부」의 계보를 잇는 異域賦 작품을 창조해냈다. 실제로 「西藏賦」에는 다른 책에는 전하지 않는 티베트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 작가가 직접 체험한 견문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조선부」가 조선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되었듯이, 「西藏賦」 또한 티베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 자료로 평가되었다.[296]

자유로이 외국을 오갈 수 없던 시절, 중국인이 조선을 인식하는 중요한 통로 중의 하나가 바로 사행이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절단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탓에, 조선의 風土人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직 조선에 관한 詩文과 그림을 통해 조선을 접할 수 있었다. 「조선부」는 조선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선의 사회 모습을 상세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이 명나라에 보낸 사신에 비해 명나라가 조선에 보낸 사신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비교적 적은 수의 사행 기록이 남아있으며, 이 소수의 기록들이 중국 사신의 對朝鮮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따라서 조선의 입장에서 「조선부」는 당시의 중국 사람들이 조선을 어떻게 보았는지, 외국 사람의 눈에 비친 조선의 풍속은 긍정적인 것이었는지 부정적인 것이었는지 등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조선부」는 조선 전기까지는 국내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나, 조선 후기 실학자들 사이에서 자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조선

295) "八道星分, 京畿獨尊, 翼以忠淸慶尙, 黃海江原. 義取永安, 意在固垣. 平安地稍瘠薄, 全羅物最富繁. [京畿忠淸慶尙黃海江原永安平安全羅, 皆道名. 平安即古弁韓地, 慶尙即古辰韓地, 全羅即古馬韓地.]" (董越, 「朝鮮賦」)

296) 黃葦, 『中國地方志詞典』, 黃山書社, 1986, 149쪽.

전기의 시대상을 증언해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인식되었다. 당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다룬 저술은 많았지만, 조선 전기에 관한 자료는『용재총화』외에는 드물었으며, 조선 전기의 역사를 꼼꼼히 기록한 實錄이 있긴 했지만 접근에 제약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사신 동월이 쓴「조선부」는 조선 전기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함에 있어, 조선의 학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였다. 이하에서는「조선부」가 조선 지식인들의 자국문화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531년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제1권 京都上에는「조선부」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柳本藝(1777~1842)의『漢京識略』에서도 성균관, 태평관, 형승, 귀후서, 沙峴을 묘사하는 대목에서「조선부」의 내용을 인용하였다.『漢京識略』은 한성부의 역사와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지방지인데, 권1에 天文・沿革・形勝・城郭・宮闕・壇壝・廟殿宮・祠廟・苑囿・宮室・闕內各司・昌慶宮內各司・慶熙宮內各司, 권2에 闕外各司・驛院・橋梁・古蹟・山川・名勝・各洞・市廛 등이 수록되어 있다.『漢京識略』에서 다루어진 태평관・성균관・귀후서 등의 각사 건물들은 일반인이 직접 들어가 자세히 관찰하기 어려운 곳이었기에,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았다. 반면 동월은 명나라 사신의 자격으로 한양의 주요 장소들을 방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기록을「조선부」에 남겼다. 따라서「조선부」에 묘사된 한양의 풍경에 관한 기록들은『漢京識略』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주목되었을 것이다.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혁방안을 구상하던 조선 후기 실학자들도「조선부」를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동월은「조선부」에서 동국 사람이 집에서는 돼지를 기르지 않고 집 바깥에 울타리를 쳐 우리를 만든다고 했고, 가축 중에는 양이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297] 당시 중국에서는 집 안에다 울타리를 쳐서 돼지・양 등의 가축을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동월의 눈에 위와 같은 조선의 풍습이 낯설어 보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 후기의 실학자 柳壽垣(1694~1755)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동월의「조선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닭과 돼지를 놓아 키우면서 우리를 짓지 않고, 채소밭에 울타리도 치지 않는 것은 매우 괴이한 일이라고 기록된 것이 보이니,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목축 방법이 좋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풍습이 돼지우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한 집이 돼지를 치면 온 마을이 모두 원망하여 돼지를 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인데, 어찌 번식되지 않아서 그렇다 하겠는가.
>
> 그리고 양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北羊은 털이 아름다우나 성미가 조급해서 火羊이라고도 부르고, 南羊은 털이 연하고 성미가 유순해서 綿羊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양은 모두가 遼, 金에서 보내온 火羊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

297)“所不可曉者, 家不豢豕, 蔬不設樊. 引重則惟見牛馬...(중략)...芻牧絕不見羊羝.”(동월,「조선부」)

에서는 키우기가 적합하지 못한 것이니, 만약 면양의 종자를 얻어다가 키운다면 어찌 번식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양이 비록 흔한 가축이기는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귀해서 한 마리의 貢價가 쌀 수십여 섬에 이르고 있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다.

또 거위나 오리로 말할지라도 중국의 鵝戶들은 부화시킬 때 알의 껍데기를 갉아내기 때문에 새끼 거위가 알을 깨고 나오기가 매우 쉬우며 또 보리를 섞어 먹이기 때문에 살찌고 자라는 것이 매우 빠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이같이 거위를 키우고 있는가. 중국 사람들은 오로지 한 가지 일만을 하는 까닭에 일이 전문화되고 이익도 많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의 餘事로 틈틈이 가축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일이 전문적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번성하게 키울 수가 없는 것이다. 어찌 물산이 풍부치 못하고 풍토가 같지 않다는 것에 그 허물을 돌릴 수 있겠는가."[298]

유수원은 중국과 달리 조선에서 양이 잘 번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양의 품종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조선의 양들은 대부분이 遼·金에서 보내온 火羊인데, 이 품종은 성미가 조급하여 키우기에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丁若鏞(1762~1836)의 『경세유표』에도 양 키우는 일을 언급하며 「조선부」를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 『경세유표』에 이르기를 "중국 사람이 '조선에는 양이 없다'라고 하나, 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집집마다 소를 치니 소를 구할 수가 있고, 마을마다 돼지를 치니 돼지도 구할 수 있으나, 유독 양은 구할 수가 없다."라 하였다. 그리고 牧畜을 맡은 관서를 다시 설치하고 목인 수십 명을 증원한 다음, 近郊에 보내어 양을 키우는 데에 전념토록 함이 마땅하다는 건의를 하였다.[299] 『경세유표』에서 언급된 '중국사람'은 아마 "조선에서 기르는 가축들 중에는 양이 전혀 안 보인다[芻牧絶不見羊羷]"라고 한 동월일 것이다.

다음으로 물명의 고증 과정에서 「조선부」가 인용된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芝峯類說』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

298) "董越朝鮮賦以我國人縱放鷄猪, 不置圈柵, 且不設籬於菜圃爲極怪異之事. 此可見東俗之不善畜牧矣. 國俗不善爲猪圈, 一戶牧豕, 擧村皆怨, 故牧豕者無多, 豈由於不繁滋之致耶. 羊有二種, 北羊毛美而性燥, 故謂之火羊; 南羊毛脆而性柔, 故謂之綿羊. 卽今羊種, 皆是遼金所贈火羊, 故不宜於東國. 若得綿羊之種, 則寧有不繁之理. 羊雖賤畜, 而我國則以其絶貴之, 故一頭貢價, 至費數十餘石之米, 誠可歎也. 以鵝鴨言之, 中原鵝戶刮其卵皮, 啄苞甚易, 且喂牟麥, 肥壯尤速. 我國之人, 果能養鵝如此乎? 中國之人, 專爲一事, 故業專而利廣. 我國之人, 不過以餘事閑隙, 爲此等畜牧, 故所業不專. 所畜不盛, 烏可歸咎於物產不豐, 風土不同之致哉." (유수원, 『우서』 卷一,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참고)

299) "中國之人曰, 朝鮮無羊, 非無羊也, 不牧羊也. 國俗家家牧牛, 牛可得也. 村村牧豕, 豕可得也. 獨羊不可得也... (중략)... 今宜復設司畜之署, 增置牧人數十人, 分遣近郊, 專意牧羊. 如栗島, 在龍山; 典島, 靑羅島, 在富平; 彌法島, 在江華. 諸處, 皆設苙牧羊, 令歲終奏其功狀. 自本署, 考其勤慢, 報于戶曹. 其有功者, 令得西班末職. 則不出十年, 朝鮮之羊, 其濈濈矣." (정약용, 『經世遺表』 제1권,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참조.)

우리나라의 낭서모필은『일통지』에서 낭모필이라 부르고 蘇軾과 黃庭堅의 시에서 성성모필이라고 하였다. 동월의「조선부」자주에 이르기를, "『일통지』에서 말한 늑대꼬리털로 만든 붓은 黃鼠의 털로 만든 것이지, 늑대꼬리털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 하였다. 동월이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와서 비로소 그것을 알았다. 내가 북경에 갔을 때 안남·유구의 사신이 '귀국의 붓과 먹이 천하의 절품이라 들었는데, 얻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300]

『대명일통지』에서는 조선의 특산물인 狼尾筆을 소개하며 늑대꼬리로 만든 붓이라고 하였는데, 동월이 조선에 사신으로 다녀간 뒤에 그것이 늑대꼬리털이 아니라 黃鼠의 털로 만든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다.『芝峯類說』에서 말한 것처럼 동월이 조선에 오기 전에, 중국 사람들은 모두 낭미필이 늑대꼬리털로 만든 붓이라고 생각했다. 동월은 조선 사행을 통해 그것이 黃鼠의 털로 만든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조선부」에 적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았던 것이다. 박지원이 쓴『熱河日記』에서는 狼毛筆의 어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른바 '狼毛筆'이란 더욱 잘못인 것이, 늑대가 무슨 짐승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찌 그 꼬리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곧 족제비의 俗名 獷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獷 자에서 녹(犭) 변을 떼고 또 廣 자에서 엄(广)을 버리면 黃 자가 되므로 이를 '黃筆'이라 한다.[301]

『熱河日記』에서도 이른바 '狼毛筆'이 늑대꼬리로 만든 붓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芝峯類說』에 인용된「조선부」의 내용과 일치한다.

「조선부」에 등장하는 조선의 해산물 관련 기록들도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누차 인용되었다. 이수광은『芝峯類說』에서 문어를 설명하면서「조선부」를 인용한 바 있다.[302] 李瀷의『星湖僿說』에서도 문어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조선부」를 인용하였다.

---

300) "我國狼鼠毛筆, 取重於中國. 一統志謂狼尾筆, 蘇黃詩謂猩猩毛筆. 董越朝鮮賦自註云一統志所載狼尾筆, 非狼尾, 乃黃鼠毛也. 蓋董奉使本國, 始知之耳. 余赴京時, 安南琉球使臣皆言貴國筆墨, 爲天下絶品, 願得之云."(李睟光,『芝峯類說』卷19,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참조)

301) "所謂狼尾, 尤爲訛謬, 吾不識狼尾何獸, 又安得其尾哉. 此鼠狼, 名爲獷, 所謂黃筆者是也."(박지원,『열하일기』관내정사 25일 신축,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참조.)

302) "文魚名八帶魚, 亦名八梢魚. 天使王敞詩'果下已無三尺馬,盤中時有八梢魚'是也. 『東醫寶鑑』曰: '小八梢魚本草名, 章擧魚一名石距, 比烏賊魚差大, 味珍好, 卽今所謂絡締也. 董越「朝鮮賦」曰, 魚則錦紋, 飴項, 重唇, 八梢. 自註云錦紋似鰥而身圓. 飴項如鰷但見乾者. 重唇如華之赤眼鯉. 唇如馬鼻, 肉甚美. 八梢卽江浙之望潮. 大者長四五尺. 蓋所謂錦紋卽錦鱗魚, 飽項卽餘項魚, 重唇卽訥魚, 八梢卽文魚也."(李睟光,『芝峯類說』, 권 20.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참조.)

조금 후에 文魚羹을 올렸는데, 문어란 것은 바로 八梢魚다. 그런데 天將도 역시 난처한 빛을 보이고 먹지 않았다.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이 문어는 우리나라에만 생산되는 까닭에 천장이 처음 보게 된 것이다."고 한다. 내가 天使 董越이 지은 朝鮮賦를 보니, 그의 自註에, "문어는 바로 중국 浙江에서 나는 望潮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임진년 난리 때 李如松의 무리들은 대부분 중국 북쪽 지방의 사람인지라, 남북 거리가 동떨어지게 멀기 때문에 江淮의 어물을 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303]

위의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왔던 명나라 장수 李如松은 조선 측에서 올린 文魚羹을 보고는 오래도록 주저하다가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이를 두고 명나라 사람들은 문어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 나왔다. 문어는 조선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월의 「조선부」를 보면 "조선의 문어는 바로 중국 浙江 지역의 望潮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중국에도 문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익은 「조선부」에 나오는 문어 관련 기록을 인용한 뒤, 李如松 등 임진왜란 당시 파병되었던 명나라 장수들 대부분이 북방 출신이었던 까닭에, 浙江과 같은 남방에서 생산되는 문어를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丁若銓 또한 『玆山魚譜』에서 章魚를 설명하면서 「조선부」에 나오는 팔초어 관련 내용을 인용했다. 『자산어보』는 1801년 전라도 黑山島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정약전이 근해의 수산생물을 직접 조사하여 편찬한 어류 백과사전으로, 수산동식물 155종에 대한 명칭・분포・형태・습성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玆山魚譜』의 「章魚」조에는 「조선부」가 다음과 같이 인용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八梢魚라 부른다. 동월의 「조선부」에서 "물고기는 곧 금문, 이항, 중순, 팔초다"라 했는데, 이에 대한 自注에서 "팔초는 곧 江浙 지역의 望潮다. 맛은 그다지 좋지 않다. 큰 놈은 길이가 4~5척이다"라고 했다. 『동의보감』에서 "八梢魚는 맛이 달고 독이 없다. 몸에는 여덟 개의 긴 다리가 있으며, 비늘도 없고 뼈도 없다. 八帶魚라고도 한다. 동북해에서 살며 속명은 문어다"라고 한 것이 곧 이것이다.[304]

정약전은 章魚가 곧 우리나라에서 일컫는 '八梢魚'라고 하면서, 「조선부」를 인용하여 이것이 곧 중국 절강지역에서 말하는 望潮임을 고증했다. 『자산어보』의 해당 내용을 통해, 章魚가 요즘 말하는 문어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조선시대에는 이를

303) "俄而進文魚羹, 文魚者, 八梢魚也. 天將亦有難色. 人傳此物只産於我土. 故天將觝見云. 余見天使董越「조선부」自註云, 文魚即浙江之望潮魚也. 然則壬辰李如松輩多是北人壤地絶遠江淮魚錯有所未見宜矣." (李瀷, 『星湖僿說』, 제5권, 萬物門.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참조.)

304) "我國稱八梢魚. 董越「朝鮮賦」: '魚則錦文, 鮐項, 重唇, 八梢.' 自注云: '八稍即江浙之望潮, 味頗不佳, 大者長四五尺.' 『東醫寶鑑』云: '八梢魚, 味甘, 無毒. 身有八條長脚, 無鱗無骨. 又名八帶魚. 生東北海, 俗名文魚.' 卽是也." (정약전, 이청 지음・ 정명현 옮김, 『자산어보』, 서해문집, 2016, 220~221쪽. 번역은 같은 책 108쪽 참조.)

‘팔초어’라 불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약전이 어류의 물명을 고증하는 과정에서 「조선부」를 인용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조선부」가 조선후기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음을 반증해준다.

『五洲衍文長箋散稿』는 19세기 조선 지성계의 고증적 경향을 대표하는 학자 李圭景(1788~1856)이 조선과 중국의 여러 책들을 정리하여 편찬한 類書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 경학, 천문, 지리, 불교, 도교, 서학, 풍수, 예제, 문학, 음악, 병법, 풍습, 서화, 광물, 초목, 의학, 농업 등 여러 분야가 방대하게 망라되어 있다.[305]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조선부」가 인용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나라 사신 동월의 「조선부」의 自註에 이르기를, “조상 때부터 일찍이 문무의 벼슬을 겸한 사람을 양반이라 한다. 양반 자제에게는 독서만 허락되며, 그들은 기예를 익히지 않는다.”라 하였다. 양반은 조선의 사대부를 일컫는 말인데, 천하에 그 명칭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비가 북경에 갔을 때, 중국의 점쟁이가 그의 내력을 묻기에 양반이라고 하니, ‘부귀가 이미 극도에 달하였으므로 말하지 않겠다.”라 하였다.[306]

양반은 처음에 문・무반 관료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여말선초부터는 점차적으로 관제상의 문・무반뿐만 아니라 지배층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조선부」의 自註에서 양반 자제에게는 다만 독서만 허락되고, 기예는 익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직역에 따라 사회계급을 구분하는 ‘士農工商’ 관념이 작용한 결과였을 것이다. 士農工商 중 최상층인 士에 해당하는 양반계급은 기술직이나 육체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며, 군역도 면제받는 특권을 가진 일종의 귀족계급이었다. 그래서 중국의 점쟁이도 조선 선비의 신분이 양반임을 알게 된 후에는, 운명을 점칠 필요조차 없다고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의 북경 사람들도 조선의 양반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부」와 같은 조선 사행록을 통해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林下筆記』에서는 권19의 「文獻指掌編・無謂之稱」[307], 권17의 「文獻指掌編・網巾」[308], 권17의 「文獻指掌編・靑衿團領」[309], 권11의 「文獻指掌編・楮紙」[310]등

305) 전상운, 「이규경과 그의 박물학」, 『성신여대논문집』, 1972, 89~90쪽 참조.

306) “皇明天使董越「조선부」注, 先世嘗兼文武官者, 謂之兩班. 兩班子弟, 止許讀書, 不習技藝. 兩班乃東土士大夫之稱, 有名於天下. 故我國士人遊燕都, 唐擧星命者, 問其來歷, 稱兩班則更不論其相命者, 貴已極矣, 故不復言云矣.”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人事篇・治道類)

307) “董越의 「조선부」에, ‘아비를 아필, 어미를 액미라 한다. 선세에 일찍이 문무의 관직을 겸하였던 자를 양반이라 부른다.” 하였다.” (이유원, 『임하필기』,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참조, 下同.)

308) “董越의 「조선부」에, ‘사람들은 관자를 드러내어 귀천을 구분한다.’ 하고, 자주에, ‘그 나라에서 머리를 묶어 매는 망건은 모두 말총으로 짜고 관자로 품급을 정하는데, 1품은 옥, 2품은 금, 3품 이하는 은, 서인은 뼈나 뿔, 구리, 조개껍데기 등을 쓴다.’ 하였다.’ 하였다.” (이유원, 『임하필기』.)

에서 각각 國音・망건・靑衿團領・楮紙를 설명하면서 「조선부」를 인용하였다. 『林下筆記』는 39권 33책으로 구성된 필기잡록집인데, 물명 고증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林下筆記』에 「조선부」가 인용된 상황을 보면, 특히 사람의 옷차림 관련 내용이 많이 인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지봉유설』, 『성호사설』, 『자산어보』, 『오주연문장전산고』, 『임하필기』 등 백과사전적 저술들에서 동월의 「조선부」가 인용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조선부」는 조선의 물산을 고증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서 활용되었다. 이는 그만큼 조선 중기・후기의 실학자들에 의해 「조선부」가 널리 읽혔고, 명물 고증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중국 사신의 접대에 관한 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신을 잘 대접했는지, 사신이 불만을 표한 점은 없는지와 같은 실무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세부적인 사실들은 대부분 빠져 있다. 이에 비해 동월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궁중의 연회부터 길거리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까지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했다. 외부자의 시선에서 조선인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조선의 모습들까지도 세세하게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외국인에 의해 저술된 「조선부」는 조선인들 스스로 기록한 역사기록물의 한계를 보완해준다고 할 수 있으며, 종국에는 이를 바탕으로 15세기 조선사회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

「조선부」에는 수많은 연향 관련 기록들이 등장하지만, 논쟁이나 의견 충돌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동월의 신분과 「조선부」의 창작 동기를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월은 명나라의 天子를 대표해 조선을 방문한 것인 만큼, 사행 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마찰이나 의견충돌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었다. 설사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더라도 이를 외교 보고서에 준하는 「조선부」에 그대로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조선부」는 조선과 명나라 境內에 폭넓게 읽힐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민감한 내용들을 임의로 적었다가 이를 조선의 문인과 대신들이 보게 된다면 兩國의

---

309) "董越의 「조선부」에 이르기를, '신발을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진흙탕 길을 다니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또 버선을 바지에 묶기 때문에 물을 건너게 되더라도 구애받지 않는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오색은 각기 쓰이는 바에 따르며, 금하는 것은 홍색이다.' 하고, 자주하기를, "왕의 복식과 기용에 모두 쓰이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백성들은 草帽를 쓰는데, 옷깃까지 모두 구슬을 드리우고 정수리 쪽은 혹 둥글기도 하고 모나기도 하며, 색은 모두 검다. 皁輿들은 네 조각으로 만든 푸른 적삼을 입고 정수리에는 깃털을 꽂으며, 庸人들은 여러 겹으로 만든 마포를 입는데 걸을 때면 긴 자락을 끌고 다닌다.' 하고, 또 이르기를, '윗도리는 모두 흰빛인데 베의 올이 대부분 거칠고, 아랫도리는 분리되어 나누어졌는데 주름이 또한 듬성듬성하다.' 하였다." (이유원, 『임하필기』.)

310) 「조선부」의 注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조선의 종이는 누에고치로 만드는 것으로 알았는데, 비로소 닥나무로 만드는 줄을 알았다. 다만 솜씨 있게 만들었을 뿐이다.' 하였다.

情誼를 상하게 할 수도 있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명나라 朝廷에서도 동월의 행동에 대한 가부를 따질 수 있었고, 조선의 명나라에 대한 '事大之誠'을 재고하게 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조선부」의 내용은 자연스레 태평성세를 찬미하고 명나라가 조선에 끼친 교화의 성대함을 칭송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다.

또한 동월은 조선 사행을 통해 조선 측 원접사였던 허종과 깊은 우의를 맺었고, 「조선부」를 완성한 후 허종에게 이를 보냈다. 이는 동월이 「조선부」를 쓰면서부터 허종에게 보낼 계획을 염두에 두었음을 짐작케 한다. 다시 말해, 조선의 문신이 「조선부」를 읽을 것을 감안하여, 양국 사이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문제들은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성 능묘 등에 관한 誤記가 있는 것도 「조선부」의 작은 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부」가 15세기 조선 역사를 재구하는 데 꼭 필요한, 사료적 가치가 높은 문학 작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Ⅴ. 결론

본고에서는 15세기 韓·中 문학교류사에서 그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조선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서, 작자인 동월의 생애와 조선 사행을 상세히 고찰하고, 「조선부」를 분석하여 그 내용 및 형식적 특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밝힌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예비적 고찰로서, 조선 사행의 역사와 동월의 사행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15세기까지 중국에서 조선으로 온 사신들은 주로 조선 출신의 환관들이었다. 1450년 최초의 翰林院 출신 사신 倪謙이 조선에 온 것을 계기로 명나라 사신과 조선의 접반관들 사이의 시문수창이 본격화 되었다. 그 후로 명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문에 능한 문신을 사신으로 임명하여 조선에 보냈다. 조선에서도 최고의 문인을 파견해 명 사신을 접대하도록 함으로써, 시문수창을 매개로 한 朝·明 양국 간의 '문명의 대결'이 펼쳐졌다. 중국 사신과 조선 문인이 수창한 작품들은 정리되어 『황화집』으로 간행되었다.

한편, 고대로부터 많은 중국 사신들이 한반도를 방문했고, 귀국 후에 자신의 견문을 기록하여 사행록을 남겼다. 唐代의 사행록으로는 陳大德의 『奉使高麗記』, 顧愔의 『新羅國記』, 馬宇의 『新羅紀行』 등이 있으며, 고려와 사신 교류가 빈번했던 宋代에는 전대에 비해 많은 양의 사행록이 집필되었는데, 孫穆의 『鷄林類事』와 徐兢의 『高麗圖經』이 특히 잘 알려져 있다. 동월의 「조선부」 또한 일종의 '사행록'에 해당하므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역대 사행록의 전통 속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동월의 생애와 교유양상, 그리고 그가 조선을 방문했던 1488년 사행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동월은 茶陵詩派의 핵심인물이었던 李東陽을 비롯하여 程敏政·邱濬·吳寬 등 한림원 출신 문신관료들과 많은 시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488년 동월의 조선 사행은 1년 전 있었던 홍치제의 등극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황화집』에 수록된 조선 문인들과 수창한 시들의 제목을 토대로 사행 여정을 재구해볼 수 있는데, 동월이 이끄는 사신단은 2월 21일 압록강을 건너 3월 13일 한양에 도착했고, 4월 4~7일 무렵에 다시 압록강을 넘어 遼陽으로 돌아갔다. 동월은 조선 사행을 떠나기 이전부터 중국에 온 조선 사신들을 탐문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으며, 조선에 머무는 동안에도 견문을 꼼꼼히 기록해 놓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치밀함은 「조선부」 창작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제3장에서는 「조선부」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동월의 저술태도와 조선 인식을 살폈다. 형식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조선부」가 부의 형식을 택했다는 사실이다. 賦가 일반 산문보다 형식적 제약이 많고 짓기에 까다로웠을 뿐만 아니라, 과거시험의 중요한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월은 부 형식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문재를 과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월은 「조선부」가 賦로서 갖는 서술・표현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문의 문맥을 설명해주거나, 생소한 어휘들을 풀이해주는 自注를 달았다. 이러한 自注의 존재는 「조선부」의 중요한 형식적 특징인데, 이는 謝靈運의 「山居賦」로부터 영향 받은 것이었다. 自注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정보들은 15세기 조선사회의 모습을 증언해주는 자료로서 「조선부」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다음으로 「조선부」를 『조선왕조실록』 등 다른 자료와 결합해 동월의 조선인식과 저술태도를 살펴보았다. 「조선부」의 序와 결사가 보여주듯이 「조선부」의 기록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조선부」 저술은 모두 동월이 직접 경험한 것과 기억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부사 왕창의 기록과 대비하여 교정하고, 어떤 때는 확실한 답을 얻으려고 직접 실험까지 하였다. 그만큼 「조선부」는 사실에 근거하여 창작된 작품인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동월은 조선이 오랑캐와 달리 예의 제도가 중화를 많이 따라 명의 종속국 중에 제일 문명을 숭상한 국가라고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조선을 중국이랑 대등한 문명 대국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동월은 조선의 모습을 기술할 때 항상 明을 기준으로 삼아 조선을 바라보면서 조선을 명나라의 울타리라 여기고, 조선의 태평성대는 명나라 황제의 은택 덕분이라고 여겼다. 이는 동월의 강력한 민족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가 사신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고자 했던 책임감, 그리고 천자국의 사신으로서 가진 자부심과 관련이 있다.

이어서 '부로 쓴 조선 풍물지'라는 관점에서 「조선부」의 내용을 살폈다. 「조선부」에는 조선의 역사・지리・언어・법률・물산・복식・풍속 등을 알려주는 주는 기록들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들 중에는 이전의 여타 문헌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조선의 망건이나 滿花席에 대한 기록이 대표적이다. 또한 「조선부」에는 이전 기록들이 범한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들도 적지 않은데, 개중에는 조선의 혼례제도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음으로써 조선이 갖는 문명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준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조선부」가 후대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그것이 지니는 문화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조선부」는 간행 당시 중국과 조선에서 널리 유행하였고, 이후 후대에까지도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읽혔으며, 심지어 일본에서도 유통되었다. 조선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선부」는 이후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조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참고하는 '조선 이해의 교범서'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이수광, 이익, 정약용, 이규경 등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15세기 조선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물산 등을 고찰할 때 필수적으로 참고하는 고증 자료가 된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중국에서 「조선부」는 異域賦라는 문학 양식의 전범으로서 인식되기도 했다.

본고는 이상과 같이 동월의 생애와 조선 사행을 밝히고, 동월의 대표작인 「조선부」를 분석하여 그 문학적·역사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본고는 「조선부」를 주 자료로 삼은 탓에 동월의 다른 사행 작품을 상대적으로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동월이라는 문인을 발굴하고 그의 대표작 「조선부」의 문학적 성취와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하려던 본고의 목적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월의 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향후 모든 작품을 섭렵하여 논의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행 과정 중 동월과 조선 문인의 교유 관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후 보다 폭넓은 자료를 통해 동월과 관련된 조선 문인들의 실체를 파악하여 韓·中 문학 교류양상의 일면을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後考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董越 지음, 김영국옮김,『국역조선부』, 도서출판 심미안, 2013.
董越 지음, 尹浩鎭 옮김,「조선부」, 도서출판 까치, 1994.
董越,『大明董越朝鮮賦』, 서울대 규장각 소장.
董越,「조선부」,『欽定四庫全書』史部 地理類, 한중문화사, 1988.
董越,「조선부」,『四庫全書』, 第594冊, 臺灣商務印書館, 1986.
董越,「重刊遼東志書序」,『全遼志』, 규장각.

龔篤淸,『八股文匯編』上, 岳麓書院, 2014.
歐陽修,『歸田錄』.
權鼈,『海東雜錄』, 서울: 太學社, 1986.
김성일,『학봉집』.
金毓黻,『欽定四庫全書提要』, 中國國立奉天圖書館, 1887.
金在魯,『禮記補註』.(電子版, 中國基本古籍庫)
金宗瑞 등,『高麗史節要』, 朝鮮史編修會 編, 1938.
『儺禮廳謄錄』, 규장각古書.
郎瑛,『七修類稿』, 中國古籍基本庫.
『明史・宦官列傳』, 中國古籍基本庫.
『文苑英華』, 中華書局, 1966.
文廷式,『純常子枝語』, 中國古籍基本庫.
박지원,『열하일기』, 한국문집총간DB.
倪謙,『朝鮮紀事』,『紀錄彙編』, 臺灣商務印書館, 1969.
倪謙,『朝鮮紀事』, 北京 中華書局, 1985.
王鴻鵬, 王凱賢, 張蔭堂,『中國歷代探花』, 解放軍出版社.
유수원,『우서』, 한국문집총간DB.
尹愭,『無名子集』, 한국문집총간DB.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 서울대 규장각 소장.
李德懋,『靑莊館全書』,『한국문집총간』.
李東陽,『懷麓堂集』,『四庫全書』,第1250冊, 臺灣商務印書館, 1986.

李東陽,『李東陽集・續集』, 岳麓書社, 2008.
李運富 編注,『謝靈運集』, 岳麓書社, 1999.
李賢,『明一統志』, 서울대 규장각 소장.
張廷玉등 撰,『明史』, 北京 中華書局, 1974.
『典錄通考』.
周密,『齊東野語』.
丁若鏞,『經世遺表』.
丁若鏞,『牧民心書』.
陳元龍,『歷代賦彙』, 中國古籍基本庫.
『許文穆公集』, 四庫禁燬書叢刊本, 集40, 北京, 北京出版社, 2000.
『皇華集』, 서울대 규장각 소장.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朝鮮王朝實錄』,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고려대학교도서관(http://library.korea.ac.kr).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korcis).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http://lib.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kr/main).

2. 단행본

姜維東 劉矩,『東北地方民族史證』, 吉林大學出版社, 2005.
권근 원작, 권람 집주, 권광욱 역주,『응제시집주』, 해돋이, 1999.
김광언,『동아시아의 놀이』, 민속원, 2004.
金星洙,『韓國辭賦의 理解』, 國學資料院, 1996.
김성수,『辭賦文學硏究』, 공주대학교출판부, 2007.

김한규,『朝鮮錄 연구』,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동월・공융경 지음, 은몽하・우호 엮, 김한규 옮김,『사조선록 역주3 明使의 朝鮮使行錄 2』, 소명출판, 2012.
杜慧月,『明代文臣出使朝鮮與皇華集』, 人民出版社, 2010.
卞麟錫,『四庫全書 朝鮮史料의 硏究』, 도서출판 민족문화, 1977.
사진실,『봉래산 솟았으니 해와 달이 한가롭네: 왕실의 연회축제』, 태학사, 2017.
서긍,『국역 고려도경』, 민족문화추진회, 1977.
신천식,『朝鮮前期 敎育改革과 科擧運營』, 景仁文化社, 1999.
신태영,『明나라 사신은 朝鮮을 어떻게 보았는가:『皇華集』연구』, 다운샘, 2005.
심경호,『여행과 동아시아 고전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楊渭生,『宋麗關係史硏究』, 杭州大學出版社, 1997.
『莞草匠』,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魏涵民,『馬鞍山古詩詞選注』, 合肥工業大學出版社, 2015.
유득일 지음, 임재완 옮김,『연행일기초』, 국립중앙도서관, 2010.
이강한・하우봉・정재훈・정만조・김태영,『실학시대의 역사학 연구』, 2015.
李梅花,『10-13世紀宋麗日文化交流硏究』, 花齡出版社, 2005.
李成茂,『韓國의 科擧制度』, 한국학술정보, 2014.
이수광 저 丁海廉 역주,『지봉유설精選』, 現代實學社, 2000.
李曰鋼,『辭賦流變史』, 文津出版社, 1987.
이종묵,『부부』, 문학동네, 2011.
張慶嬉,『朝鮮時代 冠帽工藝史 硏究』, 서울 景仁文化史, 2004.
전상운,「이규경과 그의 박물학」,『성신여대논문집』, 1972.
정병호,『농악』, 열화당, 1986.
정약전, 이청 지음・ 정명현 옮김,『자산어보』, 서해문집, 2016.
전해종,『韓中關係史硏究』, 一朝閣, 1970.
趙季 (輯校),『足本皇華集』, 鳳凰出版社, 2013.
조영록,『近世 동아시아 三國의 國際交流와 文化』, 지식산업사, 2002.
何琇,『樵香小記』, 中華書局, 1985.
『翰林記』, 中華書局, 1985.
한치윤 저, 정선용 역,『국역 해동역사』Ⅲ, 민족문화추진회, 1998.
한치윤 저, 정선용 역,『국역 해동역사』Ⅳ, 민족문화추진회, 1998.
黃克,『中國歷代名臣言行錄 先秦-晩淸 文白對照』第3卷, 中國城市出版社, 1998.
黃霖, 梅新林, 胡明,『中國文學古今演變硏究論集四編』下, 上海古籍出版社, 2015.
黃葦,『中國地方志詞典』, 黃山書社, 1986.

3. 논문

강석중, 「한국 科賦의 전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高秋鳳, 「董越及其「朝鮮賦」研探」, 『중국학연구』 67집, 중국어문학학회, 2014.

慶尙北道 編, 「'網巾匠' 無形文化財指定調査報告書」, 第140號, 文化財管理局.

김경록, 「조선시대 사신접대와 영접도감」, 『한국학보』 30집, 일지사, 2004.

김경록, 「조선시대 使行과 使行記錄」, 『韓國文化』 12집, 2006.

김남이, 「15세기 朝鮮文士와 明 使臣의 詩文 酬唱과 그 의미」, 『동양고전연구』, 2002.

김덕수, 「朝鮮文士와 明 使臣의 酬唱과 그樣相」, 『韓國漢文學硏究』 27집, 2001.

김소희, 「「조선부」의 한중일 간행과 유통」, 『장서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김송희, 「조선초기 對明外交에 대한 一硏究: 對明使臣과 明使臣 迎接官의 성격을 주심으로」, 『사학연구』 55.56집, 1998.

김영국, 「북경대학본을 통해 본 「朝鮮賦」 의 변개 양상」, 『韓國言語文學』, 2014.

김영록, 「朝鮮初期 對明外交와 外交節次」,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韓國史論』 44집, 2000.

김은자, 「朝鮮時代 使行을 통해 본 韓.中.日 音樂文化」.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1.

김은정, 「庚午本『皇華集』편찬경위와 詩文酬唱의 의미」, 『韓國漢文硏究』 7, 1999.

김정녀, 「최부의 『표해록』을 통해 본 15세기 朝鮮과 明朝 문학 교류의 현장」, 『고전과 해석』 3집, 2007.

김종수, 「조선시대 사신연 의례의 변천: 중국 사신에게 베푼 연향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38집, 온지학회, 2014.

김한규, 「董越의 「朝鮮賦」와 迎詔禮 論爭」, 『使朝鮮綠 연구』,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杜慧月, 「다른 나라에서 같은 점을 찾다: 명나라 문신의 사조선록 연구」, 淵民學志, 2014.

신태영, 「明使 董越의 「朝鮮賦」에 나타난 朝鮮認識」, 『한문학보』 10집, 우리한문학학회, 2004.

신태영, 「『皇華集』소재 한시의 특징과 양상: 명 사신과 조선 접반사의 수창」, 『동방한문학』 42집, 2010.
심우성, 「민속놀이 쌍륙」, 『우리 공연문화 읽기』, 공연관리뷰, 2016.
안상복, 「明人 董越의 「朝鮮賦」에 墓祀된 15세기 山臺雜戲 재검토」, 中國語文學誌, 2014.
안주혁, 「朝鮮 前期 明使의 使行과 迎詔・勅 儀禮의 明禮 수용」,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梁承德, 「謝靈運 賦論 硏究」, 『中國語文學』 54, 영남중국어문학회, 2009.
YANG SIMIN, 「15세기 朝明 詩文外交와 倪謙의 문학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윤재환, 「董越과 龔用卿의 比較를 통해 본 中國 使臣의 朝鮮認識」, 한민족어문학, 2014.
윤재환, 「董越의 「朝鮮賦」를 통해 본 中國 使臣의 朝鮮認識」, 동방한문학, 2012, Vol.53.
이화형, 「한국전통 産育의례 속의 생명중시 의식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33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이현종, 「명사접대고」, 『鄕土서울』 12권, 서울역사편찬원, 1961.
임상훈, 「洪武帝, 明代 宦官 外交의 創始者- 洪武帝의 宦官 抑制와 그 實體」, 『東洋史學硏究』 12, 2014.
장숙환, 「조선시대 남자의 首飾 연구Ⅱ」,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010.
정구선, 「鮮初 조선 출신 明 사신의 行跡」, 『경주사학』, 2004.
조영록, 「董越의 「朝鮮賦」에 대하여」, 『全海宗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전해종 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편집위원회, 일조각, 1979.
주경렬, 「권근의 使行詩 硏究: 『奉使錄』을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16, 1998.
허영일, 「조선시대 사신연의 특징과 변화 양상: 사신연의 궁중정재를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대한무용학회, 2013.
Leejongmook, Establishing Friendships between Competing Civilizations: Exchange of Chinese Poetry in East Asia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RETHINKING THE SINOSPHERE*, CAMBRIA PRESS, 2020.

龔遠生, 「江西寧都出土明代董越妻溫氏墓誌銘」, 南方文物, 1992.
郭俊萍, 「不學詩無以言-『詩經』在春秋外交中的作用」, 太原師範學院學報, 2002.
喬鈺潔, 「明朝初期與朝鮮表筏事件-以權近的“詩賦外交”爲中心」, 文敎資料, 2015.
駱曜軍, 「明代 「朝鮮賦」 自註里的中國-以『朝天錄』과 『李朝實錄』爲傍證」, 연변대학학보 社會科學版, 2017.

劉惠・楊秀英,「明代中期使臣筆下的朝鮮－以董越「朝鮮賦」 爲例」, 安陽師範學院學報, 2018.
劉喜濤,「封貢關係視角下明代中朝使臣往來研究」, 東北師範大學 中國古代史 博士學位論文, 2011.
傅德華・李春博, 「明弘治年間中朝禮儀外交: 以董越出使朝鮮爲中心的考察」, 『韓國研究論叢』, 復旦大學, 2009.
孟憲曉,「『皇華集』與 明代 中朝 友好交流」, 연변대학 歷史學 博士學位論文, 2012.
苗壯, 「明代出使朝鮮使臣的域外記志詩」, 『域外漢籍研究集刊(第八輯)』, 中華書局, 2012.
吳伊瓊, 「明朝與朝鮮王朝詩文酬唱外交活動考論－以朝鮮王朝實錄爲中心」,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11.
王克平,「『皇華集』的 文學價值」, 遼東學院學報, 2011.
王元林,「南唐章僚『海外使程廣記』考」,『求索』, 2015.
王准,「從「朝鮮賦」 和 「交南賦」 看明代文人的頌美意識」, 昆明學院學報, 2014.
王皓,「關與『宣和奉使高麗圖經』創作的幾個問題」,『四川師範大學學報』, 2012
牛犁, 崔榮榮, 高衛東,「網巾與明代社會變遷」, 江西社會科學, 2013.
喻顯龍,「論明朝的朝鮮火者進貢與宦官使臣」,『當代韓國』, 2018
李慶宏・黃淵, 「弘治時期朝鮮的社會風俗－以董越「朝鮮賦」 爲例」, 青海師範大學民族師範學院學報, 2014.
李培培, 「明朝使臣祁順與朝鮮文人徐居正的唱和詩」, 齊齊哈爾大學學報, 齊齊哈爾大學, 2016.
李芬蘭,「從董越「朝鮮賦」 看明代都邑賦的文學內涵」, 青海師範大學民族師範學院學報, 2014.
李新峰,「明前期赴朝鮮使臣叢考」, 刊『明淸論叢』 第4輯, 紫禁城出版社, 2003.
趙宏祥, 「自註與子註——兼論六朝賦的自註」, 『文化遺産』, 中國社會科學原文學研究所, 2016.
曺虹,「論董越「朝鮮賦」－兼談古代外交輿辭賦的關係」,『域外漢籍研究彙刊』, 2005.
周斌, 「唐人顧愔及其『新羅國記』考論」,『西華師範大學學報』, 2016; 李巖,『朝鮮中古文學史研究』, 人民文學出版社, 2015.
陳彝秋, 「文本沉浮與外交變遷－朝鮮權近『應製詩』的寫作, 刊刻及經典化」, 外國文學評論, 2018.
浦銑,「復小齋賦話」,『歷代賦話校證』,上海古籍出版社, 2007.
胡佩佩,「董越「朝鮮賦」整理與研究」, 연변대학 中國古典文獻學 碩士學位論文, 2017.

부록 1: 『황화집』에 실린 동월 작품

	『황화집』에 실린 동월 작품	형식
1	「朝鮮賦」	賦
2	「三月朔, 安興館遇雨, 予將促行, 許吏曹命譯者苦留, 且屢有“天敎好雨留佳客”之誦, 因摘爲六言七首, 用博一粲, 中書君已老而禿, 甚不奏功. 況値我疾行, 殊無好步. 二妙之來, 益見涇渭. 聊以答意, 兩不外也. 越頓首王同事先生.」	詩
3	「初七日出黃州道上遇雨」	詩
4	「初八日自龍泉館東行, 見水濱一石壁, 儼然如屛狀」	詩
5	「弔箕子墓辭」	詩
6	「承示『鶻邀雉』佳作, 用次奉答司諫王公同事, 三月十日在安城館漫錄」	詩
7	「三月十一日渡臨津江遇雨」	詩
8	「三月十四日眺大平樓次王黃門韻」	詩
9	「三月望日成均館謁宣聖廟」	詩
10	「三月望日登漢江樓」	詩
11	「三月十八日宿碧蹄館」	詩
12	「遊蔥秀山記」	記文
13	「重登鳳山樓」	詩
14	「尙友堂詩序」	詩序
15	「題申汎翁文集後」	題跋
16	「寄許吏曹」	詩
17	「黃門足吏曹詩意似絶, 而實有天然對偶者存. 因續貂尾, 以記一時」	詩
18	「生陽館」	詩
19	「安定館」	詩
20	「重過肅寧館」	詩
21	「淸川江樓館」	詩
22	「三月二十八日自東國歸, 旣渡博川, 薄午又泛大定, 喜而有作」	詩
23	「重宿嘉平館」	詩
24	「度嘉山嶺」	詩
25	「次喜晴六言疊韻」	詩
26	「越素性不喜作詩, 有使事來曰, 惟知以急君命爲念, 殊無暇役志餘風花. 三月朔, 滯雨安興, 許吏曹留之甚力, 旣屢誦『天敎好雨留佳客』之句以感予, 乃用摘其自爲六言詩七首, 謾錄求敎, 反蒙次和. 入夜仰瞻霄漢, 喜解剝雲陰, 明日東奔,	詩

	蓋微占而有孚者. 復成二律志喜, 希賜敎焉」	
27	「平壤城謁箕子廟」	詩
28	「渡大同江」	詩
29	「朝鮮太醫院承訓郎兼內醫院主簿曺生伸從 吏曹許判書旣逆予江上, 復送至此, 往還蓋一月餘矣. 愛其執禮知書, 且通華語. 將別, 索予詩, 謾賦以似」	詩
30	「登浮碧樓」	詩
31	「風月樓記」	記文
32	「松林晩照」	詩
33	「宿林畔館夜雨」	詩
34	「登鳳山樓」	詩
35	「道傍初見耕水田」	詩
36	「曉起辱黃門王先生見示道次『炮麕』古作, 走筆奉答, 蓋亦以嘉主人之禮也」	詩
37	「坐明倫堂, 喜諸生進退式禮」	詩
38	「是日, 國王預遣二承旨於樓中設宴, 坐見風水成文, 用賦一律」	詩
39	「泛漢江」	詩
40	「魚舟絡繹戲魚, 戲詠用博同遊一粲」	詩
41	「揚花渡」	詩
42	「晩登望遠亭」	詩
43	「戶曹鄭判書在大平樓與予相處者五日, 玆當戒行, 詩以識別」	詩
44	「去日初見梨花, 歸時搖落殆盡, 用紀一絶」	詩
45	「重過開城望聖居、天磨二山」	詩
46	「開城府」	詩
47	「二十日重渡喜晴」	詩
48	「雲興館午餉, 欲睡不可得」	詩
49	「宿金巖館」	詩
50	「過興義館不入, 六言八句」	詩
51	「過安城館不入」	詩
52	「重經坡州館午膳」	詩
53	「宿東坡館」	詩
54	「金郊館午餉」	詩
55	「龍泉道中」	詩
56	「劍水館午膳」	詩
57	「承以『登山臨水送將歸』爲韻見贈, 用和答意」	詩

58	「重泛大同江」	詩
59	「重遊大同江」 其一・其二	詩
60	「登風月樓」	詩
61	「次許吏部『泛大同江』韻」	詩
62	「次許吏部『車門樓』韻」	詩
63	「迎薫樓觀射」	詩
64	「朝鮮司譯院僉正孫重根字崇本者, 侍予大平館, 又送至鴨綠江, 循謹可與, 亦頗解事. 臨行索詩, 勉賦以答」	詩
65	「朝鮮司譯院僉正李生名義字集之, 既逆予於鴨江, 復侍予大平館, 玆復送予出境, 臨別索詩, 用錄以似」	詩
66	「鴨綠江舟中留別許吏曹」	詩
67	「朴希仁字辭」	辭

부록 2:「朝鮮賦」각 장별 내용 구분

장	내용
1	睠彼東國, 朝家外藩, 西限鴨江, 東接桑暾. 天池殆其南戶; 靺鞨為其北門. 八道星分, 京畿獨尊, 翼以忠清慶尚黃海江原. 義取永安, 意在固垣. 平安地稍瘠薄, 全羅物最富繁. 其袤也道里二千, 延則加倍. 視古也國封三四, 今則獨存. 蓋惟不蹈前人之覆轍, 所以獨蒙昭代之深恩也. 詔許建邦, 自為聲教. 曰詩曰書, 視庠視校. 士窮則闢蠹雕蟲, 宦達則搏鵬變豹. 農勤稼穡, 技習工巧. 官多仿古, 俸則給田. 刑不以宮, 盜乃荷校. 貿遷一以粟布, 隨居積以為贏. 用使盡禁金銀, 雖錙銖而亦較. 田賦以結代畝, 牛耕四日者, 乃輸四斗之租. 士養以類定員, 身寄二齋者, 皆食二時之稍. 官非三品, 綺繡不得文身. 民受一廛, 禾麻則皆穿窖. 其最可道者, 國有八十之老, 則男女皆錫宴以覃其恩. 子有三年之喪, 雖奴僕亦許行以成其孝. 王都設歸厚之署, 儲棺槨以濟乎貧窮. 鄉飲嚴揚觶之文, 秩籩豆以戒其喧鬧. 婚媾謹乎媒妁, 子出再醮者, 雖多學, 亦不得齒於士流. 門第最重簪纓, 世列兩班者, 或匪彝, 則皆不為之禮貌. 至若家不許藏博具, 祭則皆立家廟. 大夫乃祭三代, 士庶則止祖考.此皆自箕子而流其風韻, 而亦視中國為之, 則傚也. 凡為城郭, 皆枕高山. 間出岡麓, 亦視彎環. 大者則聳飛飛之雉堞, 小者亦雄屹屹之豹關.
2	蓋自義順而歷宣川, 其間雖有龍虎熊骨之巑岏, 惟郭山更凌乎霄漢, 又自新安而渡大定, 其山雖有天馬鳳頭之巢巢, 而安州又倚乎潺湲. 郡肅川而邑順安, 勢皆不於原野. 樓肅寧而館安定, 地乃稍就寬閒. 惟彼西京, 地最夷曠, 隨勢命名, 是曰平壤. 爰自有國, 已高築臨水之維城. 曾幾何時, 又近移北山之疊障也. 自餘諸州, 壤多燥赤. 間有黃壤, 亦雜沙石.惟此近郭, 土則黏埴. 形存畎澮溝塗, 樹宜禾麻菽麥. 厥草乃廡, 厥木乃喬.葉有鳴蜩, 草有秀萋. 錦繡峯遠接龍山之兀兀, 浮碧樓下瞰浿水之滔滔. 麒麟尚餘乎石窟, 駝羊半棄於山腰. 殿餘故址, 松偃危橋. 慨往事之莫留, 如見晛之聿消. 孔庭設像, 皆冕而裳. 亦有青衿, 濟濟道旁. 軟羅巾幘, 帶飄且揚. 皮革襪履, 底尖而方. 候則鞠躬, 進則趨蹌. 東有箕祠, 禮設木主, 題曰「朝鮮後代始祖」, 蓋尊檀君為其建邦啟土, 宜以箕子為其繼世傳緒也. 墓在兔山, 維城乾隅. 有兩翁仲, 如唐巾裾. 點以斑斕之苔蘚, 如衣錦繡之文襦. 左右列以跪乳之石羊, 碑碣馱以昂首之龜趺. 為圓亭以設拜位, 累亂石以為庭除. 此則其報本之意雖隆, 而備物之禮亦疏也. 大同既渡, 山漸崔嵬. 生陽載臨, 路更迂回. 遺營壘於松陰, 若古塚之累累. 望波濤於海上, 識洪量之恢恢. 成佛雄關, 棄石磊磊. 北接慈悲, 南臨渤澥. 在前元則畫此為界, 至國朝乃示以無外也. 而朝鮮所統之八道, 已去其一道餘矣. 延津劍水, 鳳山龍泉. 環翠翬飛, 蔥秀雲連. 寶山瑞騰, 金巖溜穿. 聖居松嶽, 天魔朴淵. 開城戾止, 留都在焉. 有威鳳遺基, 棄乎北麓. 有蟠龍舊隴, 出乎東阡. 蟄神物於靈湫, 挂瀑

布於長川. 閭閻萬井, 禾稼百廛. 官署亦限堂屬之尊卑, 廟學亦嚴像設於聖賢. 芹浮香于泮水, 芸闢蠹於遺編. 春風酒旆, 夜月管絃. 其民物庶蕃, 固非諸州之可儗, 而風氣固密, 亦非西京之可肩. 蓋王氏王此者逾四百年, 至瑤昏迷, 始權知國事於李氏, 而名高麗, 統此者易三四姓, 及旦得國, 乃請複舊號於朝鮮也. 臨津濟渡, 坡州爰止.遙瞻漢城, 高騰佳氣. 乃經碧蹄, 乃躡弘濟. 是為王京, 屹立東鄙. 奠以三角之嵯峨, 蔭以萬松之蒼翠. 北聯千仞, 勢豈止壓千軍. 西望一關, 路止可容一騎. 山開郭外, 矯然翔鳳之覽輝. 沙積松根, 顥乎積雪之初霽.慕華館設於坤麓, 崇禮門正乎離位. 一以憩周爰之皇華, 一以迓會同之文軌. 詔至也, 王則袞冕郊迎, 臣則簪裾鵠侍. 巷陌盡為耄倪所擁塞, 樓台盡為文繡所衣被. 樂聲也若緩以嘽, 虞設也亦華以麗. 沈檀噴曉日之煙霧, 桃李艷東風之羅綺. 駢闐動車馬之音, 曼衍出魚龍之戲. 鰲戴山擁蓬瀛海日, 猿抱子飲巫山峽水. 翻筋斗不數相國之熊, 嘶長風何有鹽車之驥. 沿百索輕若凌波仙子, 躡獨趫驚見跳梁山鬼. 飾獅象盡蒙解剝之馬皮, 舞鵷鸞更簇參差之雉尾. 蓋自黃海西京兩見其陳率舞, 而皆不若此之善且美也. 太平有館, 鐘鼓有樓. 仡仡國中, 言言道周. 以宴以息, 以遨以游. 臥榻則環以八面幃屏, 疏簾則加以半卷香鉤. 雞鳴則候問安之使, 騎出則鳴夾道之騶. 有緝御以給使令, 有楮墨以供唱酬. 蓋敬主必及乎使, 而為禮不得不優也. 宮室之制, 與華亦同. 其塗皆丹, 其覆皆甋. 門三重則殺杯螺之焜耀, 殿居中乃有琉璃之青蔥. 堂戺嚴七級之等差, 綺疏准八窗之玲瓏. 或限隔以高山, 則別構乎離宮. 大抵皆不擇乎平壙以為基, 而惟視氣勢以為雄也. 詔至殿廷, 王則傴僂. 世子陪臣, 左右夾輔. 展軒縣於階墀, 列障幕於庭宇. 仗齊一於干鹵, 樂作止於柷圉. 齊三聲於虎拜嵩呼, 率兩班於鳳儀獸舞. 雖音聲之不可通, 而禮儀亦在所取. 闕庭既撤, 賜物亦予.乃序東西, 乃分賓主. 方交拜以成禮, 遂假譯以傳語. 謂藩垣實小國之所宜, 而渙汗辱洪恩之覃溥. 罄涓埃而莫報, 雖殞越其何補. 惟日歌天保之周詩, 冀遙祝日升之皇祜. 載詠隰桑之喜見, 載誦春秋之禮序. 謂列國皆先乎王人, 矧清光日近乎當宁也邪. 門廡殿庭, 皆蹈以席. 賓主座分, 則加以襲. 彼章數則虯並偃而戢鱗, 此織文則鳳雙飛而展翼. 食器也間用金銀銅瓷, 品物也率多海陸珍奇. 主獻賓一以華禮, 賓酢主亦用燕儀. 羅蜜餌數至五重, 潔盤堆大可尺圍. 每器皆範銀銅為闌幹, 而綴以綠珠之絡索, 其上皆剪羅綺為花葉, 而舞以彩鳳之襹褷. 豆籩取美觀瞻, 則以前大後小為序. 陳列取宜嚮背, 則以外高內低為差. 間殽羞以糝食, 雜醯醢以醬臡. 酒則醞釀以杭, 雖從事之出青州者殆未能與之優劣. 色香溢斝, 而督郵之出平原者遠不敢望其藩籬. 案排一字, 中覆以綃. 左右翼三, 皆陳餼牢. 近坐一筵, 俟即席, 王乃自舉. 充盤諸餼, 遇當割, 臣必親操. 示特殺則牲皆獻心, 取肥甘則腸三實膋. 續獻則先同姓封君, 次乃以及政府六曹. 湯一進必以五碗為數, 器累迭不以盈尺為高. 几案不容, 則徹於蹈籍之席. 腥膻既飫, 乃進以澗沚之毛. 從官皆鵠侍於

	中外，閽譯則俯伏於周遭．蓋三燕太平也，禮皆同而文不殺．一燕仁政也，誠益至而力益勞．比予竣事東歸，遄車言邁．王則先出慕華，列燕以待．語益丁寧而不厭，禮益勤渠而匪懈．荷修爵之無算，辱善言之至再．至誦軻書之重內，繆許予黨為皆能．及引老氏之贈言，自慊其才之不逮．意蓋將贈予以詩句，惜不為予黨所解也．
3	乃若山川道里，浹月所經，風物人情，五日所得．雖不具知，亦頗記憶．成均國學，負山枕涯．前後殿堂，左右庭階．官有大小司成，徒有上下寄齋．西京所不能儗，開城所不能偕．則在乎祭，不像設以瀆亂，徒有進造為朋儕也．畿內之景，漢江為勝．樓高礙雲，水碧浮鏡．渡有楊花，物亦繁盛．萃八道之運餉，為一國之襟領．最高亭俯瞰長干，百濟國接連舊境．予嘗為之放舟倚馬，為一日之游，彼亦自慶其樂事賞心，出百年之幸也．達巷通衢，正直無曲．截然簷阿，巋然華屋．百家則出高牆以隔風火，每室皆穿北牖以避炎燠．蓋其外皆分授於官，而貧富不得異制．其內乃獲由己，而結構惟其所欲也．官府之署，制亦不殊．皆有堂寢，皆飭廉隅．樓翼闌楯，梁冒侏儒．館傳壁間，盡塗以水墨不工之畫．戶牖合處，皆寫以混沌初分之圖．此則未必盡然，予但據所見而直書也．貧壁編筱，索綯以完．其上則覆以茅茨，其空則塞以泥丸．有荊棘反出簷端者，有棟宇僅如困盤者．此比鳳凰，雖不足千仞之舉，而視鷦鷯，亦可托一枝之安也．富則陶瓦皆甋，而廡序之翼東西者，棟反聳出於南北．塗塈皆土，而堂寢之位前後者，脊反低下於中間．門則皆循東序之棟，設梯以升，必矩步乃可達於堂寢．地則皆畏下濕之沾，鋪板以隔，若趺坐則皆藉以茅菅．所不可曉者，家不豢豕，蔬不設樊．引重則惟見牛馬，芻牧絕不見羊羱．鮮食則蹄荃山海，蔬茹則採掇江灣．有至老村民而不一沾豕味者，有偶沾燕賜而即夢踏菜園者．與夫貧則皆葬山椒，貴乃卜宅郊原．此皆出殊方異俗，而不必深考細論也．人露總環，以分貴賤．童留胎髮，不間後先．有甫孩提而發已垂肩者，有歲六七而角總丱然者．揆其留，固以遺體當重，欲其露，所以戴弁皆前也．民戴草帽，頷皆垂珠．頂或圓方，色皆黑盧.輿皂則穿四葉青衫，頂加插羽．庸人則衣數重麻布，步曳長裾．惡喧嘩則銜枚道路，止衝突則曳杖庭除．屨制以皮，雖泥行，亦所不恤．襪縛於褲，縱水涉，亦所不拘．衣皆素白而布縷多麤，裳則離披而襞積亦疏．背有負則且俯且行有如龜曝，尊有命則且蹲且進有若鳧趨．人必三八乃舉一輿，行不一舍又易百夫．蓋於重，皆不能以肩任，宜於此，皆以手舉扶也．女鬢掩耳，不見佩璫．首戴白圈，直壓眉眶．富貴者，面乃蔽以黑繒，貧賤者，頸不掩於素裳．有位而尊，乃許乘輿出入，無位雖富，止許約馬超驤．襪履布韋，足皆縱而不束．衣襦布帛，袖則闊而不長．上衣則皆過膝，下裳則皆垂堂．卑見尊，亦以蹲踞為禮，賤有事，則以首戴為常．有頂盂水而手不扶匡者，有戴斛米而步亦趨蹌者．此則自所見而略陳，其未見則莫得而詳也．若夫所謂川浴同男，郵役皆孀．始則甚駭於傳聞，今則乃

	知已經更張．豈亦以聖化之所沾濡，有如漢廣之不可方也歟．禽多雉鳩雀鶪，獸多麋鹿麏包．錯則昆布海衣蠣房車螯，魚則錦文鮐項重唇八稍．鯉鯽隨川澤，皆可以樔，鸛雀在庭院，多見有巢．似蛤決明，味獨甘於海錯，如拳紫蕨，美獨勝於山肴．至若異產川陸，分馥蘭皋．則有筆管酸漿，紫芹白蒿．水蓼之茅，當歸之苗．松膚之餌，山參之糕．皆可為葅，皆以薦醪．果則梨慄棗柿 榛松杏桃，柑橘梅李 石榴葡萄．皮則虎豹麤鹿，狐貉■〈豸芮〉貂．取以為文茵重裘，矢服弓櫜．花則薔薇躑躅 芍藥牡丹，酴醾丁香 雀眉山礬．二月方中，櫻桃盡放．季春未晦，鬱李皆殘．草多薈蔚蒙茸，樹多輪囷屈蟠．亦有老松，其堅如柏．人取為明，脂亦不滴．花香者一經春皆採，子結者必來年乃食．小者盡以駕溪澗之橋，大者乃以柱廟堂之石．此則其種類不同，而為用亦各有適也．五金莫究所產，最多者銅．五色各隨所用，所禁者紅．五味則醯醬為多，五聲則音韻莫通.為志所稱者，狼尾之筆，為武所尚者，樺皮之弓．布織以麻，而以苧名者，蓋出傳聞之誤．紙造以楮，而以繭認者，以其搗練之工．布之精者，以細密如縠，紙所貴者，在卷束如筒．傅油則可禦雨，連幅則可障風.乃若所謂男子巾幘如唐，今則非昔．果下之馬，亦無三尺．惟有五葉之參，滿花之席．歲貢闕庭，時供上國．百二十年來，其蒙晉接之駢蕃．雖曰本乎聖明之所錫，而亦由其琛贄之絡繹也．
4	嗟夫！六義有賦，惟取直陳．浹月經行，詎得其真．矧予以襪線之菲才，不異乎滄海之纖鱗．乃能運筆端之造化，寫六合之同春．惟不敢厚誣於見聞，或庶幾不愧於咨詢．

中文摘要

董越的朝鮮賦研究

李 萌

國語國文系 國文學專業

首爾大學 研究生院

本文的研究對象爲董越的代表作《朝鮮賦》，迄今爲止關於《朝鮮賦》的研究大多疏忽了的的創作過程和形式上的特點. 歷來研究中關於“董越出使朝鮮”和《朝鮮賦》的內容有很多， 但是關於董越的交友關係,《朝鮮賦》形式上的特點， 選擇賦這种體裁的理由,《朝鮮賦》刊行後在韓中兩國文獻中被引用的情況等內容却鮮少有人加以關注并深入探討。因此， 本文將詳細探討董越的一生以及出使朝鮮的狀況，并且全面考察《朝鮮賦》全文，綜合分析《朝鮮賦》的形式與內容。并以此分析《朝鮮賦》在文學史上的意義以及對後世的影響。

第二章分爲‘在董越之前的朝鮮使行’和‘董越的朝鮮使行’兩個小節， 試圖探討15世紀中國文人出使朝鮮的狀況。首先考察了在董越之前的朝鮮使行的情況，然後通過分析《皇華集》里收錄的董越的作品來闡明董越的使行路線。從而對15世紀中國文人出使朝鮮的獨特概況有了一定的了解，并以此作爲《朝鮮賦》作品分析的基礎。同時還分析了《朝鮮賦》有哪些板本。

第三章正式進入作品分析。首先從作品的表現手法和形式上的特點展開了討論。闡明了《朝鮮賦》自注的特點及來源。并且通過分析《朝鮮賦》的內容來窺探董越對朝鮮的認識以及董越的寫作態度。然後詳細分析《朝鮮賦》的內容構成和在後代文學作品中的被引用情況。

綜合以上的研究，第四章考察了《朝鮮賦》的价值以及在文學史上的地位。并且通過探討《朝鮮賦》在韓中兩國文獻中的被引用情況具體分析了《朝鮮賦》對後世的影響。

盡管《朝鮮賦》里對朝鮮的記錄也有不准确的地方,《朝鮮賦》的內容眞實可信， 錯誤相對來說較少，與篇幅相比內容極爲豊富，是一部不可多得的優秀的作品。

關鍵詞 ：「朝鮮賦」，董越，使行，朝鮮，自注，明 使臣

學號 ： 2017－25565